다시 봄,
봄은
메마른 나무에도 붉은 꽃을 피운다

윗가지에 핀 꽃잎이
밑가지에 핀 꽃잎에게 말한다

딱 한번 피고 진다면
부끄럽지 않게

밑가지에 핀 꽃잎이
윗가지에 핀 꽃잎에게 말한다

어차피 한 시절이라면
함께 가자고

그래 함께 피자
함께 가자

부끄럽지 않게
그림자마저도 부끄럽지 않게

기획

왜 커뮤니티비즈니스인가?

대안 경제와 소기업 운동

지역만들기와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전략적 도입

커뮤니티비즈니스와 중간지원조직

지속가능한 지역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실험들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비즈니스와 지역리더

대안 경제와 **소기업 운동**

대한민국 수정 헌법 1조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소기업 사장이 될 수 있다'

이현수
희망제작소 소기업발전소 연구원

너도나도 '대안'을 부르짖는다. 대안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으나 정작 대안은 없다. 전 세계를 금융 위기로 몰아넣은 경제 위기 속에서 무작정 '대안'을 부르짖는 것은 의미 없는 외침일지도 모른다. 지금의 경제위기에 대해 많은 전문가와 금융 실무자들의 자책과 향후 전망이 언론을 통해 쏟아져 나온다. 하지만 그 속에서 대안을 찾기란 쉽지 않다. '미네르바'라는 한 사람의 메시지가 온 나라를 휘청거리게 할 정도로 우리의 경제 기반은 취약하다. 그래서 진보 시민사회에서 '연대의 경제' '사회적 경제' '시민의 경제' 등의 용어로 이를 대체하는 노력을 펼치고 있는지도 모른다.

희망제작소도 경제의 대안을 찾으려 한다. '대안경제'란 무엇인가. 이를 정의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도 다양하고 경제학 전공자들도 딱히 무엇이라 규정

하는 것을 꺼린다. 안개 같은 '대안' 과 엄격한 '경제' 를 함께 묶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도 희망제작소가 '대안경제' 에 몰두하는 까닭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계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노력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천적인 노력과 주체적인 참여 없이 희망을 말할 수는 없지 않은가.

왜 소기업인가?

희망제작소가 대안경제를 모색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소기업' 이다. 산업적으로 '소기업' 은 '제조, 광업, 건설, 운수업 등에서 50인 이하, 기타 서비스업 10인 이하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체' 를 말한다. 하지만 희망제작소가 말하는 '소기업' 은 이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한국의 시장경제체제에서 정부가 대대적인 육성과 지원대상으로 거론하는 중소기업은 기본적으로 소기업보다는 중견기업에 가깝다. '소상공인' 을 말할 경우, 이는 거의 자영업에 가깝다. 그렇다면 그 중간에 끼어있는 것이 소기업인가. 이것도 아니다. 규모에 따른 분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의 시장경제체제에서 정부가 대대적인 육성과 지원대상으로 거론하는 중소기업은 기본적으로 소기업보다는 중견기업에 가깝다.

희망제작소가 다루는 소기업을 말하기 전에 먼저 '소기업' 의 본질에 대해 살펴보자. 소기업과 대기업, 이 가운데 무엇이 국가경제의 중요한 동력인가. 필자는 현재의 시장경제체제에 가장 적합하고 유용한 모델이 '대기업' 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모든 기업들은 삼성, LG, SK와 같은 거대한 재벌규모로 성장해야 하는 것일까. 기업은 생명체와 같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기업도 태어나서 자라고 늙어 죽는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 컨설팅 회사 '아이비 시(Ivy Sea Inc.)' 의 설립자 제이미 월터스(Jamie Walters)는 「작은 거인」이란 책에서 '소기업' 의 놀라운 위력을 소개하면서 '큰 것에 대해 맹목적으로 추종' 하는 세상에 대해 경종을 울린다. 그는 대부분의 기업가들이 공간, 직원, 수익 등을 늘리는 일이 성장과 성공의 유일한 비결이라는 신화에 휘둘리고 있으며, 기업의 설립 목적과 비전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회사가 몰락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도 여전히 양적인 성장에 집착한다고 말한다.[1]

물론 판매량과 직원의 증가는 성장의 지표일 수는 있으나 이것이 성공의 모든 지표가 될 수는 없다. 여기에서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대기업이라는 규모가 가지는 장점을 모두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소기업을 '대안경제' 의 한 모델로 다루는 데 있어 대기업이 이루지 못한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기여의 측면을 새롭게 조명해보자는 것이다.

근대화 이후 대한민국은 경제를 강조하면서 '중소기업' 을 거론하지 않은 적이 없다. 대통령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은 앞을 다퉈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을 최고의 공약으로 내세운다. 이들은 중소기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며, 엄청난 수익을 창

1_ 제이미 월터스, 「작은 거인」 (한스미디어, 2004)

출하는 원동력이자 대기업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강조한다.

이들의 말이 아니더라도 사실 중소기업은 우리의 사회와 국가에 큰 기여를 한다. 하지만 대기업을 역할모델로 삼고 있는 중견기업을 제외한 진정한 소기업[2]은 대기업이 모방하기 어려운 아이디어와 혁신의 결과물이다. 그리고 이러한 소기업이 중요한 이유는 지역 사회와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기업의 놀라운 위력

일자리 창출에 기여

아래의 [표 1][3]을 보자. 대한민국 전체 고용 현황을 보더라도 중소기업은 엄청난 일자리 창출 효과를 자랑한다. 또한 이러한 작은 기업들은 직접 고용과 더불어 경영에 필요한 각종 구비 물품과 서비스 구매를 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제조, 운송, 판매 등의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다.

| 표 1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국가경제 발전기여도 비교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전체
사업체	중소기업	94.8	99.4	102.2	100.7	99.5
	대 기 업	5.2	0.6	−2.2	−0.7	0.5
고용	중소기업	47.1	81.9	−6.8	109.6	77.5
	대 기 업	52.9	18.1	−93.2	−209.6	22.5
생산	중소기업	32.2	45.7	50.3	143.5	49.1
	대 기 업	67.8	54.3	49.7	−43.5	50.9
출하	중소기업	32.3	45.6	50.1	103.2	48.8
	대 기 업	67.7	54.4	49.9	−3.2	51.2
부가가치	중소기업	35.7	47.7	50.5	229.2	51.6
	대 기 업	64.3	52.3	49.5	−329.2	48.4

* 자료 : 통계청, '2005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고서' 각 연도에서 재편, 가공

경제적 다양성에 기여

어떤 경제 체제에서도 하나의 기업과 단일한 업종으로 의존하는 곳은 없다. 소기업은 상품, 업종, 시장 참여자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경제의 불황이나 특정 업종의 하향세에 비교적 쉽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다양한 소기업은 대기업과 같은 특정 업체에 의존하는 곳보다 지역 경제의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창의적이고 독창적

소기업은 창업자가 추구하는 사업의 목적과 의지가 분명히 드러나게 마련이다. 그래

2_ 흔히 '중소기업' 이라고 통칭해서 쓰지만 필자는 대기업과 같이 규모의 성장을 목표로 삼고 있는 대부분의 중견 기업들을 제외한 '소기업' 만을 강조하고 싶다.

3_ 통계청의 자료에는 '소기업' 만을 별도로 국가경제 발전기여도가 나와있지 않아 '중소기업' 으로 산출되어 있는 자료에 의거하였다. 다만, 중소기업 중에서도 소기업/소상공인의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 같다.

서 수많은 소기업 운영자들은 더욱 독특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승부를 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렇게 때문에 대기업에서 쉽게 도전할 수 없는 창의적인 아이템이 수없이 나오는 곳은 바로 소기업인 것이다. 소규모 사업자만이 가질 수 있는 유연성은 곧 이러한 사회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선도적인 도전과 모험을 즐길 수 있는 것이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소기업은 아무래도 대도시보다는 지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역 경제의 자립도 확보와 더불어 지역 주민과의 교류를 통해 공동체적인 시스템을 유지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지속가능한 기업을 옹호하는 미국의 데이비드 코튼 교수에 따르면, 대기업은 공동체의 삶의 질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단지 부를 축적할 목적의 법적 장치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이는 우리나라 모든 곳을 장악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과연 지역 사회와 얼마나 협력하고 기여하고 있는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대기업은 대규모 조직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복잡한 위계 질서를 갖는다. 이는 곧 의사결정 과정에서 불투명하고 비합리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소기업은 관리 체계의 필요성이 적고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의사 결정과 실행의 거리가 짧다. 이는 곧 비효율적인 요소를 제거하게 돼 비윤리적인 행태를 쉽게 드러낼 수 있게 되고 투명한 운영 구조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대기업이라는 규모가 가지는 장점을 모두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소기업을 '대안경제'의 한 모델로 다루는 데 있어 대기업이 이루지 못한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기여의 측면을 새롭게 조명해보자는 것이다.

여기까지 읽고 나서도 일부는 '그래도 대기업은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을 지금의 상황까지 끌어올리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고 생각할 수 있다. 동의한다. 대기업과 소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비교하면서 굳이 어느 한쪽이 더 좋다고 단정지을 필요는 없다. 다만 '소기업' 도 현재의 경제체제에서 '대안' 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 것뿐이다. 한국 사회에서 대기업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너무나 크고 소기업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사회적 가치가 인정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대안경제와 소기업 운동

그렇다면 희망제작소는 왜 '대안경제' 를 말하면서 소기업을 거론하는가. 희망제작소 소기업발전소는 소기업의 사회적 가치와 기여를 재평가하고 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성

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창의적인 소기업 문화와 기업가 정신을 널리 전파하여 성공한 소기업 모델을 발굴함과 동시에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보완하지 못한 부분을 메울 수 있는 대안경제의 프레임으로 '소기업 생태계' 를 만들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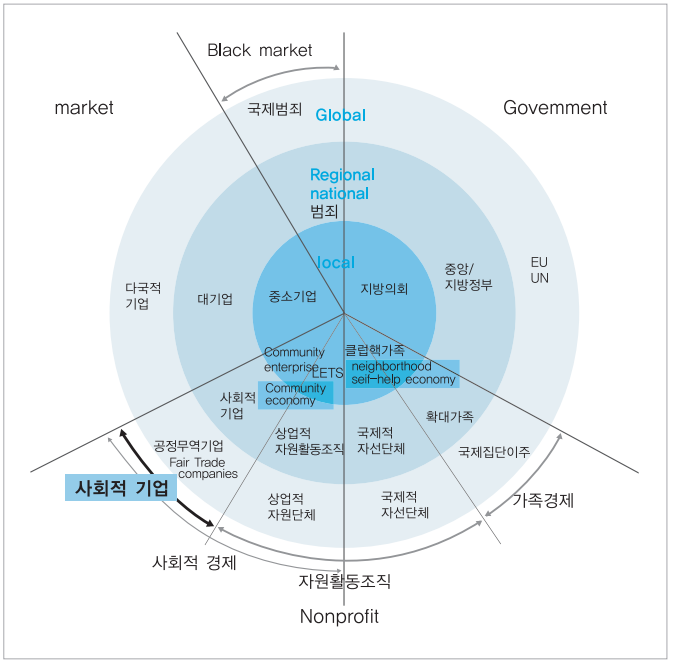
희망제작소 소기업발전소에서 주목하는 소기업은 사회적 가치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하며 이를 '희망소기업' 이라 통칭한다.

첫째는 지역 소기업이다. 지역 소기업은 말 그대로 소기업이 가진 지역과의 밀접한 연계 능력을 기반으로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비즈니스를 말한다. 지역 자산을 활용한 특산물이나 전통 문화 상품을 생산 제조 판매하거나,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영역의 공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기업을 말한다. 우리가 '지역' 을 사회적 문제 해결의 중요한 화두로 제기하는 것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서울, 수도권 중심의 정치, 경제, 문화 집중 현상에 따르는 많은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할 '대안' 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례로 지역의 특산물을 생산, 유통하는 영농조합이나 지역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예를 들어 보육, 쓰레기 처리, 에너지, 교통, 복지 등)를 공공적 서비스 영역에서 비즈니스로 발전시킨 커뮤니티비즈니스, 지역의 전통과 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목적으로 무형의 자산을 비즈니스로 활용한 소규모 업체들을 예로 들 수 있다.

참고 한동우 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가 '바른사회공헌포럼' 에서 발표한 '복지 공급체로서의 사회적기업' 발표문에서 발췌

다음은 사회적 기업이다. 아래의 그림을 살펴보자.



사회적 기업은 전통적, 사회적 경제 영역(흔히 제3섹터라 함)에서 자선이나 공익의 개념과 비즈니스가 결합한 모델을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법률상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주주나 소유자를 위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이를 위해 이윤을 사업 또는 지역공동체에 다시 투자하는 기업' 이라고 정의되어 있다.[4]

이미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 통용되는 'Social Enterprise' 'Social

Entrepreneurship' 의 이해의 폭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매우 협소한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를 손쉽게 말하면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파는 기업' 이라는 것으로, '고용 창출' 이라는 국가의 중대한 현실적 문제에 집중하고 있고 흔히 '좋은 일도 하면서 수익을 내는 기업' 이라고 단순화시키기도 한다.

마지막으로는 대안 소기업이다. 여기에서도 '대안' 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안 소기업은 한국사회가 도전해보지 못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자 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기존의 모델 중에서도 혁신적으로 수익 창출과 공익적 목적 달성을 이룰 수 있는 무한의 가능성을 열어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태양광발전 사업이나 바이오 산업 등은 오래 전부터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에 대한 대안적 고민에서 출발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제3세계의 생산자에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는 동시에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 줌으로써 그 지역 주민의 삶을 개선하려는 '공정무역(Fair Trade)' 이 대안기업의 한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대안경제를 찾아서

최근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겪은 미국은 최첨단의 금융 자본주의 시스템의 폐단과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새롭게 들어선 오바마 정부도 보수주의자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은행 국유화를 정책적으로 받아들이고 추진하는 것은 결국 '자본' 과 '기업' 이 구축한 경제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에서 아직도 '대기업 옹호' 를 부르짖으며 미래의 청사진을 펼치는, 그래서 그것이 '대안' 임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모든 국민이 '소기업 사장' 이 되어 작은 규모의 경제 시스템과 생태계에서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대안적인 경제 주체' 로 우뚝 설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는 그 동안 경제 체제가 만들어 놓은 패러다임의 변화이기도 하다. 기존의 경제체제는 경쟁과 독점에 따른 빠른 변화와 폭발적인 발전을 통해 결국 빈부격차, 사회양극화 등의 여러 사회 문제를 야기하였고, 근본적으로 모든 인간의 행복과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없는 게임이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었다.

이제는 자본주의가 만들어 놓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협소한 개념의 공공적 서비스 대행으로서의 사회적 기업, 소기업이 아니라 지속가능하면서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비즈니스 시스템, 인간의 공존, 화합, 협력, 나눔, 다양성 등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 경제를 모색해야 할 때이다.*

4_ 이에 대한 사례는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 홈페이지(www. social enterprise.go.kr)에 200여 개의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들이 소개되어 있으니 이를 참조하기 바란다.

지역만들기와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전략적 도입

김재현
희망제작소 커뮤니티비즈니스 연구소장,
건국대학교 환경과학과 교수

한국의 농촌지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지역사회를 유지해왔던 공동체적 메커니즘이 산업화, 국제화, 도시화 등에 의해 약화되어 자립적 생활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점점 잃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급속한 도시집중화로 인해, 지역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할 서비스 및 인프라의 양적 · 질적 부족과 지역산업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인적자원의 부재, 지역자원의 미활용 등으로 농촌지역은 지속가능성이 의심받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농촌지역은 전통적으로 우리사회를 지탱해온 중요한 공간이자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보고이며, 공동체적 질서를 형성하고 다양한 문화적 콘텐츠를 제공하는 우리 국민 정체성의 기본 토대이다(생명의숲, 2007). 또한 농산촌은 개인에게 있어서는 치유와 재생의 장소가 될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 석유소비 문명의 재생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富野暉一郎. 2007). 따라서 농촌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전체를 지속가능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공동체 영역의 복원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의 정책적 지원 사업을 근간으로 다양한 형태의 지역 만들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도적인 지역과 마을에서는 발전 가능성의 맹아가 나타나고 있다.

농촌지역의 새로운 가능성

이러한 상황에서도 지역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살리고자, 정부와 전문가, 지역민, 비정부기구(NGO) 등은 다양한 노력을 통해 변화의 바람과 가능성을 도모해왔다. 그러한 노력의 선두주자는 정부였으며, 지역 만들기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시도하였다. 대략적인 흐름을 보면 정주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낙후된 지역의 물리적 환경개선을 촉진해오다, 현재에는 하드웨어 사업을 넘어서 소프트웨어 사업을 병행한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의 정책적 지원 사업을 근간으로 다양한 형태의 지역 만들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도적인 지역과 마을에서는 발전 가능성의 맹아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도시민의 농촌지역에서의 체재 및 정주 수요가 증가하면서 미래 사회에 대응한 새로운 변모를 요구받고 있다. 농촌지역에서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도시민의 정주 수요를 살펴보면, 도시거주자의 56.3%가 지역에 이주할 잠재적 의향을 갖고 있고[1], 농촌지역으로의 이주자는 1990~2004년 동안 2만2천703세대이며 해마다 30%씩 증가하는 추세이다[2].

또한 농촌지역에서 체험 활동 등을 희망하는 도시민 또한 확연히 증가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도시지역의 부정적 요소들을 해결해줄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기도 하다.

1_ 2005년 조사 때에 비해 약 0.2%가 상승되었다. (송미령 등. 2006a, 송미령 등. 2007a)

2_ 농림부.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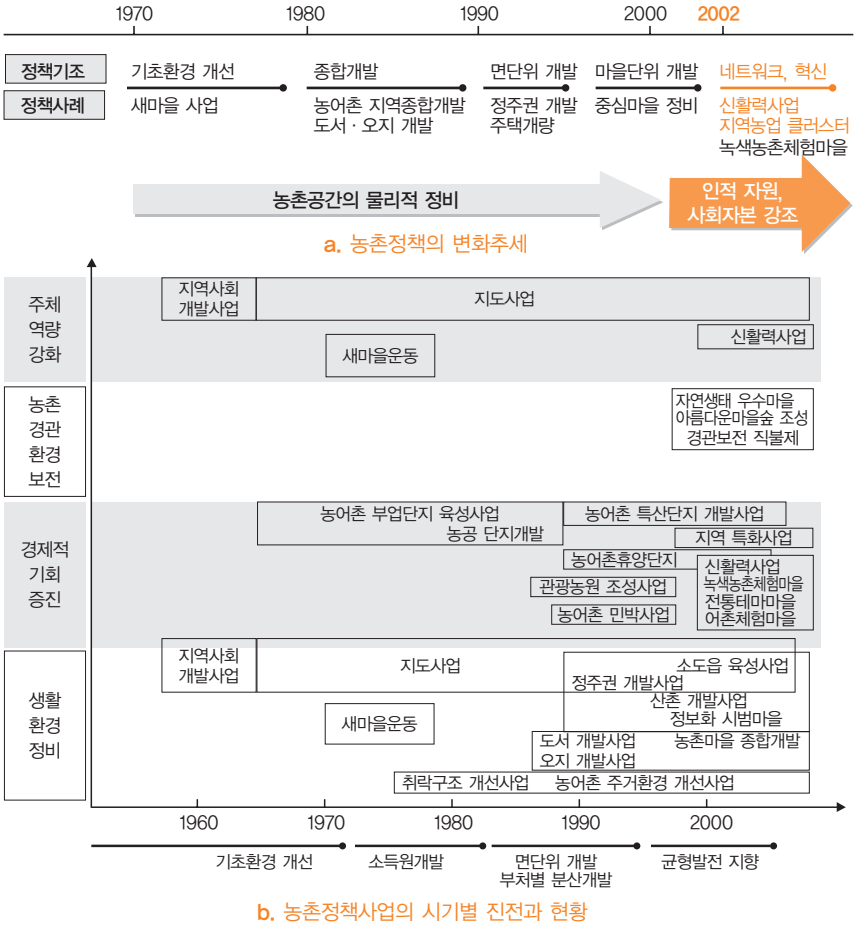
농촌정책의 전개과정

지역 만들기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중앙정부가 추진해온 정책방향부터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는 급격한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강력한 중앙집권 방식의 하향적 정책 추진 시스템을 고수해왔다. 특히, 지역정책 중 농촌지역분야의 경우, 농촌사회의 형성 및 변화구조 자체는 중앙에서 추진해온 정책과 그 맥락을 같이해왔다.

한국의 지역 만들기 정책은 '지역범위' 와 '발전정도' 를 기준으로, 일반 도시지역에 비해 농산어촌 낙후지역의 시 · 군 · 구와 마을단위에 정책적 지원이 집중분포되어 있다[3]. 이것은 도시와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던 것이다.

농촌정책이 추구하는 지역 만들기의 모습은 〈그림1〉과 같다.

| **그림 1** | 연대별, 주제별 농촌정책의 변화 과정(송미령 등, 2007b)



3_ 지역범위는 마을단위의 소규모 지역, 시 · 군 · 구 등 기초자치단체, 시 · 도 등 광역자치단체, 시도의 경계를 초월하는 초광역지역/ 발전정도는 성장지역, 정체지역, 낙후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송영필, 2005).

연대별로 살펴보면 2000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는 농촌을 도시경제와 도시사회 시스템에 편입시켜, 도시 및 산업적 관점에서 일괄적인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을 통해 농촌사회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절대 빈곤과 낙후라는 시대적 상황과 도시와의 격차 시정을 위해서 그리고 한정된 재원 활용효과의 극대화 등을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측면이 크다.

여하튼 이러한 정책들은 농산촌 지역사회의 물리적 생활환경을 일부 개선했을지는 몰라도 지역마다 갖고 있던 '농촌다움' 이라는 특색을 약화시키거나 공동체사회의 자율적 역량을 감소시키는 등의 약점을 갖고 있었다. 이에 대한 반성 및 변화된 수요를 반영하여, 2000년 이후에는 정부의 정책도 일률적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에서 벗어나 지역적 개성을 살려 마을과 지역, 주민과 지자체 중심에서 농촌의 문제를 풀어 해결하고자 노력하기 시작했다.

시기별로 추진했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보자면, '1960, 70년대는 삶터로서 농촌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생활환경 정비 → 1980년대는 일터로서 농촌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경제적 기회 증진 → 2000년 전후부터는 쉼터로서 농촌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농촌경관 및 환경보전과 공동체의 터로서 농촌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주체역량 강화' 에 주력하였다(송미령 등, 2007b). 이러한 정책적 흐름 위에 농촌의 지역 만들기가 중첩되어 전개된 것이다.

1990년대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등을 계기로 농산촌에 대한 정부의 투자규모가 급격히 증대하면서 지역정책들이 양적으로 팽창하였고 이와 맞물려 지역활성화 작업이 추진되었다.

정부가 주도하는 가운데, 공간적으로 1990년대 초반에는 면단위에서 2000년대 초반은 마을단위로, 그리고 2004년부터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필두로 한 권역단위의 지역활성화 사업이 추진되었다. 지역 활성화를 주도하는 주체는 초기에는 정책추진의 주체인 정부가 앞장서서 하향식으로 추진하였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의식 있는 마을 리더, 지역 리더의 등장으로 이들과 컨설팅기관, 전문가 등이 축을 이뤄 지역 활성화의 계기를 만들어주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지자체 스스로가 자체적인 지역 활성화 정책을 만들어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강원도의 '새농어촌건설운동[4]' 및 진안군의 '으뜸마을가꾸기사업' , 전남의 '행복마을조성사업' 등이 있다.

지역 만들기의 동기유발은 초기에는 지역 내 합의과정을 거치기보다는 정부 및 행정기관에 의해 진행되었고, 이를 통해 일시적, 가시적인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후 지역 리더, 마을 리더의 의식향상으로 이들이 직접 정부정책을 마을 및 지역에 수용하거나 전문가, 컨설팅 기관의 조언으로 정책을 수용하고 활성화시키는 형태로 전환된다. 최근에는 지역민 스스로의 삶의 질에 대한 의식이 향상되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지역 만들기가 추진되고 있다.

4_ 새농어촌건설운동은 1990년에 시작된 강원도 자체 정책사업이다. 농산어촌 마을 주민들의 발전 의지와 노력을 '정신', '환경', '소득' 분야로 나눠 평가한다. 우수마을을 선정하여 5억 원의 사업비를 지급, 마을에 필요한 사업들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앞에서 농촌의 지역 만들기를 둘러싼 다양한 움직임과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가능성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선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 이를 넘어 농촌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역 만들기가 안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전히 정부의 정책적 지원사업에 의존한, 정부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획일화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주민주도 · 주민자율에 의한 발전을 주창하지만 지역의 일부 소수자들과 중앙정부, 행정의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지역만들기가 제한적인 범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또한 지역 전체를 하나의 입체적 공간으로 보고 총체적으로 디자인하기 보다는 요소중심의 단편 · 분산적 계획 아래 추진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잘 살고 있는 마을 · 지역'의 모델들을 모방하고 따라가기에 급급하다. 개성 있는 '공간' 이 아닌 똑같은 모습의 '내용' 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지역이 갖고 있는 잠재적 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외부의 자원만을 도입하고 이용하기 때문이다. 지역자원을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 우리의 농촌사회는 좀 더 다양성을 가진 풍요로운 공간이 될 것이며 지역 만들기를 통한 지역 활성화에도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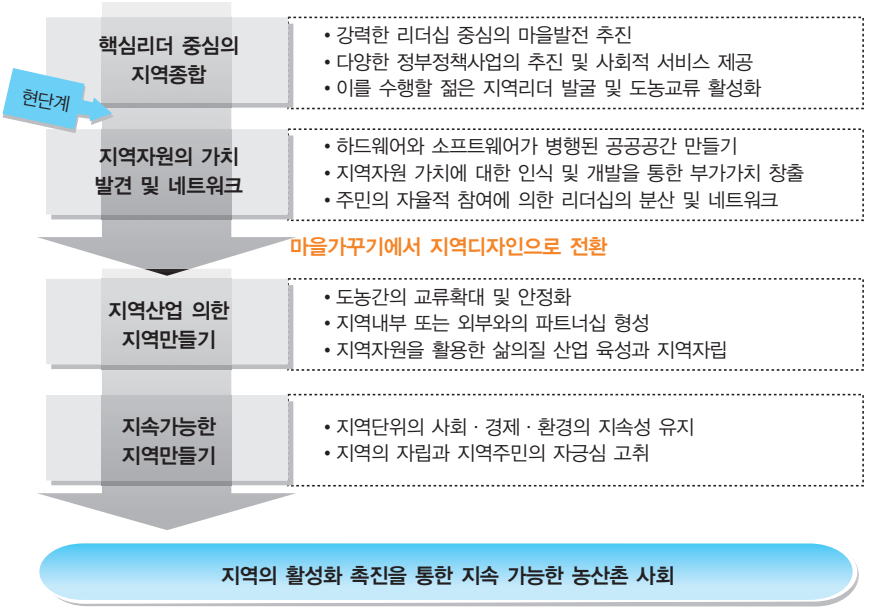
커뮤니티비즈니스 도입의 필요성

지속가능한 지역 만들기의 추진과정을 실제적으로 살펴보면, 진행과정 속에 일정한 패턴이 있고, 단계별로 몇 가지 필수조건이 있다. 선진국이나 국내의 경험을 고려해 볼 때, 마을 만들기 또는 지역 만들기에는 일정한 발전단계가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즉, 제1단계는 강력한 마을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 사업을 받아 활력을 불어넣고자 노력하는 단계이다. 제2단계는 주민참여가 확대되고 교류가 활발해지

면서 함께하는 리더십과 네트워크(network)형으로 마을 만들기가 추진되는 단계이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의 지원 사업에 대한 의존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는 단계이다. 제3단계는 하나의 마을단위를 뛰어넘어 권역 또는 지역단위로 육성된 지역인재가 주체가 되어 지역자원을 순환적으로 활용하여 자립의 기반을 형성하는 단계이다. 제4단계는 지역주민들이 자율과 자립에 의해 지역을 지속가능하게 경영하는 단계이다.

| **그림 2** | 지역 만들기의 단계와 발전방향



지역만들기가 3단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비전을 바탕으로 한 지역디자인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것을 지역주민들과 공감대를 이루는 과정을 거쳐 지역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자원을 지속가능하게 활용하여 지역산업으로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우선 지역의 역사, 문화, 자연, 공동체, 인물 등에 관한 기초자산조사가 지역단위로 이루어져야 한다. 커뮤니티가 활성화 되지 못한 우리나라에서는 중간법인 형태의 지원조직을 통해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고, 커뮤니티비즈니스 시범사업을 통해 확산하는 전략적 접근에 대한 모색도 필요하다. 이를 위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완주군과 희망제작소 커뮤니티비즈니스연구소가 함께 주최한 '2008커뮤니티비즈니스 한 · 일 포럼' 에서 발표했던 발제문 중 일부이다.

커뮤니티비즈니스와 **중간지원조직**

김달수
희망제작소 뿌리센터장

"커뮤니티비즈니스는 새로운 발명품이 아니다."

요즘 일본에서는 커뮤니티비즈니스가 마을만들기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지역마다 실험모델이 만들어지고 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도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한 이 어색한 지역 활성화 사업이 사실 새로운 이론이나 모델은 아니다. 지역의 자산과 자원을 가지고 사업모델을 만드는 커뮤니티비즈니스는, 그동안 90년대 말부터 마치 계몽운동처럼 각 지역으로 번지기 시작한 각종 마을만들기 운동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여러 형태의 지역 활성화 사업에 녹아 있다.

또한 성공적인 모델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지역의 자립적 경제모델' 이라 할 수 있다. 마을만들기를 한 단계 발전시켜 경제적으로도 자립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지역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 커뮤니티비즈니스의 목표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하고, 1995년 자치단체장까지 민선으로 선출하면서 지방화시대를 맞았다. 이때부터 주민운동 차원의 마을만들기가 싹트기 시작했고, 90

년대 말 일본의 마을만들기(마찌츠쿠리) 사례와 방법론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마을만들기는 지역 재생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물론 지금도 중앙정부(행안부, 국토해양부, 농수산식품부 등)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각종 지역재생(혹은 복원) 사업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고 모두가 성공적인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아직도 공장과 시설을 유치하는 등 투자 유치에만 목메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지역에서 지역특화사업을 발굴하고 마을만들기 등 지역공동체의 복원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찾아가고 있다.

커뮤니티비즈니스란?

마을만들기를 한 단계 발전시켜 경제적으로도 자립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지역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 커뮤니티비즈니스의 목표이다.

커뮤니티비즈니스는 말 그대로 지역, 즉 마을에 기반을 둔 사업(기업)방식을 말한다. 개략적이고 도식적으로 정의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이 안고 있는 과제(문제)들을 비즈니스의 방법으로 해결해 가고,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모든 사업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② 지역에 잠재하는 물적, 인적, 사회적 자산과 자원을 발굴해 사업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커뮤니티로의 환원'과 '커뮤니티에의 참가'가 핵심 키워드이며, 마을기업, 지산지소(地産地消)운동, 지역의 공공자산 개발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③ 그리고 커뮤니티비즈니스는 결국 '커뮤니티의 요구(내용)를 비즈니스(방법론)로 해결' 하는 공익적 과정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필수 개념이 결합되어야 한다.

- 지역성(일정 지역을 대상으로 활동, 지역이 안은 과제로부터 시작)
- 주민성(지역주민 등이 운영상의 주도권 확보)
- 사업성(독자적 수입확보)
- 자립성(활동의 자립성)
- 지속성(시민이 참가하는 마치즈쿠리 - 커뮤니티비즈니스 편)
- 지역공헌성(개인의 이익뿐 아니라 고용확대로 연계하는 등 지역 과제의 해결에 공헌)

커뮤니티비즈니스의 형태와 사업영역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주체는 당연히 지역 주민이다.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고, 지방자치단체나 행정기관, 비영리조직,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협력하고 지원하는 거버넌스의 형태를 띠고 있다. 결국 커뮤니티비즈니스는 지역의 물적 자원과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구현되는 사업이다.

지역의 개성과 특성에 맞는 사업을 개발해야하기 때문에 조직형태도 매우 다양하다. 개인사업, 임의단체, NPO 등 비영리법인, Co-op(조합), 유한회사, 주식회사, 소호 등 다양한 조직형태가 존재한다. 하지만, 커뮤니티비즈니스는 '이윤추구+지역문제의 공익적 해결' 이라는 명제 때문에 NPO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다. 일본의 경우 NPO법인, 주식(유한)회사가 전체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매우 다양한 조직형태와 계층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자체(개인) 사업부터 자치단체의 위탁사업까지 사업영역도 그만큼 넓을 수밖에 없다. 현재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사업영역은 그룹 홈, 배식서비스, 가정 내 보육 등 복지나 환경사업, 주민 문화사업, 상점가 활성화 및 특산물 판매 같은 지역자원 활동, 그린 투어리즘 같은 체험활동 및 도농교류 등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커뮤니티비즈니스는 일본에서도 학문적 개념정의나 실천적 프레임이 합의된 것은 아니다. 생협운동, 마을만들기 등의 지역재생운동을 사후에 개념화하는 과정이라고 해야 정확할 것이다. 따라서 현실 적용이나 사례분석(해석)에 있어서 모호성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

현재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는 커뮤니티비즈니스의 형태를 크게 분류해보면, 마을만들기형, 그린 투어리즘형, 기업형, 생활지원(사회복지)형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각 형태는 소비자의 생산참여로 신뢰의 비즈니스를 추구하며, 이러한 상호성과 대면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마을만들기의 진화와 커뮤니티비즈니스

현재 우리나라 마을만들기 운동은 생태, 문화, 예술, 건축, 농업, 복지, 관광, 교육 등 다

양한 분야에서 각양각색의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목적과 내용, 방법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일본의 사례 못지않게 우리나라도 이제 다양하고 폭넓은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비교적 제한된 공간에 역사적 경험과 전통적 관습을 공유하고 있는 일정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매우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사업에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새로운 리더들이 발굴되어 다양한 형태의 성공모델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일정한 지역적 공간을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더욱 살기 좋은 터전으로 디자인해나가는 과정은 그리 수월한 것만은 아니다. 새마을운동 과정에서 유형, 무형의 전통자산이 거의 모두 파괴되었고, 획일적인 지역개발과 이농현상으로 인해 농촌은 갈수록 살기 힘들어지고 고령화되었다. 이로 인해 마을만들기는 단지 공간적 정체성과 전통의 복원을 넘어, 주민들의 정서적 공동체성(관계성)까지 회복해야 하는 이중의 힘든 과정을 넘어서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했다.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사업 특성은 마을만들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소비자와 도시민에게 공감과 신뢰를 구축하는데, 이는 지역의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구현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마을만들기는 공간적 복원과 정서적 공동체성의 회복을 넘어 지역의 자산과 자원을 가지고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이것은 단순히 방어적 차원의 마을재생이 아니라, 보다 창조적 활동을 통한 콘텐츠의 개발, 그리고 이것을 커뮤니티비즈니스로 발전시켜 지역의 자립적 순환경제구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지역사회, 생활의 문제를 사업적인 기법을 통해 해결' 하는 지역만들기로 발전해야 한다.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성공조건은 '중간지원조직의 활성화'

일본은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커뮤니티비즈니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한 내용은, 재정지원(사업자금 지원), 창업지원(창업교육, 경영 및 마케팅 컨설팅), 교육훈련(재교육 프로그램, 지역리더 및 인재육성), 정보지원(NPO 및 커뮤니티비즈

기존의 마을만들기		커뮤니티비즈니스
• 환경정비, 체험시설 건립, 마을경관 조성, 마을 상징물 만들기 • 주민교육, 지역간 네트워크 구축 • 아파트공동체만들기, 안전한 통학로, 놀이터 가꾸기, 골목 가꾸기, 축제 만들기 등 마을 테마공간의 복원 및 개선사업 • 지역의 전통 자원과 자산 발굴 • 지역의 공동체성과 문화적(정서적) 동질성을 회복해 삶의 가치 공유	➡	• 마을만들기의 성과를 콘텐츠로 발전시켜 적극적인 사업화(기업화) •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창출 • 지역의 자립적 경제구조를 위한 기반 마련 • 정주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실현

니스 정보 포털, 가이드북 및 사례집 제작 배포 등), 제도 및 행정 지원(조례, 네트워크 구축, 우수사례 시상 등)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대부분 지역의 NPO 등 중간지원조직과의 긴밀한 협력(위탁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커뮤니티비즈니스에서 중간지원조직이란 정부(자치단체)와 주민(마을)을 연계하고 매개하는 조직형태를 말한다. 일본의 경우 NPO로 분류하는데, 3만여 개에 이르는 일본의 NPO법인 중에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하는 조직은 300여개(전체의 1%) 정도이다. 우리나라는 재단법인이나 지원센터, 싱크탱크, 컨설팅 기관, 대학 연구소(지역사업 지원조직) 등을 들 수 있다.

커뮤니티비즈니스는 지역의 자원과 자산을 활용해 '사업(기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와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지속적인 컨설팅과 유통 및 경영 지원, 주민 교육이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행정과 주민과 전문가들이 결합한 네트워크형 사업모델이기 때문에 조화로운 거버넌스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해야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행정과 주민, 전문가들을 매개하는 중간지원조직이 성공적인 커뮤니티비즈니스의 모델을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커뮤니티비즈니스가 활성화하고 지역 재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간지원조직의 설립에 대한 지원과 육성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지방정부는 협력사업의 확대를 통해 적극적으로 중간지원조직을 활용하고, 사회적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지역자원조사, 지역 재생과 지역공동체 사업의 발굴 및 실행, 주민교육과 컨설팅 등 광범위한 사업에 중간지원조직을 끌어들여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마을만들기와 커뮤니티비즈니스 등 지역사업에 있어서 중간지원조직과 함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현장사업을 지원하고 실행하는 마을사무장 같은 현장활동가(실무전문가)의 육성과 재교육이다. 역시 자치단체와 중간지원조직에서 우선적으로 실행해야 할 사업이다.

커뮤니티비즈니스가 활성화하고 지역 재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간지원조직의 설립에 대한 지원과 육성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뮤니티비즈니스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물론, 지역 차원의 네트워크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즉 지역 리더, 관련 지역기관,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커뮤니티비즈니스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은 중간지원조직이 맡는 것이다.

중간지원조직은 행정보다 주민친밀도가 훨씬 높다. 또한 행정이 갖는 태생적인 경직성과 여러 가지 제한요인 때문에 주민들은 일정한 불편함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는 거의 모든 지역(주민)사업을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실행하고 있다. 지역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의 활성화가 곧 지역재생의 활성화로 연결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각 기관마다 설립의 법적 근거와 지원 계층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 하지만 지원업무의 유형이나 프로그램의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 각 형태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지원센터**
  - 일자리 개발, 사회적 기업 및 자활공동체 창업 및 경영 지원, 리더 육성, 실행사업단 교육, 지역 자원개발, 사례발굴 등(예/ 각 지역의 자활센터 등)
- **재단법인, 싱크탱크**
  - 지역연구, 대안정책활동, 주민사업컨설팅, 지역리더 교육, 전문가 네트워크(유관기관 연대사업), 지역정보 서비스, 민관협력사업(자치단체 자문 및 연구, 실행사업 공동수행), 우수한 지역사례 발굴 및 인증, 시상 이벤트, 해외교류(예/ 실업극복국민재단, 지역재단, 희망제작소 등)
- **컨설팅기관**
  - 정책연구, 사업 및 경영컨설팅, 교육, 지역개발, 홍보 및 마케팅 기획(예/ (주)이장, (주)지역아카데미, (주)지역활성화센터, (주)지역농업네트워크, (주)이지팜(Ezfarm) 등)
- **시민단체**
  - 주민참여교육, 창업 프로그램, 마을만들기 실행사업(예/ 열린사회시민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지역여성운동센터,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마을만들기네트워크), 함께하는 시민행동, YMCA 등)
- **대학**
  - 컨설팅, 정책연구, 브랜드 마케팅(예/ 대학 연구팀 및 프로젝트팀(산학협력단) 등)

지속가능한 지역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실험들 _ 사례를 중심으로

김홍길
희망제작소 커뮤니티비즈니스 연구소 연구원

고도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위해 달리면서 우리는 잃어버린 것들이 많다. 나날이 늘어나는 아파트만큼이나 공동체가 사라져 가고 있고, 명절 때 내려가던 우리의 고향마을들도 고령화로 인해 이제 하나둘씩 없어질 위기다.

도시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제이고, 지역에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다. 하지만 계속 이렇게만 달려간다면, 우리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어렵다. 다시 공동체가 회복되어야 하고, 환경, 사회, 경제에 있어 자족할 수 있는 선순환적인 지역구조가 만들어져야한다. 그것이 커뮤니티비즈니스 연구소의 숙제다.

그렇다면 과연 그것은 가능하기나 한 것일까? 지금부터 소개하는 사례들은 바로 실제로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는 지역과 사람들의 이야기다.

청정자연을 자원으로 활용한 미야마정

일본 최대의 가야부끼 촌으로 유명한 미야마 정은 면적의 96%가 산림으로 둘러싸인 전형적인 산간지역이다. 워낙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타 지역과 왕래가 많지 않았던 이곳은 불행인지 다행인지 다른 곳에 비해 식량을 자급자족하면서 지역의 풍습을 유지해왔다.

일본의 3대 강이자 청정한 물로 알려진 유라가와 강이 흐르는 지역으로, 미야마 주민들에게는 청정한 자연이 그들의 보물이자 성장 동력이다. 이들은 스스로 지역 자원에 대한 소중함을 발견하게 되면서, 1980년대부터 지역의 아름다운 경관을 잘 보존하고 관리해 왔다.

가야부끼(일본 전통의 억새지붕)가 일본에서 가장 많고, 잘 보존된 마을을 만들어 누구나 가보고 싶은 관광지가 되었고, 주민 주식회사형 생수회사를 만들어 연 1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또한 지역진흥회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지역만들기가 진행되어 도시민들의 이주와 정착, 지역 농산물의 판매와 공급, 지역 경관의 보존과 관리를 커뮤니티비즈

가야부끼 지붕을 만들기 위해 마을주민들이 모아놓은 억새모음 - 억새지붕은 혼자서 엮을 수 없기 때문에 지역공동체가 살아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니스 형태로 진행해 오고 있다. 미야마가 도농교류, 지역관광, 순환형 지역경제를 실현하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었던 데는 한 공무원의 노력이 컸다.

지역공무원으로써 부정장까지 오른 고우마 가쯔미(小馬 勝美)씨는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과 경관이 향후 지역을 견인할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이를 보존하여 도농교류의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30년간 주민을 설득하고 지원해 왔다. 그는 일본 내무성에서 지역의 교류와 관광 발전에 헌신한 사람에게 내리는 '관광 카리스마' 라는 호칭을 받았으며, 현재는 은퇴해 하루 종일 물레방아를 돌려 도정한 '수차미' 라는 이름의 쌀을 팔며 조용한 은퇴 생활을 보내고 있다.

미야마 산촌문화관의 매장 - 미야마정에서 나오는 농산, 가공품들이 이곳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판매된다.

순수 주민출자로 만든 가게, 쯔네요시촌 영백화점

쯔네요시촌 영백화점은 교토 단고반도의 중앙인 오미야정에 위치한 작은 가게이다. 원래 농협지소가 경영상의 이유로 나가면서 이를 대체하고자 설립된 이 백화점은 마을 주민 33명이 350만 엔을 출자해 만들었다. 이곳은 지자체나 외부의 후원 없이 순수하게 주민자본에 의해서만 설립되었으며, 현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일상에 필요한 잡화 및 가공품의 판매, 독거노인을 위한 배달서비스 및 제사준비 서비스, 농업이

참고 | 미야마의 조례 제정을 통한 지역보존

미야마정은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 와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보존조례' 를 1994년부터 시행함으로써, 수질과 마을경관,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토지개발 및 건축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곳에는 풍속영업점, 파친코, 골프장 개발, 산업폐기물 처리 시설 등이 들어설 수 없으며, 대형 유통매장이나 공동공간의 경우도 지역주민 동의 없이는 함부로 건립할 수 없다.

쯔네요시촌 영백화점 - 밖에서 본 백화점의 모습, 마을의 조그만 구멍가게이지만, 지역에 꼭 필요한 살림꾼 역할을 한다.

마을주민들이 상품을 구매하고 있는 모습 - 이곳의 주민들은 고령자들이 많다.

나 지역에 필요한 정보를 발신하는 일들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다.

오미야정은 고령화가 심하고 독거노인이 많이 사는 것이 특징인데, 눈이 많이 와서 노인들이 집 앞을 나갈 수 없거나, 시력 때문에 우편물을 부치기 어려울 때 어김없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지역의 '홍반장' 역할을 톡톡히 하기도 한다. 이곳의 농산물 거래 방식도 독특한데, 노인들이 가져온 농산물을 지상과 지하식물로 나누어 판매기간을 정해서 진열해 두었다가 기간이 지나서 팔리지 않을 경우 다시 생산자가 회수해 가도록 하고 있다.

이중에는 농산물 판매로 월 50만 엔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 노인들이 다수 있어 지역의 농가소득 보전에도 기여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또한 이곳은 결산도 독특해서 연말에 회계정산을 한 뒤 배당금이 생기면 축제처럼 하루 날을 잡아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으로 정산을 마친다고 한다.

급식위탁 회사로 지역 경제를 살린 아모르도와

아모르도와는 도쿄 도와긴자 상점진흥조합의 조합원들이 만든 주민주식회사이다. 아모르도와는 원래 과거에 번성했던 지역의 밀집상가 지구로 현재는 인근 역에 백화점이 생기면서 활기를 잃었다. 이들은 상가의 쇠퇴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타개했는데, 바로 지역 단체와 학교 등에 급식서비스를 하는 위탁 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조합원들은 자금을 출자해 주식회사를 만들고, '우리 아이들의 급식을 우리가 책임지자'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급식에 필요한 조리법을 배우고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다. '주민이 급식할 능력이 있겠느냐?'는 구청직원의 무시로 여러번 위탁 사업에 고배를 마셨으나, 꾸준한 자기 노력과 설득으로 현재는 구청이 가장 협력적인 조력자가 되었다.

현재 아모르도와가 서비스하는 지역의 급식시설은 초·중·등 학교 27개, 보육원 5개, 복지시설 1개에 이른다. 이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고령자 대상 도시락 서비스, 지역대형점포 청소사업, 방과 후 학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역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여기서 발생하는 지역주민 고용만 210명에 이르고, 이들은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대부분 지하철 정류장 1개 거리 내에 모두 거주하고 있다.

아모르도와의 매출은 4억 엔, 순이익은 1000만 엔 정도이다. 주식 보유에 제한을 두고, 출자자는 경영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갖고 있어 경영진들은 독립성을 가지고 지역에 서비스 제공과 재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한다.

도시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제이고, 지역에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다. 하지만 계속 이렇게만 달려간다면, 우리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어렵다. 다시 공동체가 회복되어야 하고, 환경, 사회, 경제에 있어 자족할 수 있는 선순환적인 지역구조가 만들어져야한다.

아모르도와 전경 - 아모르도와는 오래된 상가 밀집 지구의 이름이다.

지역 농가와 공생하는 이오양조

이오양조는 115년이나 된 지역의 식초회사이다. 1964년 일본에 농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이오양조는 지역의 다랭이 논에서 무농약 쌀을 원료로 식초를 만들기 시작했고, 이후 지역 농가가 양질의 쌀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면서 공생하고 있다. 이오양조는 농업과 관련한 신기술이 발표될 때마다 함께 선진지를 견학하면서 신기술을 배워오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장비들을 구매해 농가에 지원해 주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점차 재배농가가 고령화되고, 후계자가 부족하게 됨에 따라 사원이 주축이 되어 농번기 일손을 돕기도 하며, 경영자는 NPO를 만들어 지역의 논을 보존하고 경관을 가꾸는 사회운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오양조가 제조한 식초들 - 다양한 상품개발을 통해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일부 식초의 경우 제품력과 상품성이 알려져 뉴욕에도 수출되고 있다고 한다.

이오양조는 115년의 전통만큼이나 4대째 식초를 만드는 전통제조 방식을 고수해오고 있으며, 최소 240일 이상의 식초 숙성기간을 둠으로써 타 회사 식초보다 높은 품질을 자랑한다. (반면 가격은 1.5배 비싸다) 현재 무화과, 붉은 감자, 검은콩, 레드와인, 석류, 배 식초, 매홍식초, 호박식초 등 다양한 제품개발을 통해 차별화를 꾀하고 있으며, 식초가 콜레스테롤 감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연구하고 있다.

회사 CEO에게 "더 확대하여 큰 기업을 만드실 생각이 없습니까?"라고 묻자 "그렇게 되면 지역의 농산물 수급도 어렵고, 양질의 식초를 만드는데도 좋지 않다." 면서, "적정규모를 유지해 스스로 만족하고 농가에도 기여하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이야기했다.

지역의 장애인들과 함께 성장하는 스완카페

스완카페는 야마토 운수의 오구라씨가 기업사회공헌으로 장애인 복지사업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일본 장애인의 평균 월급이 1만 엔 이하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이것은 경영자의 문제이다. 장애인들이 무슨 잘못이 있는가?"라며 본격적인 장애인 고용 비

즈니스를 시작했다.

스완 베이커리는 일본의 유명한 베이커리 회사인 '다카키 베이커리'의 제빵 기술을 CSR로 전수받아 베이커리 사업을 시작했으며, 현재 3개의 직영점과 23개의 체인점을 가진 전국적인 베이커리로 성장한 상태다. 현재 280명 정도의 장애인이 고용되어 일하고 있으며, 이들은 서빙에서부터 제과제빵, 바리스타까지 일반인들과 비교해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훌륭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해 내고 있다.

스완 매장 입구 - 스완은 3개의 직영점과 23개의 체인점을 갖고 있는 전국적인 베이커리다.

스완은 장애인 고용과 운영에서만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아니다. '스완 로하스'라는 슬로건 아래, 유기농 재료의 사용과 친환경 쇼핑백 사용 등 건강과 환경을 리드하는 기업이미지를 구축하여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매장 인테리어도 뛰어나 '긴자 데이트하기 좋은 장소 10선', 드라마 '노다메 칸타빌레'의 배경장소가 되기도 했다.

커뮤니티비즈니스는 독특한 지역의 환경과 어울려 다양한 사례들을 만들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이들은 각각이 처한 환경 속에서 자신들의 과제를 '희망'으로 변화시키고자 부단히 노력해 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철저한 경영마인드로 접근, 장애인들을 회사의 애물단지가 아닌 훌륭한 인재로 재탄생시켰으며, 이들이 사회적 일꾼으로 거듭나게 되자 본인에게는 자긍심이 자리 잡고, 가족에게는 환영받는 존재가 되는 효과를 보았다고 한다.

현재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까지 고용을 확대해서 재택근무를 통해 회계정리를 하거나, 온라인으로 들어오는 고객 상담을 하고 있다. 미운오리 새끼를 아름다운 백조로 만든다는 깊은 뜻으로 이름 붙여진 '스완'은 점포를 오픈하는 지역의 장애인들을 고용하여 사회적 일꾼으로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커뮤니티비즈니스는 독특한 지역의 환경과 어울려 다양한 사례들을 만들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이들은 각각이 처한 환경 속에서 자신들의 과제를 '희망'으로 변화시키고자 부단히 노력해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 그들만의 독특한 경영 방식으로 승화되었고, 일정 궤도에 오르면서 지속가능한 공동체와 지역을 만드는데 일조해 나가고 있다. *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비즈니스와 지역리더[1]

김미란
희망제작소 희망아카데미팀장, 연구위원

들어가며

지역사회에 커뮤니티는 있는가?

지금의 한국사회에 커뮤니티는 있는가? 라고 물어본다면 '있다' 라고 답을 할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급격한 산업화의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특성이 잘 살아있는 공동체문화는 거의 파괴되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에는 '마을이 아이를 키웠다.' 마을의 이웃과 자연, 역사와 함께 어우러져 마을과 동네에서 안전하게 살아왔다면 지금은 이웃과 교감을 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다. '이웃사촌' 이라는 말도 옛말이 되어 버렸고 커뮤니티는 지역사회나 공동체의 의미보다는 오히려 온라인상에서 같은 취미와 기호를 가진 사람들의 동호회라는 의미로 더 많이 이해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마을이다' [2]라며 공동체의 복원을 강조하고, 커뮤니티 솔루션이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한 대안임을 주장하는 글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지역사회를 활성화한다는 의미는?

지역사회는 매우 유기적인 공동체로서 생활세계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복잡한 관계이다. 특히 개인의 욕망이 분출되는 개발수요를 억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이해관계를 스스로 강제하고 규율할 수 있는 것은 지역사회에 대한 공통의 비전이다. 우리 지역을 어떻게 만들고 싶은지, 즉 어떤 지역이 살고 싶고, 살기 좋은 지역인지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이를 행정과 민간영역에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각 지역마다 지역만들기, 마을만들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지역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지역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한 요구가 있는가, 그리고 이 문제해결을 누가 하고자 하는 것인가에서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역 활성화는 단순히 개발과 경제중심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지역의 교육, 복지, 문화, 환경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지역사회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역사회계획이 지역의 미래와 비전만들기의 요체가 될 것이다.

지역사회 활성화와 커뮤니티비즈니스

지역사회 활성화 전략으로서의 커뮤니티비즈니스 발견

지방자치가 시행된 이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수립되고 정책적인 노력도 이루어졌으나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작지만 실속 있고,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커뮤니티비즈니스가 지역 활성화의 새로운 모형으로

1_ 이 원고는 2008년 한일 CB포럼원고, 2009년 경기도 인재개발원 강의원고를 재구성한 것이다.

2_ '다시, 마을이다 - 위험사회에서 살아남기' 2007년, 우리시대의 뛰어난 사회학자이며 문화인류학자이며 여성학자이기도 한 조한혜정 교수가 들고 나온 책 이름이다. 조한혜정 교수는 한국근대화의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그동안 그녀가 만나온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묶어 이 책을 펴낸 바 있다.

떠오르게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희망제작소는 2006년부터 커뮤니티비즈니스가 쇠퇴한 지역공동체를 재생시킴으로써 지역경제와 문화, 풍토를 순화시키고 지역역량의 유지 · 발전을 가능하게 하여 자율적인 지역사회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에 주목하여 일본의 커뮤니티비즈니스 현장을 방문하는 스터디투어를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연수에는 자치단체장은 물론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지역리더들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들은 방문한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세계를 살펴볼 수 있었다. 지역사회의 문제로부터 출발하여 그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함으로써 그 경제적 효과가 참여하는 개인은 물론 지역사회에 환원된다는 것은 새로운 인식의 계기가 되었다.

자신들이 기반하고 있는 지역성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000의 커뮤니티비즈니스', 혹은 '000발 커뮤니티비즈니스' 라고 사용하고 있는 것 또한 인상적이었다. 무엇보다도 베스트 사례가 되고 있는 커뮤니티비즈니스 현장에는 열정적인 리더가 있었고,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과 조직이 있었다.

중앙단위에서는 경제 산업성이 종합적인 커뮤니티비즈니스 진흥정책을 세우고 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면 광역단위인 현과 기초 단위인 시정초의 커뮤니티비즈니스 지원 사업은 보다 구체적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일본의 커뮤니티비즈니스 현장을 방문하면서 연수단은 끊임없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각종사업과 비교하게 되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고, 없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아직 우리에게 무리인 것은 무엇인가? 그동안 진행된 커뮤니티비즈니스 연수에서 지역리더들은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 커뮤니티비즈니스에 대한 막연한 느낌을 해소할 수 있었다.
-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사업(마을만들기사업)과 많은 부분 비슷한데 결정적으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주민참여를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한 점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 그동안 행정중심으로 해왔던 많은 일들에 주민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아울러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다.
- 일본의 커뮤니티비즈니스 사례를 직접 접목하기까지는 충분한 연구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에 주민리더, 지역리더육성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는 말이 생각났다. 자생력 있는 주민도 필요하지만 이와 동행할 수 있는 공무원의 역량이 어느 시기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나부터 변하는 것이 시작이라는 생각을 했다.

지역사회의 문제로부터 출발하여 그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함으로써 그 경제적 효과가 참여하는 개인은 물론 지역사회에 환원된다는 것은 새로운 인식의 계기가 되었다.

커뮤니티가 비즈니스를 한다?

지역리더는 왜 커뮤니티비즈니스를 주목하게 되는가? 그것은 커뮤니티비즈니스의 개념과 특징 때문이다.

커뮤니티비즈니스는 지금까지 행정과 대기업이 제공하는 상품, 서비스와는 달리 시민 스스로가 지역의 곤란한 문제, 또는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비즈니스적 방법으로 전개해 나가는 사업이다. 영리추구를 제 1의 가치로 여기는 기업에 비해 사업의 사회적 의의와 의미를 행동의 가치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규모, 적정이익을 추구하는 비즈니스이다. 따라서 커뮤니티 없는 비즈니스나 비즈니스 없는 커뮤니티는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이 될 수 없다.

커뮤니티비즈니스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사업리스크가 낮고 지역의 선순환경제구조가 마련되는 효과가 있으며 둘째, 취업형태가 다양하고 셋째, 사업의 주체와 형태 또한 다양하며 넷째, 장기적으로 볼 때 지방

정부의 재정 면에서도 세수입 증가와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커뮤니티비즈니스는 리스크가 높은 대신 수익도 큰 벤처비즈니스와는 달리 지역사람들의 욕구를 바탕으로 커뮤니티라는 '얼굴이 보이는' 관계 속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사업 리스크도 비교적 낮은 편이다.

그리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주로 지역 사람들에 의해 행해지는 사업이므로 지역에 투입된 자금은 지역 속에서 순환하여 지역 내에 머무르게 하는 가능성이 높아져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가 형성된다. 대자본으로 인한 산업은 지역 소비가 지역 내부에서 경제 순환을 일으키지 않고 지역 외에 흡수당하는 것에 비해, 커뮤니티비즈니스는 지역 내의 경제파급 효과가 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고용확대도 이루어지고 연쇄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다. 이렇게 지역의 '얼굴이 보이는' 관계 속에서 투자할 수 있고 사업 경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지역에 사장 되어 있는 재원을 지역 속에서 유효하게 돌릴 수 있다.

취업형태도 출퇴근시간을 자유롭게 변형하는 변형시간 근로제도나 재량 노동제 도입으로 노동 시간 수나 근무 장소, 고용 기간 등도 주체적으로 선택함으로써 여러 가지 취업 형태가 발생하고 보다 유연한 노동방식이 가능해지고 있다. 이렇게 커뮤니티비즈니스는 수평적인 조직 속에서 개인의 힘을 살린 새로운 Work Style을 실현하기 쉬운 사업이다.

또한 사업형태도 그 해결 과제나 사업목적에 따라 NPO/NGO, 임의단체, 생활협동조합, 주식회사 등 다양하다. 일본에서는 대체적으로 공익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사업은 NPO법인에서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처음부터 상당한 수익성이 예상되는 사업은 유한회사나 주식회사 등의 일반 영리 기업이 많다. 당초에는 사업 규모가 아주 작고 임의단체로서 시작한 사업이 사업내용 확대와 더불어 같이 NPO법인이나 회사조직으로 이행할 경우도 있다.

또 하나의 큰 특징은 고령자나 전업 주부 등 종래 노동시장에 참가하기가 어려웠던 사람들도 주역으로서 큰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이다. 새로운 일 방식이나 사회참가 방식으로 커뮤니티비즈니스를 파악하는 사람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정년을 맞이한 시니어층이 새로운 사회 참여 주체로 노력하거나 지역주부층이 먹을거리와 간병 등 생활에 관련되는 가까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사업내용에 맞추어 주체가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다.

특히 우리사회의 전문직 은퇴자는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중요한 자원이다. 커뮤니티비즈니스는 지역이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므로 지역에서 관계가 중요하다. 그러나 은퇴자들은 지역과 관계가 많지 않아서 이런 사람들이 지역 활동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지, 지역사회 데뷔 강좌 및 이벤트 같은 기회 만들기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전문직 은퇴자는 지금까지의 고령자와는 가치관이나 요구, 행동양식이 전혀 다르다. 이 세대들이 은퇴한 이후에 서비스를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경력을 살리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앞으로도 도시가 존속하고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외에도 커뮤니티비즈니스는 조기에 세수입 증가를 도모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시각에서 이익이 도모되는 것이고 시의 세수입 증가에도 연결되는 것이다. 시민이 지역의 여러 과제에 대해 노력함으로써 시가 직접 사업을 안 해도 되니까 시의 예산절약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커뮤니티비즈니스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낯설지만 그렇다고 우리에게 없었던 것도 아니다. 1사 1촌 운동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도 · 농 교류사업은 이미 커뮤니티비즈니스의 형태로 다양한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 그것도 마을의 이름으로. 이것은 커뮤니티비즈니스이고 저것은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는 구분보다는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있는 각종 지역 활성화사업의 점, 선, 면을 이어보고 커뮤니티비즈니스로 나아가기 위한 단계적 훈련이 필요하다.

리더 1인의 리더십은 오래 지속되기 힘들다. 이 리더십을 어떻게 고양시키고,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외부에서 수혈했지만 마을에 정착하고 있고, 또 정착할 가능성이 많은 마을사무장 및 마을 간사는 집단적인 리더십 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

이런 맥락에서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농산어촌지역개발 시범사업들은 커뮤니티비즈니스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할 여지들이 많다.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마을종합개발계획, 산촌종합개발사업, 정보화마을사업 등은 사업의 명칭, 사업계획 기간, 규모 등은 조금씩 다르지만 소득향상과 지역사회활성화에 궁극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범사업들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바뀔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간 협력체계구축을 위한 제도정비가 제시되고 있지만 정부의 모든 사업들은 중앙단위에서 협의 및 조정이 결코 쉽지 않다. 사업의 주도성을 빼앗기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앙단위에서 조정되지 않고 지방으로 전달되는 체계상의 혼란 때문에 전국의 유명한 마을은 중앙정부의 각종 시범사업의 전시장이 되고 있는 듯하다.

이렇게 중앙단위에서 개별부처로 진행되는 농산어촌종합개발 시범사업들은 시기를 달리하거나 중복되면서 한 지역에서 만난다. 지역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이를 통합, 조정,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같은 사업이라도 이것을 받아들이는 지역의 수준과 역량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수준과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

우리시대 최고의 공동체 마을과 지역리더

그렇다고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없는 것은 아니다. 홍성 문당리를 비롯하여 경기 이천 부래미 마을, 충북 단양 한드미 마을, 강원도 화천 토고미 마을 등 여러 마을이 있고, 이러한 마을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헌신적인 지도자의 열정 및 소명의식이 지역사회 활성화에 큰 바탕이 되고 있다.

그러나 뛰어난 리더 1인의 리더십은 오래 지속되기 힘들다. 이 리더십을 어떻게 고양시키고,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외부에서 수혈했지만 마을에 정착하고 있고, 또 정착할 가능성이 많은 마을사무장 및 마을 간사는 집단적인 리더십 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 이들을 통해 마을의 운영과 홍보 등이 비약적으로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뛰어난 지도자가 있는 조직과 공동체일수록 집단 리더십 발휘가 쉽지 않지만 그럴수록 준비된 리더십 및 차세대 리더십 발굴, 양성이 중요하다.

지역사회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제안

마을만들기 리더에서 커뮤니티비즈니스 리더로

우리나라의 커뮤니티비즈니스는 마을만들기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단계이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지원으로 지역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마을리더의 자생력 또한 많이 증가되었다. 그러나 민 · 관 협력과 민간

주도성의 원칙을 적극 견지해야 한다. 지나친 행정주도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동기를 약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마을만들기 리더를 넘어 커뮤니티비즈니스 리더가 될 준비를 해야 한다. 커뮤니티비즈니스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내부의 역량과 외부의 도움을 균형 있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지역에 따라 알맞은 커뮤니티비즈니스의 개념을 합의해야 한다. 마을단위의 커뮤니티비즈니스는 기본적으로 로컬형 비즈니스 모델이다. 그러나 점차 테마형의 비즈니스 모델이 결합됨으로써 보다 풍부해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지역의 수준과 역량을 고려한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함으로써 지역의 미래비전을 다시 수립해나가는 것이다. 둘째, 지역의 각종 자원을 DB로 구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 커뮤니티비즈니스는 지역의 자원으로부터 출발한다. 자연자원, 문화자원, 역사자원, 시설자원, 인적자원 등을 세세하게 조사하여 마을의 자산조사를 근거로 한 사업진행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의 자원 중 가장 경쟁력 있는 부분에 집중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은 기획 - 운영 - 평가의 단계에서 계속 보완, 수정할 수 있다. 이 과정에는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넷째, 중앙이나 지방정부의 정책방향에 상관없이 지역사회의 이름으로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커뮤니티비즈니스를 위한 별도의 조직신설도 고려해야 한다. 공공선과 공익을 추구하는 시민사회의 중간지원조직과 촉진자의 역량은 지역의 총체적 디자인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의 문제를 인식하고 지역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여 발전시켜갈 수 있는 역량 있는 지역의 리더와 주민들 재교육이 중요하다. 단순히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공급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 있는 의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지역리더의 역할과 지역의 학습력 강화

커뮤니티비즈니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인재양성 시스템과 이를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한 상시적인 학습구조가 필요하다. 또한 이 학습구조 안에서 끊임없이 배우고 실천하는 지역의 리더가 중요하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역리더는 지방자치단체장,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지역의 opinion leader그룹 등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지역리더의 리더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확고한 의지와 추진력을 중심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인재양성 시스템이나 조직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효과적인 자원 활용사례를 중심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지역리더의 구체적 모습과 역할은 지역발전의 목표 혹은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지역의 비전 제시자, 지역계획자, 지역내외부의 네트워커, 조직 관리자, 의사 소통자, 지역자원발굴자로서의 역할로 드러나거나 요구받고 있다(박진도, 2006)

결론- 지역의 교육력을 키우자

지금 지역 내 커뮤니티에 필요한 것은 다양해지는 이해관계와 조정의 어려움이다. 지역사회 안에서는 자신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지역에 공헌할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문제는 이들이 만나고 협력하는 과정을 도와주고 조정해주는 촉진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족하고 따로 하면서 힘들어하는 형상이다.

누가 할 것인가? 결국은 사람의 문제이다. 지역사회의 리더는 주민의 특성과 지역사회의 자원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한다. 그리고 요구와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네트워커로서의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하고 전문가를 식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지역이 급격하게 과밀화, 과소화 되면서 지역의 공동체성이 붕괴되었으며 지역의 교육력도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지역의 교육력을 회복할 것인가? 결론은 그 지역사회 안에 조직화된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직화된 힘은 외부에서 이식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안에서 자생하는 것이며, 이러한 자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지역리더들의 역량의 문제이고, 지역리더의 역량은 지속가능한 학습구조에 기반하고 있음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결국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교육력의 실체이다.

또한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과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은 학습이며 지역주민의 학습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은 학습의 지역화와 지역의 학습화를 촉진해야 하는 것이다. 모든 지역주민의 학습으로 지역이 성장하고 변화할 때 지역혁신은 일어나는 것이며 이를 위한 지역리더와 커뮤니티 리더십이 요청된다.*

〈참고자료〉

1. 구자인(2007). 농촌형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실험과 향후 방향 – 전북진안군 사례를 중심으로.
2. 구자인(2008). 으뜸마을과 마을간사 소개자료
3. 박진도(2006). 지역혁신과 지역리더의 역할
4. (사)생명의숲국민운동(2007). 농산촌 활성화 사례조사 및 성공요인 분석연구
5. 김미란(2008). 성공적인 커뮤니티비즈니스를 위한 리더의 역할과 육성모델
6. 호소우치 노부타카(2007).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커뮤니티비즈니스
7. 호소우치 노부타카(2008). 우리 모두 주인공인 커뮤니티비즈니스
8. 희망제작소 희망아카데미(2007). 커뮤니티비즈니스 연수자료집

리포트

일본에서 만난 아시아 공공리더 7인7색 이야기

SIX sense : 시민이 춤추는 건강한 민주주의

'절망' 이라 말하지 말라, 우리는 아프리카의 '희망' !

일본 시민사회의 꽃! NPO지원센터

일본에서 만난 아시아 공공리더 7인7색 이야기

김 해 창
희망제작소 부소장

2008년 9월 초순 일본 도쿄 롯본기에 있는 국제문화회관(International House of Japan)에서 'ALFP 2008' 참가자들이 모였다. 이번 프로그램의 펠로우는 모두 7명. 한국 중국 일본 인도 네팔 필리핀 태국에서 각각 한 명씩이다. 우리들은 2개월 이상 국제문화회관에 함께 머물면서 영어로 강의를 듣고 자기 주제를 발표하는 등 지적 교류를 했다. 지난 1996년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에는 그간 아시아 15개국에서 모두 68명의 인사가 초청됐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가장 친해진 펠로우로 나는 일본 국적의 이수임(李洙任) 씨를 꼽고 싶다. 오사카에 있는 류코쿠대학 경영학부 교수인 그녀는 재일한국인 3세였지만 2001년 일본에 귀화한 일본인이다. 그를 통해 '내셔널리티(Nationality)'와 '아이덴티티(Identity)'에 대해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일본 속의 이방인을 자처한 재일동포 3세 '수임'

이 교수는 여고시절까지 '다케오 레이코' 라는 일본이름을 썼다. 그는 졸업식 때 당당히 자신이 재일한국인으로 '이수임' 이라는 사실을 커밍아웃했다. 70년대 초 떠난 미국 유학길에서 지금 남편을 만났다. 당시 호메이니를 지지했던 이란 운동가 출신인 남편은 이란혁명 이후에는 미국에 남아 항공사의 엔지니어로 근무했다. 외동딸은 미국에서 태어났기에 국적이 미국이고, 지금 하버드대 포스트닥터로 있다. 이 교수의 세 식구는 국적이 일본, 이란, 미국으로 제각각이다.

그런 그가 '이수임' 이란 이름으로 일본 국적을 취득하게 된 것은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처럼 '한국계 일본인' 으로 살아가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획일성을 강요하는 일본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싶었다.

그는 미국 템플대에서 교육학 박사를 받았는데 국적문제에 줄곧 관심을 가져왔다. 스탠포드대 객원 교수로 있으면서도 인종 및 민족에 관해 비교연구를 했고, 하버드대 라이샤워 일본연구소 객원교수도 역임했다. 큰누님뻘 되는 이 교수와 함께 얘길 나누면서 과연 한국인이란 게 뭔지, 특히 최근 우리나라에 늘어나는 다문화가정을 떠올리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아시안 잉글리시' 를 전공한 그는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영어가 중요하기에, 오히려 '콩글리시(Konglish)' 와 같은 비정통 영어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우리는 주로 영어로 얘기했지만 하다 보면 서로 일본어를 하고 있었다. 그는 지난해 12월 초순 서울대 초청으로 일본인 동료 교수 몇 사람과 함께 서울을 찾았다. 인사동에서 옷도 고르고 액세서리 쇼핑을 할 땐 영판 한국 아줌마였다. 그는 우리 펠로우들에게 일본, 특히 오사카에 올 일 있으면 자기 집에 와서 자고 가라고 할 정도로 열린 마음과 뜨거운 한국인 피를 가진 일본인이다.

이 교수는 여고시절까지 '다케오 레이코' 라는 일본이름을 썼다. 그는 졸업식 때 당당히 자신이 재일한국인으로 '이수임' 이라는 사실을 커밍아웃했다. 70년대 초 떠난 미국 유학길에서 지금 남편을 만났다.

눈빛이 맑은 중국 연극연출가 구이안

중국 펠로우 구이안(谷亦安) 씨는 상하이희극학원 연극부문 교수이자 연출가이다. 프로필을 보면 그는 중국에서 보기 드문 아방가르드 연출가로 실험적이며 혁신적인 연극을 추구해왔고 특히 동서 문화교류 촉진을 위해 동 학원 내 '상하이국제 퍼포밍 아츠 연구센터(Shanghai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Research Centre)' 를 설립해 국제적인 연극지도자를 초빙해 공동 작업을 해오고 있다. 1989년에는 장시안(張弦) 작 '지붕 위의 부엉이(Owls in the House)' 를 상하이에서 초연한 뒤 난징에서 열린 중국 최초의 전국실험연극 페스티벌에서 상연했다. 1992년 '대교(Big Bridge)' 의 감독으로 문화상을, 2004년에는 최우수감독으로 '중국연극 금사자상' 을 수상했을 정도로 실력파이다. 그의 연극방법론은 이문

화, 다문화, 그리고 상호이해와 수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이안씨는 우선 눈빛이 아이처럼 맑았다. 그리고 얘기할 때마다 주로 한자를 써서 뜻풀이를 하면서 풀어갔다. 연출가답게 액션이 따랐는데 눈동자나 손놀림이 크고 연기를 하는 듯 표정이 생생했다. 그리고 태극권이나 음양의 조화, 우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다. 그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장이모 감독이 중국의 국가주의를 너무 강조한데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집어넣으려고 했다는 것이었다.

그는 남의 말을 경청하고, 마음을 읽어낼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구이안과 이수임 교수 그리고 나 이렇게 셋은 죽이 잘 맞았다. 식당도 한 · 중 · 일을 골고루 다녔다. 같은 한자문화권으로 유교의 영향을 받고 있어 그런지 서로 '필' 이 잘 통했다.

필리핀 인권 변호사 '치토'

필리핀 펠로우는 호세 루이스 마틴 가스컨(Jose Luis Martin C. Gascon) 씨이다. 그는 자신을 '치토(Chito)' 라고 불러달라고 했다. 필리핀의 'LIBERTAS(자유를 위한 변호사동맹)' 회장인데 인권 변호사로, 우리나라로 치면 박원순 변호사 같은 분이었다. 그의 프로필은 화려하다. 변호사이자 정치 활동가 그리고 사회개혁자로 1986년 필리핀 헌법 초안이 만들어질 때 헌법제정회의의 최연소 멤버로 참여하기도 했다. 그는 지방자치에 젊은이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법률이나 모든 학대에서부터 아이들을 지키는 아동보호에 관한 법률을 기초하는데도 적극 참여했고, 필리핀 교육부의 법률담당 차관 및 필리핀 민족민주전선과 평화회의를 열 때 정부 측 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고 한다. 지금은 정치와 선거개혁, 분쟁해결과 인권, 시민교육, 투명성과 설명책임에 관한 '애드보커시(advocacy)' 활동을 하고 있다.

치토 변호사는 장난끼 있어 보이는 귀여운 얼굴에 사람 좋은 그런 인상을 갖고 있었는데 함께 있으면서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았다. 그는 정부에 참여했다가 다시 시민영역에 돌아가서도 주체성을 잃지 않는 리더의 면모를 갖고 있었다. 사람을 참 편하게 하고, 어떤 경우에는 거의 주최측 사회자 같은 마음을 가져 토론회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그런 그를 우리들은 'Dear Leader(경애하는 지도자)' 라고 불렀다. 그러면 그는 웃으며 오른손을 좌우로 살살 흔든다.

저널리스트이며 채식주의자, 샤르마와 CK

인도 펠로우인 조티마야 샤르마(Jyotirmaya Sharma)씨는 하이드라바드대학 정치학 교수이다. 그는 아난다 쿠마라스와미, 타고르, 간디 사상을 연구하는 정치철학자이다.

그는 카라크리티 아트 갤러리, 스리에니디국제학교 등의 창립자 중 한 사람으로, 영양실조, 문맹자, 수질보전에 노력하는 '난디기금(Naandi Foundation)' 의 전략고문도 겸하고 있었다. 또한 그는 '타임스 오프 인디아' 지와 '더 힌두' 지의 시니어 편집담당자로 근무한 경험도 있어 지금도 여러 신문에 칼럼을 많이 쓴다고 했다. 그는 풍채도 좋아 마치 성악가 루치아노 파바로티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는 독신이고 독실한 힌두교 신자로 채식주의자였다. 나중에 우리 펠로우들에게 자신이 지은 'HINDUTVA' :Exploring the Idea of Hindu Nationalism' (PENGUIN BOOKS,2003)이란 제목의 책을 한 권씩 나눠줬는데 일본에서도 그의 원서가 팔리고 있었다.

네팔 펠로우인 찬드라 키쇼 랄(Chandra Kishor Lal) 씨는 '네팔 타임스' 지와 월간지인 '히말 사우스아시아(Himal Southasia)' 의 칼럼니스트이다. 네팔에선 꽤 알려진 칼럼니스트이자 방송인이었다. 찬드라 씨는 자기 이름이 부르기 어려우니 그냥 이니셜을 따 'CK' 라고 불러달라고 했다. 20년 정도 글을 써왔는데 CK는 첫 인사말에서 "곰곰이 생각해봐도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다." 며 "이번 연수를 통해 나를 더 잘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해 다들 웃었다. CK는 네팔에서 장관직 제의가 있었지만 칼럼니스트로 남겠다고 거절한 적이 있다고 인도의 샤르마 교수가 귀띔을 할 정도로 원칙주의자였다.

샤르마와 CK는 둘 다 채식주의자인데다 틈틈이 예배시간을 갖기도 해 함께 식사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렇지만 펠로우들과 함께 아자부주반거리에 있는 채식주의자 식당에 함께 가서 식사를 자주 했다. 인도의 샤르마 교수는 술 담배도 하는 채식주의자인 점이 좀 특이해 내가 '스모킹 앤 드링킹 베지테리언' 이라고 한두 번 놀리기도 했다.

치토 변호사는 장난끼 있어 보이는 귀여운 얼굴에 사람 좋은 그런 인상을 갖고 있었는데 함께 있으면서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았다. 그는 정부에 참여했다가 다시 시민영역에 돌아가서도 주체성을 잃지 않는 리더의 면모를 갖고 있었다.

귀국한 뒤 샤르마 교수가 지난해 11월 말 가슴 아픈 이메일을 보냈다. 그가 사랑하던 친구 여교수가 인도 뭄바이의 폭탄테러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다. 나는 그에게 위로의 이메일을 보냈다.

다양성 속의 일치를 생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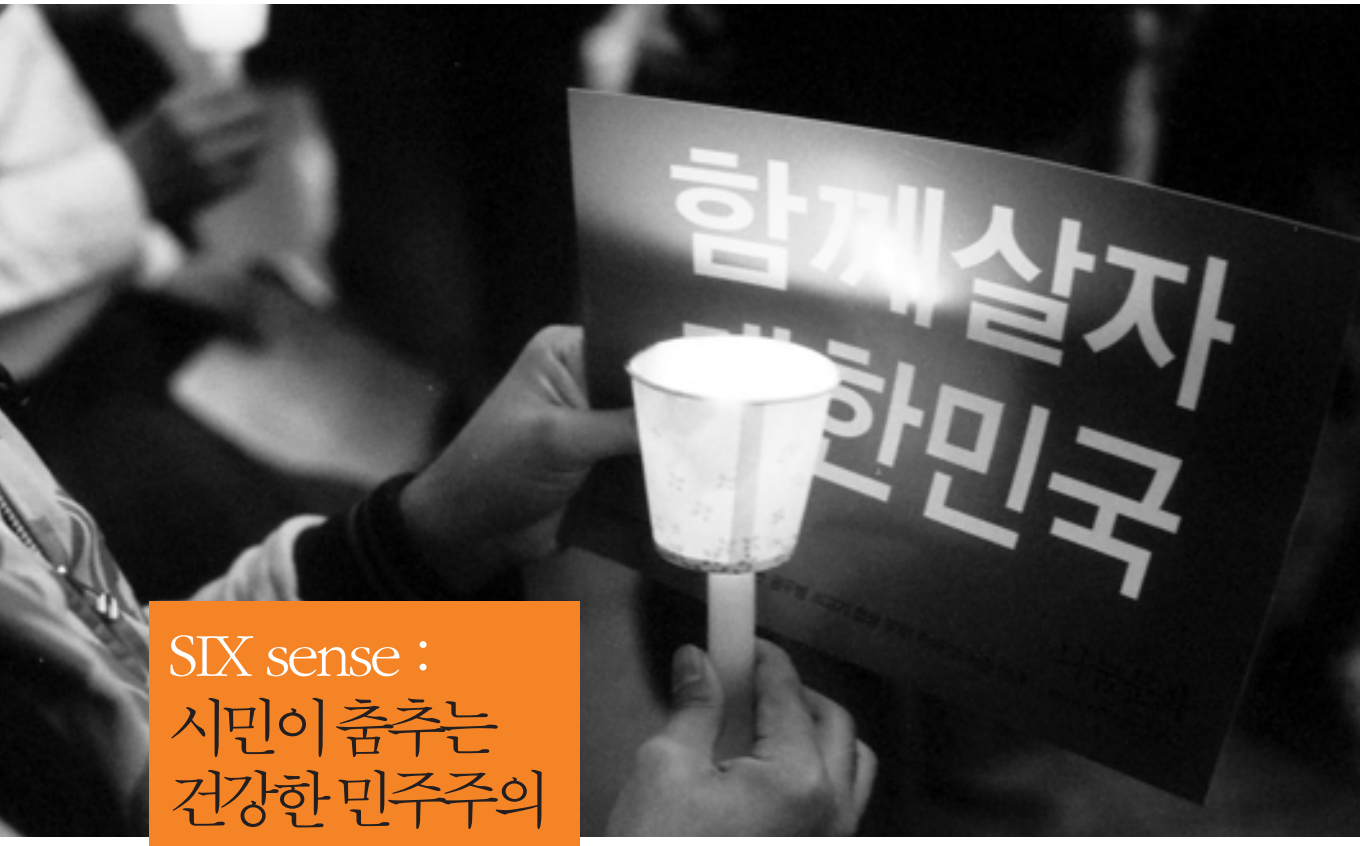
태국 펠로우인 아티야 아차쿠니스트(Atiya Achakulwisut) 씨는 여성으로 태국의 유력 영자지인 '방콕 포스트' 의 오피니언 페이지 편집자이다. 그냥 '아티야' 라고 불러달라고 했다. 그는 첫 발표에서 태국의 최신 정국 흐름에 대해 얘기를 했다. 그는 태국도 신문 산업이 사양화되고 있다며 앞으로 언론인으로서 새로운 민주주의에 대한 모델을 얻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티야는 추라롱콘대학 문학부를 나온 뒤 미국 오리건대학에서 환경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특히 아시아지역의 공동과제로 사회의 고령화, 사회적 배경이나 계층이 다른 타자가 안고 있는 문제에 무관심하고 오로지 개인의 관심에 매몰되고 있는 젊은이들의 풍조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했다. 아티야는 알고보니 중국계였다. 구이안 교수가 아티야가 중국계 남편과 결혼해 살고 있다고 귀띔해줬다.

우리 펠로우들은 이 기간 중에 미나마타병으로 유명한 미나마타시, 원폭평화공원이 있는 히로시마시, 오사카시의 조선인학교, 지구온난화방지 교토회의가 열렸던 교토시 등을 두루 둘러보았다. 또한 약 2주간의 자유주제 연구시간이 있었는데 나는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일본의 정부, 지자체, 기업, NPO의 대응' 을 주제로 두루 취재를 했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 저탄소사회로 달리다' 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하기 위해 막바지 원고를 정리하고 있다. 치토는 주로 일본의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만났다. 아마 '치토 변호사가 만난 일본시민기행' 같은 책이 나올 것 같다. CK는 일본의 불교예술 및 도예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아티야도 일본의 사찰건축에 대해 흥미를 보였다. 구이안 교수는 일본의 전통희극에 대해 두루 알아보고자 동분서주했다.

이렇게 우리 펠로우들은 일곱 나라 일곱 빛깔의 지성인들로 두 달 동안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다양성 속의 일치' 를 주제로 아시아를 생각했다. 그리고 '사람이 곧 희망' 이란 사실을 절감했다. 이번 프로그램 참여를 계기로 내 스스로 '아시아 희망의 가교' 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해본다. *

김해창 희망제작소 부소장은 일본 국제교류기금(Japan Foundation)과 국제문화회관(International House of Japan)이 공동으로 아시아 7개국 7인의 공공리더를 초청하는 'ALFP(아시아 리더십 펠로우 프로그램) 2008' 의 한국인 대상자로 선발돼 2008년 9월부터 약 2개월간 '다양성 속의 일치' 를 주제로 일본에서 연구 교류활동을 펼쳤다.



SIX sense : 시민이 춤추는 건강한 민주주의

김 연 희
희망제작소 전략기획실 선임연구원

벌써 지난 여름이다. 전국이 촛불의 물결로 가득할 때 광장을 들썩이며 울려 퍼졌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노래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다. 그토록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외쳤던 노랫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이며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는 바로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이다.

헌법 1조를 왜 목 놓아 노래 불러야 하는가는 굳이 필자까지 주제넘게 챙기지 않아도 될 것이다. 다만 고고하게 법전에만 있던 헌법 1조가 거리로 나와 시민들의 입에서 신나는 노래로 불려지면서 헌법 1조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가질까 생각해보게 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요즘 들어 조금 혼란스럽지만,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그러나 누구도 자신 있게 민주주의가 충만하여 제대로 작동한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선거를 기본으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우리 손으로 선택한 정치인들이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문제 삼기 어려울지 모르겠다. 그러나 질적 문제로 가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한마디로 건강하지 못하다.

새해 벽두부터 국민들 모두 똑똑히 보듯, 정상적인 의회기능이 실종된 국회가 우선 그렇다. 많은 시민들이 분노할 뿐 여전히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냉소적이고, 이는 지난 18대 총선에서 역대 최저 투표율 46.0%로 이어졌다. 또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골고루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지는 현실은 우리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보란 듯이 드러내고 있다. 발전은커녕 민주주의의 퇴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인볼브는 사람들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과 방법을 만들어내고, 시민들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일을 한다.

지난 여름 더위보다 더 뜨거웠던 촛불의 물결에서 새로운 형태의 21세기형 참여민주주의의 희망을 보기는 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의미 있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문제제기의 틀이나 제도로 안착하지 못한 점은 여전한 아쉬움으로 남아있다. 이제 거리로 터져 나온 촛불의 참여를 넘는 대중의 참여, 시민의 참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민이 거버넌스(Governance)에 참여하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

풀뿌리로부터 시민들의 토론과 합의가 정치적, 행정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국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필요하다. 대중의 참여를 달가워하지 않는 현 정권에 대한 우려 속에 다시 챙겨보고 싶은 것은 지역사회와 생활밀착형 어젠다를 통한 구체적 '시민참여' 이다.

더 나은 결정과 삶의 질을 위해, Together We Can

영국은 Together We Can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그것도 정부가. 이 캠페인은 시민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한다. 여러분의 지역사회에서 실현시키고 싶은 일이 있는가?(Do you want help to get something done in your area?), 지

역사회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치고 싶은가?(Do you want to influence local decisions?), 지역주민을 어떤 일에 참여시키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는가?(Do you need to get your community involved in something but don't know where to start?)

이 캠페인은 정책결정과 실행과정에 더 많은 시민(주민)들을 참여시켜 더 나은 결정, 더 나은 삶의 질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을 보여준다. 홈페이지(http://togetherwecan.direct.gov.uk)에서는 상기한 세 가지 질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주민참여를 위한 핸드북(handbook)과 툴킷(toolkit)같은 다양한 자료와 정보, 자문 등을 제공하고,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자료도 공유하여 각 지역에서 주민참여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다.

투게더 위 캔

현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자료를 보면 더 나은 지역사회를 위한 DIY가이드(DIY Guide to improving your community),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재생 핸드북(Community- Led Estate Regeneration Handbook), 맨체스터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툴킷(Manchester Community Engagement Toolkit), 캠페인 툴킷(Campaign Toolkit) 등 시민들이 지역사회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다.

시민참여, 주민참여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대중의 참여방식, 목적, 그리고 효과 등과 관련해서는 아직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영국의 인볼브(Involve, http://www.involve.org.uk/)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2003년 설립된 민간단체이다. 특히, 인볼브는 사람들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과 방법을 만들어내고, 시민들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일을 한다. 이렇게 활성화된 시민참여가 성숙한 민주주의, 그리고 더 나은 사회로의 변화, 즉 사회혁신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인볼브는 수준 높은 시민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실용적 방법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어떤 방법들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연구와 정책 분석도 수행한다.

인볼브

시민참여 방법은 갈등해결과정, 마케팅, 홍보, 연구, 국제관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되고 있다. 또한 이렇게 개발된 방법들은 건강, 토지계획, 주택문제, 환경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된다. 실제로 특정 방법론이 효과를 발휘하는 상황과 분야가 따로 있다. 예를 들어 이해관계자 대화(Stakeholder Dialogue)와 같이 갈등해결에서 출발한 방법은 관계를 형성하고 공동선(common ground)을 찾는데 유용한 반면, 마케팅에서 출발한 포커스그룹(Focus Groups)은 존재하는 필요와 욕구(wants and needs)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방법이라는 것은 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인볼브(Involove)는 시민참여 방법들과 이 방법들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상황 등을 보여주는 케이스 등 시민참여에 대한 상세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일상의 민주주의

시민의 참여가 활발할수록 오늘날 민주주의의 위기와 한계는 극복되고 질적으로도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즉, 의사표현과 참여활동에 적극적인 시민들이 많아지면 공공서비스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해결되고 복잡한 우리 사회의 현상들에 다원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권력과 자원배치에 있어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면서 더 나은 사회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개인들의 역량, 자신감, 비전이 개발되면서 삶의 질은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유럽에서는 원자력에 대한 사회적 저항을 비롯해서 광우병 파동, 유전자조작 식품에 대한 대중의 거부감과 반대 운동 등이 전개되고 있다. 그들은 여태까지 전문가나 과학적 객관성에 의지하던 정책결정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합의회의(Consensus Conference), 시민배심원제(Citizen Jury), 인터넷 대화(Internet Dialogue), 이해관계자 대화(Stakeholder Dialogue) 등과 같이 대중이 참여하는 의사결정과정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 결과 유럽과 미국에서는 과학기술정책을 비롯한 제반 공공정책의 결정과정에 일반 시민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시민참여모델들이 개발, 실험되고 확산되어왔다.

현대의 민주주의는 풀뿌리로부터 꽃 피는 일상의 민주주의(Everyday Democracy)가 되어야 한다. 이는 영국의 대표적 싱크탱크 데모스(Demos)가 내걸고 있는 구호이기도 하다. 이들은 '시민들의 진짜 욕구가 무엇이냐' 에서부터 시작했다.

바로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주제로부터 시작하여 연구와 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교육, 건강, 고용, 지역 현안 등 생활 정책들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이뤄냈다. 이것은 거대담론을 연구하는 기존의 싱크탱크와는 달리 영국 싱크탱크만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어내고 있다.

데모스는 최근 '일상의 민주주의 지수(Everyday Democracy Index:EDI)' 를 발표했다. 말하자면 유럽 국가들의 민주주의 건강검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일상의 영역에서 많은 시민들을 참여시키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많은 길을 열어놓은 나라일수록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를 유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시민들이 냉소적 팔짱을 풀고 일어나 춤추는 건강한 민주주의는 요원한 일일까? 우리의 건강상태를 정밀진단해보고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되었다.*

사회혁신네트워크(Social Innovation Exchange)의 약자인 SIX는 최근 떠오르는 분야인 사회혁신을 보다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관련 단체들에 의해 조직된 국제적 네트워크이다. 김연희 연구원은 2008년 여름, 영 파운데이션이 주최한 '사회혁신 섬머스쿨(Summer School on Social Innovation 2008)' 에 참석한 후, 희망제작소가 사회혁신 네트워크와 어떤 방식으로 지속가능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지 방법을 모색하면서 희망제작소 홈페이지에 관련 글을 기획 연재하고 있다.

사무실에서 환하게
웃어 보이는 AYV 직원들

'절망' 이라 말하지 말라, 우리는 아프리카의 '희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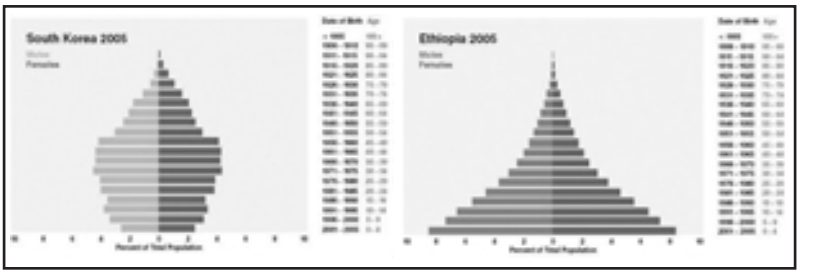
- 에티오피아 청년 (Youth)들의 메시지

김 혜 영
세계도시라이브러리 해외통신원

BBC 뉴스에 한국의 늘어나는 알츠하이머병에 관한 기사가 났었다. 저 출산율 (현재 1.2명)과 함께 급격한 고령화 (중간 연령 35세)는 이제 한국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며 정책 전반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과 다른 선진 국가들이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높이고, 어떻게 하면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이, 대부분의 저개발 국가에서는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높은 출산율과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청년 (Youth) 층에 대한 정책 마련으로 고심하고 있다.

각 나라의 정치, 경제 혹은 문화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정의가 다를 수 있지만 (대개 청년기는 아동기 (Childhood)에서 성인층 (Adulthood)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위치한 것으로 여기지만, 이는 각 나라 혹은 문화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유엔은 15~24세 사이를 '청년' 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Africa Youth Charter는 15~35세로, 이 기준에 의하면 아프리카 전 인구의 약 40~50%는 청년층에 속한다), 현재 전 세계 인구의 약 18 퍼센트 (10억이 넘는 인구)가 청년층이고, 그 중 85%가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다.



From Population Action International (PAI): 한국(왼쪽) 과 에디오피아(오른쪽) 인구모형(표1)

개발도상국의 이런 높은 청년인구 비율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들이 각종 사회에서 발생하는 폭력 범죄의 주범이라는 것이다. 또한 아프리카 등 최근 무력 분쟁 (Armed Conflict)을 경험한 나라의 '소년병 (Child Soldier)' 의 경우에서 보듯이 무기를 손에 쥐고 무법자로 돌변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은 이미 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로 전파되어 공포감마저 느끼게 한다. 하지만 한창 열심히 공부하고 땀 흘리며 일해야 할 청년인구가 왜 '범죄자' 로 내몰리게 되었는지를 생각해보지 않고 결과만 던져놓는 것은 그들에게 참으로 억울한 일이다.

낡은 표지판을 대문 앞에 세워 놓은 것이 전부였지만, 내부로 들어서니 컴퓨터에 집중하고 있는 세 명의 빛나는 눈을 가진 AYV 직원들이 나를 반갑게 맞이해주는데 강한 에너지가 느껴졌다.

원래 수명은 짧은데 가족계획은 제대로 실행되지 않으니 대부분 가난한 국가의 평균 나이가 젊을 수밖에 없고, 실패한 국가 정책과 붕괴된 국가 경제로 인해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갖지 못하고 더불어 실업자로 전락하게 되면 절망에 빠진 청년들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올바른 곳에 사용하지 못하고 그만 폭발하게 되는 것이다. 인류학자 폴 리처드 (Paul Richards)는 이를 두고 '청년 위기 (Crisis of youth)' 혹은 '잃어버린 세대 (lost generation)' 현상이라고 불렀다.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도농(都農)이동 현상이 일반 선진국보다 4~5배 빨리 진행되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엔 더욱 암울한 그림이 그려지곤 한다. 인구가 이미 4백만을 넘어선 대도시 아디스아바바에서도 거리를 걷다가 할 일 없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청년들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언제나 힘든 현실에서도 삶은 지속되듯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청년들은 오늘도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른 아침부터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만 쳐다보고 있는 구두닦이 청년들, 블루데빌 창밖으로 손님을 모으느라 목청 터져라 소리

지르고 있는 청년들, 퇴근 무렵 화롯불에 부채질해가며 정성 들여 옥수수를 굽고 있는 청년들, 그리고 여기 에티오피아의 또 다른 희망의 증거를 소개하고자 한다.

Afroflag Youth Vision (AYV)의 대표인 이욥(Eyob)과 오후 2시 아디스아바바 대학 앞 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20분 먼저 나가 기다리며 천천히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데 정확히 2시 정각, 한 건장한 청년이 내 앞을 지나 카페 안쪽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번호를 누르는데 직감적으로 그가 이욥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내 전화 벨이 울렸다.

그와 첫 만남은 그렇게 이루어졌다. 간단한 소개 후, 뜻밖에 그는 자신의 사무실로 가서 이야기하지 않겠냐는 제의를 해왔다. '젊은 단체'는 어떻게 꾸려나가고 있는지 궁금했던 차라 흔쾌히 그러자고 했고, 우리는 블루데빌을 타고 약 10분을 달려 아디스아바바 외곽에 위치한 AYV 사무실에 도착했다.

낡은 표지판을 대문 앞에 세워놓은 것이 전부였지만, 내부로 들어서니 컴퓨터에 집중하고 있는 세 명의 빛나는 눈을 가진 AYV 직원들이 나를 반갑게 맞이해주는데 강한 에너지가 느껴졌다.

이욥과 1시간 남짓 이야기를 나눈 시간은 에티오피아 혹은 더 나아가 아프리카 젊은이의 새로운 희망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

Afroflag Youth Vision(AYV) 대표 이욥(Eyob)

Q. 우선, AYV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달라.

A. 2001년 아디스아바바 대학의 학생 동아리로 만들어진 AYV는 주로 학교 내에서 활동하다가, 에티오피아의 다른 대학들 그리고 고등학교와 연대 활동을 하면서 점점 그 규모를 넓혀 2004년 정식 NGO로 등록하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젊은 시민 단체'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2,000명의 회원을 두고 있으며 수도 아디스아바바 외에도 암하라(Amhara), 오로미아(Oromia), 남부 연합(SNNPR)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Q. 어떤 계기로 이 단체가 만들어지게 되었나? 특히 자신의 목소리 내기를 꺼려하는 혹은 억압당하는 에티오피아 학생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운동'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A: 처음에 몇몇 학생들을 중심으로 '청년층 (특히 대학생)의 사회 참여와 그 도덕적 역할'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시작되었다. 특히 아프리카 젊은이들은 항상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활동으로부터 배제당해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이거나 아니면 아예 무관심으로 대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우리는 청년층에게 지속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들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사회 전반에 투입한다면 에티오피아, 혹은 더 나아가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런 비전(vision)하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지금의 AYV이다.

Q.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가?

A. AYV의 주요 활동 영역은 다음 다섯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청년층을 위한 인권과 시민교육 프로그램. 둘째, 청년 리더십 향상을 통한 그들의 국가 발전 전반에 대한 참여 고양. 셋째, 청년층, 특히 고등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성 차별 및 폭력 예방 교육과 성 평등(gender equality)에 대한 교육. 넷째, 청년층의 '봉사정신' 과 '연대의식' 향상 프로그램,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범 아프리카 정신 (Pan-African ideals)' 을 고양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Q. 지금까지 거의 8년을 활동해왔는데 그 중에 가장 커다란 성과를 꼽자면?

A.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2006년 다른 아프리카 청년 단체와 함께 처음으로 아프리카 연합 기구(AU)가 주도하는 아프리카 청년 헌장 (the African Youth Charter) 초안을 위한 미팅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아프리카 청년들의 목소리가 아직은 미미하지만 국가 혹은 범 아프리카 정책에 반영되도록 제도적 체제 (institutional mechanism)마련에 조금씩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Q.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A. 개인적으로 잠시 AYV를 떠나게 된다. 약 1년 반 동안 네덜란드에서 개발학(International Development) 석사과정을 밟게 된다. 그 이후에 돌아와서 아프리카에서 청년들의 역할에 대해 좀 더 폭넓은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그 전까지는 여기 있는 우리 AYV 식구들과 다른 멤버들이 활발한 활동을 해줄 것이라 기대한다.

AYV 홈페이지 http://www.afroflag.org

김혜영은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 있는 인도주의 NGO 단체 AHA(Africa Humanitarian Action)에서 6개월 동안 일하면서 이 글을 썼다. 현재는 '사회적 개발을 위한 유엔 리서치 연구소(UN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에서 활동하며 제네바에 머물고 있다.

일본 시민사회의 꽃! NPO지원센터

- 일본 NPO센터를 다녀와서

이 재 흥
희망제작소 해피시니어팀 연구원

이 글은 희망제작소 해피시니어팀이 현재 구상중인 NPO센터 '행복발전소' 의 밑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일본 NPO지원센터를 돌아보고 와서 쓴 방문기이다.

해피시니어-대한생명TFT(단장 홍선미 교수) 및 대학생 해피리포터로 구성된 방문단은 첫 방문지로 선택한 일본시민사회의 마당발 〈일본NPO센터〉를 포함해, 〈일본 내각부〉 〈가나가와현민활동서포트센터〉 〈오사카NPO센터〉 〈교토시민활동종합센터〉 〈커뮤니티서포트센터고베〉 〈NPO법인심포니〉 등 총 7개의 기관을 찾았다.

일본 시민사회는 1998년에는 NPO법(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제정을 이끌어냈고 2008년 현재 3만2천여 단체가 NPO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300여 개의 중간지원조직(NPO센터)이 NPO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색깔별로 잘 정돈된 자료파일로 빼곡한 통로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다. 회의실에는 후덕한 인상의 요시후미 타지리 국장이 방문단을 기다리고 있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눈 뒤, 한 사람씩 악수를 하며 명함을 교환하는데, 신발코가 마모돼 하얗게 반짝거리고 있는 그의 낡은 구두에 시선이 가 멎는다.

족히 20년은 더 돼 보이는 신발상태로 미루어 짐작컨대, 어지간히 차림새에 무신경한 사람이거나 '지독하게' 활동적인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이겠거니 싶었다.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2시간 동안이나 진행된 인터뷰가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을 무렵, 드디어 타지리 국장이 낡은 신발에 얽힌 사연을 들려주었다.

"3만여 개에 이르는 전국의 NPO(Non-profit organization; 비영리단체)들과 활발한 네트워킹을 펼치고 있는 비결이요? 비결이랄 것도 없어요. 무조건 '많이 걷는 것' 뿐입니다. 어제도 나가노현까지 출장을 다녀왔어요. 현지 NPO들에게 우리 센터에 회원 가입하시라고, 정보 올리시라고 부탁드리러요.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느라 연간 100일 정도는 집에 못 들어갑니다. 현재 우리가 형성하고 있는 네트워크는 그야말로 온전히 '발로 뛰어 만든 네트워크' 라고 할 수 있지요."

모이자, NPO라는 이름으로!

"한두 사람의 리더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활동가들이 자발적인 필요에 의해 만든 '네트워크형 조직' 이라는 것이 일본NPO센터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회원 단체들 간의 결속력이 강해 연대사업이나 협력사업을 큰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었지요.

그동안 일본에서는 환경이나 복지 등 분야별 네트워크는 강했지만, 'NPO' 를 공통분모로 하는 네트워크는 형성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느슨한 형태일지라도 다종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계속 유지하고 확대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앞에 놓인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지리 국장은 인터뷰 내내 NPO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는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했다. NPO에 대한 그의 애착이 참으로 대단함을 느낄 수 있었는데, 사실 이는 오랫동안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성장해 온 일본시민사회의 지난했던 행로를 여실히 드러내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일본정부는 민간단체들의 응집력을 분산시키고 감독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로, 활동분야별로 단체를 구분해 각각의 해당 주무관청이 설립허가와 감독 권한을 나누어 갖는 체제를 메이지유신 때부터 줄곧 고수해 왔다.

일본시민사회는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맞서 1994년부터 '시민활동을 뒷받침하는 제도를 만드는 모임(일명 '씨즈' - C's)' 을 발족시켜 민간단체들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새로운 NPO법 제정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씨즈' 는 전국단위의 포럼을 연이어 개최하는 한편, 회원단체들을 조직해 외연을 넓히는 등의 활동을 꾸준히 펼쳤는데, 활로를 뚫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만은 않았다고 한다.

그러던 중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지진(일명 고베대지진)' 이 발생했다. 역사상 최악의 피해가 열도를 덮쳤는데, 다행히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수많은 NPO들이 헌신적인 구호활동을 펼친 결과 예상보다 훨씬 빨리 복구가 완료되었다.

이는 NPO와 NPO법 제정운동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을 크게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다. '데모단체' 쯤으로만 알고 있던 NPO들이, 실제로는 정부나 기업보다 지역사회와 이웃을 살리는 데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1998년, 우호적 국민여론을 등에 업은 일본시민사회는 시민발의의 NPO법(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제정이라는 쾌거를 이루게 된다.

어지간히 차림새에 무신경한 사람이거나 '지독하게' 활동적인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이겠거니 싶었다.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2시간 동안이나 진행된 인터뷰가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을 무렵, 드디어 타지리 국장이 낡은 신발에 얽힌 사연을 들려주었다.

NPO를 지원하는 NPO

요시후미 타지리 국장을 비롯한 일본NPO센터의 활동가들은 '씨즈' 설립초기부터 법 제정운동에 참여해 모임의 주축멤버로 활동했다. 이들은 씨즈의 활동과 고민, 그리고 당시 형성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1996년 일본NPO센터를 설립해, 이제는 'NPO를 지원하는 NPO' 라는 새로운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

센터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은 NPO들의 정보를 수집, 등록하는 '정보발신사업' . 바로 타지리 국장의 신발코를 하얗게 마모시킨 '주범' 이다.

단체정보는 기입한 항목 수에 따라 '기초정보 - 부가정보 - 세부정보' 3단계로 분류되는데, 세부정보를 공개한 단체에게는 더 많은 홍보 기회가 제공된다. 기업이나 재단의 후원금이나 공모사업도 세부정보를 제공한 단체들에게 몰리기 때문에 이 또한 큰 인센티브가 된다고 타지리 국장은 전했다.

사실 NPO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은 일본내각부도 똑같이 펼치고 있는데, 아무

래도 정부주도이다 보니 NPO들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편이다. 반면 일본NPO센터는 NPO법 제정운동 때부터 여러 단체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터라, 단체들이 적극 협조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발적으로 '업데이트' 까지 해 주고 있어 정보의 질과 효용성이 매우 뛰어나다고 한다.

"사실 이제까지는 각 단체들이 '주체' 가 되어 정보를 올리는 방식에 대해서만 고민을 집중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어떤 식으로 정보를 공개해야 기부자의 욕구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조사를 해보니, 기부자가 받아보길 원하는 정보와 단체가 제공하려는 정보가 꽤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둘의 욕구를 최대한 조율해, 가능하면 많은 단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NPO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항상 일순위에 오르는 현안이 자금문제입니다.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하면 자금이 원활히 순환되고 지원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인지' 가 늘 고민이에요. 아직 공개하긴 조금 이르긴 하지만, 주식투자 등을 통해 돈을 번 사람들 중 NPO에 기부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이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조만간 마련할 생각입니다."

일본NPO센터는 NPO법 제정운동 때부터 여러 단체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터라, 단체들이 적극 협조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발적으로 '업데이트' 까지 해 주고 있어 정보의 질과 효용성이 매우 뛰어나다고 한다.

신발코 닳는 그날까지

타지리 국장의 고민과 아이디어를 정신없이 타이핑하는데, 자꾸만 '그리운 얼굴' 들이 떠올라 콧날이 시큰거렸다.

몇 날 며칠 대자보를 붙이고 홍보물을 나눠줘도 신입회원이 한 명도 들어오지 않아 한숨짓던 자원봉사단 사무장님, 동포재단의 지원금이 끊겨 러시아에서 밤잠을 설치던 한글학교 교장선생님, 거뭇한 곰팡이 꽃이 가득한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연신 사람 좋은 미소를 지어보이던 어느 지역 시민단체 대표님…. '그분들이 만일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지역과 언어, 분야, 이해, 경계를 넘어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NPO의 수가 우리나라에서도 2만3천 개가 넘었다고 한다.(한국민간단체총람, 2006) 수로만 본다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일본NPO센터를 비롯해 300개가 넘는 'NPO지원센터' 들이 촘촘히 네트워크를 형성해 교류하며 NPO의 설립과 운영을 돕고 있는 일본, 약 900여 개에 이르는 중간지원조직이 활동하고 있는 미국의 현실과 비교한다면 질적인 면에서는 아직 우리네 시민사회가 가야할 길이 아득히 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희망제작소, 이런 일을 합니다

희망제작소는 어떤 곳인가요? 무슨 일을 하고 있죠?
도대체 희망을 어떻게 만들까요. 희망을 만든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희망제작소를 아는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들도 이렇게 묻습니다.
질문에 답하기 위해 그동안 희망제작소가 한 일, 하려는 일들을 소개합니다.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꺼지지 않는 불빛,
그 속에서 희망제작소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
이런 일을 합니다

뿌리센터

"뿌리센터는, 자치단체 컨설팅, 마을만들기, 커뮤니티비즈니스, 농촌활성화사업 등 지역 컨설팅 업무와 지역(농업)활성화 사업을 담당하는 〈지역활력팀〉과 각종 세미나, 포럼, 주민참여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 지방자치제도 개혁 모델 연구, 풀뿌리민주주의 등 지역연구와 풀뿌리 지원에 관한 사업을 담당하는 〈지역연구팀〉이 있다."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 대한민국의 뿌리, 지역의 행복한 삶터를 위하여

지역은 사회의 뿌리이자 나라를 지탱하는 근본이다. 그래서 지역을 세상의 중심이라고 한다. 뿌리센터는 실사구시의 철학으로 지역을 연구하며, 다양하고 창의적인 지역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지역의 물적, 인적 자산조사를 통해 지역별로 차별화된 전략과 지속가능한 내생적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게 뿌리센터의 주요한 연구 활동이자 컨설팅 방법론이다.

특화된 풀뿌리 전문기관과 특화된 의제 개발

뿌리센터는 지역으로부터 변화의 역동성과 희망을 발견한다.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튼튼하게 성장하듯, 우리는 다양하고 튼실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지방자치를 더욱 울창하게 살찌운다고 믿는다. 신나는 주민참여, 따뜻한 이웃과 인간애 넘치는 지역공동체,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농촌희망찾기, 개성 있고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 참여민주주의가 꽃피는 창의적인 지역을 주민들에게 되돌려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희망지역 만들기' 라는 희망제작소만의 브랜드를 가지고, 지역을 살리기 위한 대안정책 연구와 각종 실행 사업을 지원하는 전문 연구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조례연구소(소장 전기성, 한양대 겸임교수), 농촌희망본부(소장 김완배, 서울대 교수), 자치재정연구소(소장 이재은, 경기대 대학원장), 커뮤니티비즈니스연

모색하는 월례포럼을 열고있다. 나아가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등을 도입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연구도 게을리 하지 않는다. 특히 주민들이 참여해 지방재정의 쓰임새를 감시하고, 한 발 더 나아가 세원발굴과 재정의 운영에 관한 아이디어 제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등을 연구하고 있다.

주민참여클리닉은 성공하는 마을만들기의 해법은 주민참여에 있다는 것을 널리 알려나가는 것이 주요 과제다. 다양한 주민참여방법론을 제시하고 훌륭한 리더를 발굴하며, 주민들의 참여와 창발성을 변화의 동력으로 끌어내기 위한 각종 사례연구를 기본으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e-민주주의와 주민참여' '도시지역의 마을만들기와 도시공동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관한 대안 모델' 등 주민참여에 관한 모든 주제를 다룬다.

차별화된 지역 컨설팅과 연구 방법론

뿌리센터는 '한국형 커뮤니티비즈니스의 개념화와 모델만들기' '자원 네트워크형 지역 연구' '도농교류 및 도시농업 프로그램 연구' '주민참여형 커뮤니티 프로그램 연구' 등을 핵심 사업으로 하고 있다.

또한 다면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결과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 전문가 네트워크를 훨씬 넓게 확대하고 희망제작소 해외네트워크와도 기획 단계부터 공동으로 작업하는 등 긴밀한 협력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다. 전문 연구기관은 특화된 의제에 대해 상시적인 자문체계를 갖추고 있다.

뿌리총서와 지역연구공모사업

뿌리센터는 매년 수십 권의 출판물을 발간하고 있다. 각종 포럼과 세미나에서 묶인 자료집과 결과보고서, 일본의 마을만들기에 관한 모든 것이 담겨있는 〈뿌리총서〉, 지역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아 대안모델을 직접 실천하는 지역 활동가들이 집필하는 지역연구공모사업 〈푸르게 푸르게 총서〉 등이 있다.*

"사회창안센터는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아서 조사하고 숙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공론화하고 현실화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전구를 처음 만들어낸 것은 발명이지만, 이 전구를 이용해서 길을 밝혀 안전한 밤길을 만드는 것은 '사회창안'이다. 작은 아이디어에서 힌트를 얻고 별 것도 아닌 생각에서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야말로 사회창안센터가 추구하는 새로운 방식의 사회변화전략이다."

2008 사회창안대회

– 생활 속 작은 아이디어로 세상을 빛내는 착한 시민들

세상에 꿈꾸지 않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꿈을 꾸고 누구나 다양한 상상을 한다.

그 상상은 때로는 삶에서 부딪친 '불만'이나 '불편'에서 시작되기도 하고, 때로는 '창의적 생각'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안방을 밝혀주는 전구를 길거리에 옮겨놓으면 더 이상 밤거리가 무섭지 않을 거라는 상상, 지하철에도 나처럼 키 작은 사람을 위한 낮은 손잡이가 있었으면 하는 상상, 1,000~2,000원 정도 적은 돈에도 현금영수증이 나왔으면 하는 상상, ATM기에서 돈을 인출할 때 먼저 수수료가 얼마인지 알려줬으면 하는 상상! 또 상상!

그 상상과 열정이 모이는 곳이 바로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이다. 유쾌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속시원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시민들의 열정으로 그 아이디어를 현실로 바꾸는 일이 지금 바로, 여기 사회창안센터에서 이뤄지고 있다.

2008년에는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가 판을 조금 크게 키워봤다. 온라인을 매개로 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나섰다. 아직 우리를 모르는 많은 시민들을 직접 만나고 싶었다. 그래서 '대회'라는 형식을 도입해 판을 벌였다. 그리고 우리가 깔아놓은 멍석위에서 시민들의 아이디어가 신나게 한판 뛰어놀았다. 이름하여 '2008 사회창안대회'!

처리규정 제정' '동네 은행을 작은 도서관으로 활용하기' '휴대폰 등 각종 디지털기기의 전원어댑터 통일' '중고차 구입 시 주행거리나 사고내역 무료 조회' '쓰레기봉투 매듭 접착형으로 전환' '시각장애인을 위한 버스도착 알림 서비스' '잔반 재사용 근절을 위한 방안, 섞어버리기 캠페인' 등 평소 그냥 지나쳤던 생활 속 불만 사항들이 줄을 이었다.

9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된 각 분과별 1차심사결과 최종 36개의 아이디어가 2차 심사에 올라갔다. 2차 심사에서는 1차 심사위원 전체대표 1인, 각 분과를 대표하는 1차 심사위원 12인, 그리고 행정안전부, 서울시에서 시민제안업무 팀장 2인등 총 15인의 심사위원이 1차 심사를 통과한 TOP 36선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다. 특히 2차 심사에서는 채점표에 의한 심사와 함께, 심사위원들의 자유토론에 의한 심사를 함께 도입하여 창의적인 제안들이 최종 결선에 오를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그 결과 최종결선에 오를 TOP 10 아이디어가 최종 선정되었다.

★ 핸드폰 및 각종 디지털 기기의 젠다 및 전원 어댑터 통일
(제안자 : 재완팍(박재완))

★ 대중교통 적립 마일리지 제안
(제안자 : 유학청년(신현오))

★ 싫든 좋든 급하든 말든 사람대신 자동응답 ARS 땜 속터짐
(제안자 : 조이(하태석))

★ 병원 진료결과나 예약을 문자나 인터넷으로
(제안자 : 올드거얼(이선자))

★ 유통기한과 함께 제조년월일을 병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 희망자루(김재학))

★ 치과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제안자 : mom11(전선희))

★ 관공서 홈페이지는 통합 아이디(one ID)를 사용합시다
(제안자 : 희망자루(김재학))

★ 사회적 기업 생산품 우선 구매
(제안자 : 메카트랜드)

★ 최저임금제 지키미 캠페인 스티커
(제안자 : 장금이(장선영))

★ 가족 사망신고 이후 후속절차, 동사무소에서 알려주세요
(제안자 : 강아지왈츠(김태은))

희망제작소,
이런 일을 합니다

해피시니어

"해피시니어는 삶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퇴직자들이 민간비영리단체에 참여해 보람찬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비영리단체(NPO)와 비정부기구(NGO)는 이들의 참여로 기구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사회공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퇴직자들이 민간비영리기관에 참여할 때, 단순히 재취업이나 자원봉사를 한다는 개념을 넘어서 전문적 역량을 사회와 공공영역의 가치창출을 위해서 활용하는 기반을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다."

사회공헌활동과 재취업을 동시에! 해피시니어

신세대 시니어들이 몰려온다

"풍부한 삶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퇴직자들이 그야말로 매년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일자리 대책은 거의 전무한 수준이죠. 이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개개인에게도 불행이지만,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대한민국 평균 퇴직 연령 56세.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 가운데 최저 수준이다. 의학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예전과 달리 50, 60대에도 젊은이 못지않은 체력과 열정으로 일할 수 있는 '신세대 시니어' 들이 늘어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네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는 듯하다.

특히 2010년은 한국전쟁 직후 태어나, 사회 각 분야에서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을 이끌어 온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 들이 본격적으로 퇴직하기 시작하는 첫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내놓은 '정부기관 노인일자리 대책' 만 보아도 '월 보수 20만 원 내외, 단순, 보조 업무' 가 대부분이어서, 이들 '신세대 시니어' 들이 사회에서 갈고 닦은 전문성과 풍부한 삶의 경험 같은 소중한 사회적 자산들이 고스란히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다.

비영리단체는 오늘도 일손 부족

"천안지역 비영리단체들이 오랫동안 함께 노력한 결과 2008년 '지역재단(지역 비영리단체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소통공간을 제공하는 소규모 재단)설립' 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어요. 하지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당장 올해 재단설립 실무를 추진해야 하는데, 어느 단체도 이 일을 전담할 인력을 보내 줄 여유가 없거든요." – 강윤정 사무국장 (천안 KYC)

반대로 많은 비영리단체들은 만성적인 인력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대부분의 비영리단체 활동가들이 회원관리, 조직운영, 사업추진, 홍보, 연구 등 1인 5역을 홀로 도맡고 있다.

국내 비영리단체의 수가 어느새 2만 3천개(한국민간단체총람, 2001)를 넘었고, 최근에는 온라인단체, 사회적 기업, 민간연구소처럼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새로운 형태의 비영리단체들도 속속 생겨나고 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괄목할 만한 양적, 질적 성장을 이루어 낸 비영리단체들이지만, 전문성을 갖춘 우수인재를 확보하기란 여전히 쉽지 않다.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해도 일반 기업 등에 비해 박한 급여와 근무환경 탓에 젊은 인재들이 입사를 주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공헌활동과 재취업을 동시에!

희망제작소는 2006년 11월 20일 대한생명과 협약을 맺고 공동TFT를 구성, 본격적으로 '해피시니어' 프로젝트(단장 - 홍선미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출범시켰다.

풍부한 삶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시니어들이 비영리단체에 재취업 형태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사회공헌모델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해피시니어는 〈직장인과 퇴직자의 사회공헌 활동에 관한 인식조사〉, 〈NPO기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미국, 일본, 프랑스 현지를 직접 방문해 〈해외퇴직자들의 사회공헌활동 현황〉과 〈조기퇴직자의 전직지

"희망아카데미는 우리시대 공공리더의 성장학교다. 공공리더란 지방자치단체장,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지역의 리더들을 말한다. 희망제작소가 우리 시대 공공리더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지방자치와 분권의 가속화로 지역의 미래는 참된 지역 일꾼을 필요로 하고, 그 일꾼에게는 신뢰받는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희망아카데미는 공부하고 준비하는 공공리더들이 미래를 내다보는 종합적인 안목, 현장을 기반으로 한 전문성,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감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곳이다."

빡센여행, 공공디자인 유럽연수로 문을 열다

부끄러운 해외연수가 아닌 '빡센여행'을 준비하다

우리가 7박 9일의 유럽연수(2008년 9월 22일~29일)를 기획하고 홍보를 시작하려던 5월 어느 날, TV에서 외유성 연수로 혼쭐이 나 도망가는 공직자들의 모습이 나왔다. 보는 사람도 민망할 정도로 무슨 목적으로 어디를 가는지 답하지 못하는 공직자들을 보며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다. 공직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에 대한 비판은 잊을만하면 나오는 뉴스의 단골 메뉴였다.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기획하는 담당자로서 마음이 불편했다. 그간 해외연수 일정이 빡세다는 이유로 붙여진 '빡센여행사'라는 별명만큼 나름대로 알찬 연수를 기획하고 있기는 했지만 말이다.

2008년 5월 5일 희망제작소의 영국 네트워크를 통해 김정후 선생님을 소개받고 이메일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해외연수에 대한 여론이 워낙 악화되어 있어 과연 예정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고민이었지만, 일단 프로그램을 짜고 홍보를 시작하기로 했다.

정책이 빠진 '벤치마킹', 지도교수가 필요하다

유럽은 거리도 그렇지만 문화적으로도 우리와는 먼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

느낀 바로는 사전 준비과정이 연수의 거의 절반이었다. 사전에 방문할 도시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고, 무엇을 보고 올 것인지 과제를 분명히 하는 과정이 연수의 결과를 좌우한다.

이런 생각에서 사전에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참가자 20명 중 15명이나 참석했다. 사전에 '자기소개와 참여 동기'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했고, 오리엔테이션 당일에는 작성한 것을 발표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방문하게 될 도시와 방문지에 대한 전체의 그림을 그리도록 했다.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솔직한 고백부터, 도시 재개발 사업이 많아 도시 전체가 변하게 될 운명에 처해 '도시 디자인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이야기까지 참가자들이 연수를 신청한 이유는 다양했다. 늘 숙제를 내지 않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시작할 때 '왜 연수를 가야하는지?' 고민한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12시간의 비행, 도시의 흥망성쇠를 보다

사전 준비를 거쳐 드디어 영국 런던으로 향했다. 12시간의 비행. 미리 나눠준 자료집도 살펴보고, 세부동선도 점검하고, 긴장과 설렘으로 생각보다 시간은 빨리 갔다. 다음날, 우리의 일정은 기조강의로 시작되었다. 런던이라는 도시의 역사 전체를 살펴보면서 도시가 어떤 흥망성쇠를 겪게 되는지를 볼 수 있었다. 런던의 도시 변화를 떠올리면서 걸으니 참가자들은 '왜 이곳에 이것이 들어서게 되었는지 이해하고, 도시의 일부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 속에서 도시를 볼 수 있게 되어 좋다'고 평가했으며, 풋풋한 대학생으로 돌아가 답사를 하는 것 같다고 좋아했다.

런던 시민들도 호텔로 착각할 정도인 런던시청, 화력발전소를 현대미술박물관으로 만든 '테이트모던', 새로운 금융 중심지로 떠오른 '카나리 워프' 등을 직접 방문했다. 우리끼리 왔다면 그저 감탄하고 사진을 찍는 정도에 그쳤을 것이다. 지도교수인 김정후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런던시가 낙후한 남부와 동부 지역을 개발하면서 얼마나 '도심재생'을 고민하고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엿볼 수 있었다.

영국에서 독일로 가는 비행기가 취소되면서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

"소기업발전소는 '희망소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07년 7월 창립했다. 희망소기업은 꿈을 가진 작은 기업들로, 지역과 함께 고민하고 성장하며, 대안적 가치를 생산하는 건강한 기업들을 가리킨다. 소기업발전소는 희망디자인센터, 희망컨설팅센터, 소기업 희망스쿨, 홍보캠페인, 소기업연구소, 소기업허브를 구축하고, '이로운 몰'이라는 온라인 쇼핑몰을 열어 희망소기업이 만든 제품을 판매하는 등 다양한 지원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그밖에 사회적 기업과 대안 기업에 대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소기업발전소가 지원하는 한 희망소기업 이야기로 소기업발전소의 활동을 소개하고자 한다."

경주에는 할머니 파티쉐가 있다

–노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서라벌 찰보리빵

"나 일 그만 두고, 집에서 손주 보면서 지내면 어떨까?"

"이 할매가 무슨 소리를 하노. 그 좋은 일을 와 관둘라카나. 그만 둘 생각 하지 마라."

이경옥(64) 할머니는 친구들 모임에 갈 때마다 목에 힘이 잔뜩 들어간다. 친구들은 다들 집에서 손주 볼 시간에 자신은 어엿한 직장에 다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할머니는 드라마 속 스타처럼 대리 만족할 수 있는 스타 할머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직장을 관두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니, 친구들 가슴이 철렁할 수밖에. 물론 빈말로 하는 소리다. 이 행복한 일자리를 어찌 관두겠는가.

할머니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무엇

이경옥 할머니가 일하는 직장은 찰보리빵을 구워 파는 작은 가게다. 경주역에서 50미터만 걸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그 가게가 있다. 할머니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찰보리빵을 구워내는 소박한 공간. 그곳에는 친구 할머니들을 설레게 하는 무언가 비밀이 있다.

서라벌 찰보리빵은 노인복지 민간단체인 경주 시니어클럽(관장 이진락)이 운영하고 있는 곳이다. 경주 시니어클럽에서 파견을 나온 간사 한 명을 제외하고 직

12,000

서라벌 찰보리빵
72

퇴근하기 싫은 신나는 일터

요새는 경기가 나빠져 할머니들 사기가 말이 아니라고 이상운 간사가 귀띔해준다.

"언젠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혼잣말로 어제 술을 먹어서 속이 쓰리다고 했나 봐요.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할머니가 부르시는 거예요. 해장국 끓여 놨으니, 어서 와서 속 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좀 감동먹었죠."

서라벌 찰보리빵의 청일점(?)인 이상운 간사에게 할머니 직원들은 어머니 같은 존재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할머니들에게 하소연을 하는 것이 이제는 자연스러울 정도다. 자신이 막내 아들뻘이니 그럴 만도 하다. 봄철에는 직접 나물을 캐서 국을 끓여주기도 한단다.

할머니들이 빵가게에서 버는 돈은 30~50만 원 남짓. 일주일에 4번, 10명의 할머니들이 돌아가면서 가게를 지키기에 큰 돈은 안 된다. 그러나 할머니들에겐 소중한 돈이다. 돈의 액수를 떠나 일할 수 있는 즐거움이 가장 크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땀 흘려 일한 돈이기에 그 가치는 1억 연봉 부럽지 않다.

"우리 할매들이 용돈 타다 쓰는 입장 아입니꺼? 지금도 아저씨(남편)한테 돈을 타다 쓰는데, 생활하다 보믄 모지라예. 제 번 것으로 손자 장난감도 사고, 며느리 선물도 사주지예. 나이 드니까 돈 들어가는 데가 더 많아.(웃음)"

할머니들에게 빵가게는 직장 그 이상이다. 빵을 구우며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나누고, 서로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공간이다. 일이 끝나면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아쉬운 직장이다. 실제로 얼마 전 건강 문제로 그만둔 할머니 한 분이 무척이나 아쉬움을 토로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빵을 굽는 할머니들의 모습이 무척이나 밝다. 이 나이에도 아직 일할 수 있다는 당당한 자신감이 묻어 나온다. 그래도 가끔씩 주문이 밀려 들어 바빠지면 힘들만도 한데, 누구 하나 힘든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가게가 잘 되는 게 그저 기쁘다는 게 그 이유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어예. 그런데 이상한 게 힘들어도 재미있다는 거라예. 신문에 우리 가게가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 많이 바빴어예. 하루 12시간을 꼬박 일해야 주문을 맞출 수 있었지예. 그래도 우리 가게가 잘된다고 생각하니께 너무 신나는 거라예."

희망제작소,
이런 일을 합니다

공공문화센터

"공공문화센터는 우리 사회의 창조적 에너지가 한 개인이나 특정 지역, 집단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믿음으로, 보통 사람들의 일상과 삶의 현장 속에서 생동하는 문화적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농촌 마을과 도시, 길 등 모든 공공의 장을 풍요롭게 가꿀 수 있는 문화적 대안을 찾고, 실천 방법을 연구하며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희망은 길 위에서 자란다

공적인 가치(Public value)는 모두의 소유이면서 동시에 누구의 소유도 아니다. 이로 인해 많은 경우 방치되거나 의도적으로 외면당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최근에는 공적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혹은 존재해야 하는 많은 공적인 가치나 인프라들(광장, 공원, 길 등)이 그 유용성을 더하고 활력 있게 살아날 때 도시의 표정이 변하고 도시민의 삶의 질 자체가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희망제작소 공공문화센터는 우리 사회의 공적 인프라가 보다 친숙한 것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대안을 찾아내는 일을 하고 있다. 2008년에는 간판문화를 개선하는 일에서부터 공공디자인 사업, 친환경 어린이 놀이터 리모델링 사업, 마을 살리기 사업 등을 다양하게 진행해왔다.

도시의 표정을 변화시키는 간판문화 개선사업

공공문화센터의 2008년 사업은 간판문화 개선사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공공문화센터는 도시 간판의 변화는 단지 일회적인 시범사업이나 규제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토양이 되는 간판문

울에만 한정되었던 사업의 범위가 2008년에는 전국 단위로 확대되었고, 수상자도 다양해졌다. 특히 첫 해에 비해 간판주들의 간판상에 대한 인식이 놀라울 정도로 개선되어 간판상 대상 수상가게는 자신들의 가게 앞에 수상사실을 대대적으로 알릴 정도였다.

이외에도 간판문화 개선사업은 주민참여에 의한 간판문화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주민들의 참여가 간판문화 개선에 얼마만큼 중요한지 또 그 사례와 방법론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 지를 각 사례별로 일일이 답사하여 제시함으로써 각 지자체가 이후에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할 때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주민참여방안에 관한 동영상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보다 쉽게 주민참여방안을 이끌 수 있도록 하였다.

친환경 어린이 놀이터 리모델링 사업과 주민참여

어린이 놀이터는 지역 커뮤니티의 대표적인 공공 공간이다. 토지공사의 친환경 어린이 놀이터 리모델링 사업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흉물로 변한 놀이기구와 청소년 탈선의 공간으로 변해버린 놀이터를 친환경 놀이터로 변모시키는 사업이다.

경남 양산군 북정동의 어린이 놀이터는 양산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조성되었는데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흉물로 변해 있었다. 이곳을 주민들과 함께 힘을 합쳐 어린이와 어르신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시키는 과제가 공공문화센터에 주어졌다.

공공문화센터 연구원들은 수차례에 걸쳐 현지답사를 하고 주민들을 만나면서 협의를 진행해 나갔다. 또 인근의 초등학교 어린이들과 여섯 차례에 걸친 디자인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아이들은 '비가 오면 집에 타고갈 수 있는 놀이기구' '무지갯빛이 나오는 야간조명' '분수 겸용 회전놀이기구' 등 참신한 아이디어들을 쏟아냈다. 이러한 의견들은 기본계획에 반영되었다. 놀이터 시설은 아이들의 화폭으로 변해 뭉게구름과 무지개, 개와 고양이 등으로 가득하다.

놀이터 개장식 날, 아이들은 미래의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를 타임캡슐에 넣어 양산의 고분군 모형을 본 뜬 잔디 언덕 밑에 묻어 두었다.

희망제작소,
이런 일을 합니다

기후 · 환경팀

"기후 · 환경팀은 우리 사회를 지속가능한 사회로 만들기 위한 실용적 연구를 지향하며, 특히 현 세대 가장 급박한 위기인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 찾기를 시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자치단체의 기후 변화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온실 가스 저감 도시설계기법 연구 활동 등을 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환경 대안을 현장에서 찾는다

우리 사회는 지속가능성, 저탄소 녹색성장 등의 문구가 많이 회자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연구나 성공사례는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 본질적으로 이러한 연구는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며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속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했던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희망제작소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지역 현장에서의 대안 찾기' 모델을 추구해왔고, 기후 · 환경팀 역시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모델에서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CO2 다이어트, 탄소중립도시 만들기

이제까지 진행한 몇 가지 사업 중에 대표적인 것은 '자치단체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과 '탄소중립도시(Carbon Neutral City) 또는 저탄소 도시(Low Carbon City)'를 만드는 것이다.

자치단체 기후변화 대응전략 수립 사업으로는 현재 안산시, 화성시와 함께 하는 사업을 들 수 있다. 안산시와는 기후보호도시를 만들기 위해, 그리고 화성시와는 CO2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배출량 조사부터 시작해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만

탄소중립도시는 어떻게 만드는가?

각종 경제활동(소비와 일부 생산)이 이루어지는 공간인 도시는 처음에 어떻게 설계하고 만드느냐에 따라 에너지와 자원 소비를 줄일 수 있다. 도시를 둘러보면, 에너지가 소비되는 공간은 '건축물' 과 '교통시설' 이다. 이것을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따라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다. 태양이나 바람에서 재생에너지를 많이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기후 · 환경팀이 제안하는 탄소중립도시는 다음과 같은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우선 건축물을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패시브하우스 개념으로 주택을 설계하면 외국 사례의 경우 기존 주택보다 에너지를 70~80%까지 줄일 수 있다.

교통시스템은 대중교통 중심으로 개선하고, 자전거 등의 이용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자가용 위주의 도로 체계와 교통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도시 구조 자체도 변화가 필요하다. 건축물과 교통에서 에너지를 줄여도, 도시에서 상업지구 면적이 너무 넓어지면 도시는 또 다시 에너지 소비를 부추기는 형태로 변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건축과 교통 등에서 에너지를 줄여도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에너지는 태양과 바람 같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생산해야 한다. 화석연료나 안전성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원자력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대형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해 전국으로 전력을 이송하면서 엄청나게 에너지를 손실하는 에너지공급시스템이 아니라 전체적인 에너지 생산과 공급의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비하는 공간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에너지 지역 자립' 모델을 추구해야 한다.

태양광 패널을 건물 지붕이나 벽면에 설치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열병합발전을 도입하고, 바람과 바이오매스에서 에너지를 얻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생산한 후에도 결국 모자라는 에너지는 중앙에서 공급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좋은 제도와 예산(기금 형태 등)을 필요로 한다. 기후변화에 성공적인 모델을 가지고 있는 도시나 국가를 보면, 정책

"희망모울은 희망제작소가 중시하는 의제들을 기반으로 한 정책의제를 제안하고, 대안적인 세미나를 기획하며, 대중과 만나는 소통의 마당을 집중기획하는 일을 하고 있다. 희망제작소는 지역을 중시하며, 작은 공동체가 기반이 되어 살아나는 지역 경제, 공공문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희망모울은 지역의 의제와 중앙의 의제가 나눠지는 현실에 문제를 제기하며 그 장벽을 허물고 경계를 넘나들며 우리의 원하는 지식이 흐르는 물결을 이뤄내고자 한다."

시대의 소통과 전망이 모이는 곳

한국사회에서 '대화'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상대방의 이야기 함의와 그 너머를 의심하는 것이 우리 사회 공적 논의의 한계이다. 희망모울은 찬반을 묻는 일률적인 틀에 갇혀 진행되는 대화와 토론을 넘어서고자 한다. 또 진보와 보수를 넘어 우리사회가 실천적으로 고민해야 할 의제들을 고민하고, 그 주제에 천착하여 대안을 모색해왔다.

우리는 지난 해 정권교체를 경험했다. 희망모울은 매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국정을 인수하는 과정이 성급히 준비된다는 점을 발견하고, 정권의 성격을 떠나 인수과정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는 판단 하에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해왔다.

우선 전직 인수위원들을 인터뷰하여, 그들의 경험을 묶은 「인수위 67일이 정권 5년보다 크다」와 케네디 행정부 이후 미국 대통령의 인수과정을 조언 해 온 리처드 뉴스타트 하버드대 교수의 메모를 번역한 「사랑받는 대통령의 조건」을 발간했다. 「인수위 67일이 정권 5년보다 크다」에는 한국사회에서 국정의 인수라는 개념이 도입 된 이후 인수위에 참가한 인수위원장, 실무총괄책임자 등의 경험이 수록되어 있다. 또 '좋은 준비, 좋은 정부'라는 주제로 개최된 심포지엄을 통해 인수과정, 인사, 조직, 국정운영, 언론관계 등에 대한 구체적 제안을 했다.

당시 인수위 문제와 더불어 희망모울이 주목한 것은 퇴임대통령의 역할이었다. 재임기간 동안 지지율은 형편없었지만 퇴임 후 재단을 세워 다양한 봉사활동

과 현장에서부터 실사구시의 자세로 구체적 대안을 만들어나가고자 한다. 작은 공동체가 기반이 되어 살아나는 지역경제, 지역의 냄새가 물씬 나는 공공문화를 만드는 일에 희망제작소 전 구성원이 달라붙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지역은 격동의 공간이었다. 수도권 규제완화 논란은 지역이 그동안 기대고 있던 마지막 보루마저 걷어내겠다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잘못된 정책결정이 수십 년 동안 만들어온 지역공동체를 너무나도 쉽게 파괴하는 것을 우리는 무수히 지켜봐 왔다. 그래서 희망모울은 다양한 분야에서 관계자들을 모아 수도권규제완화를 둘러싼 문제를 파헤쳤다.

지난 한 해 한국사회를 가장 떠들썩하게 했던 이슈 중 하나가 종합부동산세 논란일 것이다. 그러나 논란의 격랑 속에서 종부세는 왜 폐지되어야 하는지, 폐지되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묻는 것은 물론 듣는 것도 쉽지 않았다. 여기서 희망모울이 더욱 주목했던 것은 종부세는 전액 자치재정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빠듯한 자치재정을 어떤 재원으로 보충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종부세는 국가적 의제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의제이다. 이렇듯 희망모울은 지역과 중앙의 장벽을 허물고 경계를 넘나들며 우리가 원하는 지식의 흐름을 이뤄내고자 했다.

지역의 근간을 뒤흔들 또 하나의 이슈는 바로 행정체제개편 논란이다. 희망모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과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답을 찾아가자는 취지로 지역을 순회하며 연속세미나를 개최해오고 있다. 지역신문협회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행정체제개편 연속세미나는 총 9회에 이르는 대규모 세미나이다. 중앙의 시각이 아닌 지역과 현장의 시각으로 행정 체제와 구역을 논의하는 것은 그동안 누구도 쉽게 시도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의 기획으로 평가되고 있다.

희망모울은 논의의 공간임과 동시에 성장의 공간이기도 하다. 희망제작소의 대중 아카데미 프로그램 소셜디자이너스쿨을 작년 한 해 동안 2기를 진행해서 이미 90여명의 동문을 배출했다. 소셜디자이너는 사회 변화의 의지를 가지고 공적 영역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상상하는 새로운 직업이다.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생업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시대의 공공의 가치에 대해 자각하고 행동하는 공공의 리더로 거듭났다.

희망의 근거지, 희망모울

2009년 희망모울은 본격적인 도약을 꿈꾸고 있다. 공간으로서의 희망모울을 넘어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게끔 하

희망제작소,
이런 일을 합니다

지역홍보센터

"2007년 11월, 246개의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 그리고 희망제작소가 모든 지역의 정보자료와 특산물을 한 곳에 모아 프레스센터 1층에서 시작한 지역홍보센터는 2008년 한 해 서울 한 복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그 힘으로 수많은 촛불의 불꽃처럼 작은 힘들을 모아서 그동안 지역의 희망을 지피는 활동을 해왔다."

끝나지 않은 여정, 지역 희망 찾기 365일

지역홍보센터의 제안과 설립은 일본에서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활발하게 시작된 지역 활성화사업을 벤치마킹해서 희망제작소가 시작한 지역 희망사업의 첫 번째 모델이다. 이는 도시와 농촌을 잇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거버넌스의 장을 열었다는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다. 지역홍보센터에서는 지역관광을 위한 홍보활동과 농촌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원, 각종 지역정보 콘텐츠를 한 곳에서 모아서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고 우리나라 방방곡곡을 소개하는데 그 역할을 다할 책임과 의무를 갖고 문을 열었다.

지역홍보센터에서는 계절별로 곳곳에서 진행되는 수많은 축제를 한 곳에 모아 홍보하고, 우리 농특산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브랜드화를 위해 크고 작은 행사를 기획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이곳에 들어와 전국 방방곡곡의 각종 정보와 소식을 접할 수 있고 지역여행을 계획해 볼 수 있는 복합적인 공간으로 운영되었다.

경제 한파 속에서 해외로 눈 돌렸던 내국인들에게 '떠나세요. 전국방방곡곡으로!' 라는 캠페인으로 국내여행을 권장하고 지역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테마별, 지역별로 국내여행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우리 몸에 좋은 우리지역 과일 먹기' 행사를 통하여 우리 과일을 홍보 판매하면서, 몸에도 좋고 지역을 풍요롭게

하는 각종 캠페인도 계절별로 진행했다.

외국인 관광객한테는 서울뿐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을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안내소 역할을 톡톡히 했다. 우리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우리 지역소개와 특산물 판매 행사, Information Fare와 같은 행사에 정기적으로 참가하여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여름 휴가철과 방학시즌에는 학생들과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잊혀져가는 지역 풍습과 민속놀이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은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에게는 지역에 대해서 앞선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굳이 떠나지 않아도 서울 한복판에서 지역을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지역홍보의 안테나 역할 또한 해왔다.

지역홍보센터는 총 6500여 종의 광범위한 지역정보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각 지자체의 관광, 특산물을 알리는 홍보물과 엄선된 60여개 지역신문을 한 곳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지역 정보, 자료의 보물창고이다. 지역홍보물의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홍보물대전을 연말에 개최하여 멋진 생각, 고운그림, 알찬정보라는 이름으로 질 좋은 홍보물 콘텐츠를 한 곳에 담아내었다. 지역특산물 전시 홍보관에서는 지역의 대표 특산물을 홍보하는 특산품점을 열고, 각종 특판 행사를 기획해서 지역특산물을 브랜드화하고 독자적으로 마케팅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지역홍보센터는 희망제작소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진흥사업의 첫 번째 사업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 비록 거버넌스의 실현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지역홍보센터를 운영했던 경험들은 농촌 이주를 돕는 귀향귀촌센터, 지역의 특산물과 지역정보를 한 곳에서 판매하고 홍보하는 지역 안테나숍,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식당 등 지역과 도시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각종 사업을 위한 희망씨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지역홍보센터는 2008년 경제위기라는 명목으로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인 한국지역진흥재단이 계약해지를 하면서 희망제작소의 위탁운영이 중단되었다. 현재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 비용절감이라는 이유로 현재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서울 한복판에서 지역을 주제로 실험적인 장을 열었던 지역홍보센터 광화문시대는 희망제작소의 위탁운영 해지와 함께 이제 역사의 시간 속으로 묻혀버렸다.

희망제작소,
이런 일을 합니다

좋은시장학교

아무리 작은 시골의 군수라도 수십만, 수백만 주민의 일상과 연결된 많은 분야를 다루며 주민의 삶에 총제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는 준비 없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인해 지역이 어려워지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다.
희망제작소는 민선 자치시대에 걸맞은 참여와 통합중심의 리더십, 상상력과 창의력, 지역에 대한 비전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준비된' 자치단체장을 위한 공공리더학교인 〈좋은시장학교〉를 기획해서 운영하고 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을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공공리더학교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방식에서부터 학교 이름을 짓기까지 2년 동안 수많은 토론과 회의를 거치고 우여곡절도 많았던 만큼 주변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으며 2008년 6월 20일 제1기 '좋은시장학교' 가 그 문을 열었다.

엄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선발된 수강자들은 전 · 현직 지방의회 의원, 국회의원 보좌진, 언론인, 정당의 당직자, 기업의 임원, 시민단체 활동가 경력 등을 가진 분들로 총 39명으로 구성되었다.

4개월간 매주 금요일에 진행된 '좋은시장학교' 는 20여개의 기본강좌와 국내스터디 투어, 해외 스터디 투어로 진행되었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자신의 지역에 대한 비전설계를 졸업논문으로 발표하는 '나는 우리 시 · 군 · 구의 지역디자이너입니다' 라는 프로그램으로 마무리되었다.

기본강좌는 좋은 시장이 되기 위한 십계명에서부터 정책 준비와 인재활용, 지역경제와 커뮤니티비즈니스, 생태도시를 위한 비전, 그리고 갈등과 협상, 주민참여, 국내외 지역의 성공과 실패사례 등으로 진행되었다. 뿐만 아니라 수강자가 스스로 1일강사로 참여하기도 하고, 수강자가 신청하는 강사를 초빙하여 특강을 마련하는 등 수강자의 참여로 프로그램을 완성할 수 있도록 했다.

2박3일 동안 진행된 현장 교육 프로그램 '생생 투어, 현장 속으로!' 에서는 북촌의 한옥마을, 파주출판단지, 헤이리, 안양 예술공원, 충남 홍성군 문당리 등을 방문하여 삶과 예술을 담아내는 도시의 형성과정과 주요 요소들을 확인하고, 환경농업의 백년계획을 세운 지역의 마을만들기 사례를 경험하였다. 또한 3박4일간의 일본 스터디 투어에서는 동경 세타가야구, 미타가시, 요코하마를 방문하여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실속 있고 실천 가능한 커뮤니티비즈니스 사례, 역사를 보존하며 문화로 재탄생시킨 도시 공공디자인의 노하우를 되새겨 보기도 하였다. 모든 스터디 투어 프로그램은 방문지에 대한 사전 강의와 관련 전문가의 동행 설명을 통해 알찬 내용을 채워갔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자신이 속한 지역에 대한 정책비전을 그려내는 데 좋은 밑거름이 되었다. 수강자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마지막 코스인 '나는 우리 시 · 군 · 구의 지역디자이너입니다' 에서 모든 수강자들은 4개월간 준비한 지역청사진을 각자 발표하고 관련 전문가의 강평을 통해 지역 비전에 대한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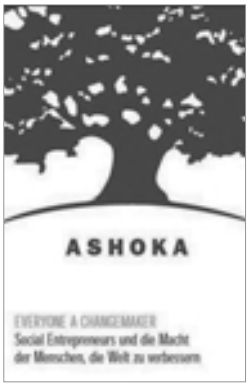
독일의 사회적 기업 및 대안경제에 대한 개관과 희망제작소의 접근모색

박 명 준
희망제작소 객원연구원 · 독일 쾰른대

필자는 작년 11월부터 희망제작소 객원연구원으로서 사회적 기업과 대안경제 등 한국사회의 대안적인 길 마련에 기여함과 동시에 희망제작소가 이끌어갈 어젠더가 될 주제들을 중심에 두고, 독일에서의 유사한 흐름들에 대해 탐색작업을 진행해왔다. 이 글은 그 중간 결과의 하나이자 향후 활동에 대한 계획을 담은 성격을 지닌다. 글에서는 사회적 기업과 대안경제와 관련하여 독일에서의 - 오스트리아 포함 - 논의와 실천의 흐름을 개관하고, 이어서 희망제작소가 그들로부터 어떠한 요소와 자원을 취득하여 이 분야의 한국적 논의와 실천에 자원으로 삼을 것인가를 주로 다뤘다.[1]

사회적 기업에 대한 독일에서의 움직임은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필자는 이를 각각 국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 중심적 흐름이라고 이해코자 한다. 이들은 현실에서는 혼재되어 있고 겹쳐 있다. 모두 한국에서 이제 막 태동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의 실천을 위하여 그리고 희망제작소가 그러한 실천을 진행해 가기 위하여 유용한 벤치마킹(bench-marking) 대상이 될 수 있다.

아소카 독일 활동 보고서



1.
이 내용은 희망제작소의 공식적인 결정사항이 아니며 계속해서 모색과 탐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필자의 의견을 정리한 것이다. 이 글이 만들어지는데 있어, 그리고 희망제작소가 독일의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접근전망을 찾아가는데 있어 독일 뮌헨의 강정숙 박사의 조언과 자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밝힌다. 이 글의 많은 부분에서 강박사의 조언을 인용하고 있으나, 이를 일일이 밝히지는 않았다. 다시 한번 강박사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

복지체제의 대행자로서의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의 독일적 형태의 첫 번째 모습은 전통적인 복지국가의 실행단위 혹은 그것의 개혁의 일환으로 사고되는 사회적 기업이다. 전통적으로 복지국가(사회국가 Sozialstaat)의 전통이 강한 독일은 전세계 어느 나라 못지 않게 국가가 사회적 가치들을 실현하려는 지향을 매우 강하게 지녀 왔고, 대규모 복지단체들이 중심이 된 다양한 부분의 복지제도가 탄탄히 구축되어 있다.

국내 총생산액 (GDP)의 약 30여%가 사회지출에 쓰이고 있고, 사회복지의 운영은 아직도 국가가 주도하고 있다. 약 100년 내지 150년 전에 설립되어, 연방정부, 주정부, 시정부, 유럽연합, 교회에서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6개의 대규모 복지단체는 대부분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한 복지단체당 약 10만~16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 거대한 사회적 기업체라고 볼 수 있다.[2]

지방정부와 복지단체들은 소위 '사회경제(Sozialwirtschaft)' 의 이름으로 일종의 사회적 기업을 운영한다.

예컨데, 뮌헨시의 경우 시정부는 2천8백만 유로를 들여 사회적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그 수는 약 45개 정도 되고, 그 가운데 15개가 청소년들의 직업을 위한 사업들이다. 시정부는 다른 사회복지 단체와 공동으로 주로 실업자나 사회적 취약계층들 - 장애인, 약물 · 알콜중독자, 에이즈 환자, 외국인, 폭력적인 청소년, 심리환자 등 - 을 돕는 고용, 능력향상정책의 일환으로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활용하고 있다. 그 분야는 문화, 카페, 음식점, 사무실 업무, 슈퍼마켓에서 팔리지 않은 식료품 수집공급, 자동차 공유(car sharing), 자전거 수리, 자동차 정비 수리, 가구 만들기, 시민들의 수공업 작업장, 가사돕기, 간호, 숲 관리, 인쇄소 등 매우 다양하다.

뮌헨시뿐 아니라 대부분의 시정부들은 대형 복지재단과 여타 시민단체들과 협작하여, 장기 실직자 구제책으로 모든 분야에 이러한 사업장들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형성된 2차 노동시장에서 능력을 발휘하여 성공적으로 숙련을 획득한 사람들은 1 차 노동시장으로 흡수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형태의 사회적 기업들은 결

2.
국가는 종교세를 일반인들의 봉급에서 자동적으로 수거하여 교회에 지급하고 있고, 국가와 교회가 깊이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대한 복지단체를 운영할 수 있는 재정적, 사회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기민당이나 기사당은 카톨릭 교회에서 운영하는 '카리타스(Caritas)' , 개신교에서 운영하는 '개신교 협회(Diakonisches Werk)' 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사민당과 노조는 '노동자 복지(Arbeiterwohlfahrt)' 와 연결되어 있다. 그 외에 자유롭게 활동하는 단체들이 '동등한 복지 연합체(Paritaetische Wohlfahrtsverband)' 에 연합되어 있다. 특히 이들 4대 복지단체는 독일의 사회정책에 막강한 영형력을 가지고 있으며 국회에서 청문 및 자문 등의 활동을 하며, 시의회의 사회복지위원회에도 발언권을 가지고 있다.

정적으로 국가의 재정지원이 없으면 대부분 생존가능성이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근래에 들어 소위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영향하에서 사회국가의 개혁과 복지제도의 축소를 지향하는 정치적 지향성이 강화되어 왔고, 그 결과 종래에 국가와 대형 복지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이룬 복지시스템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민간기관의 역할이 부각되기 시작하고, 사회적 기업의 역할과 필요에 새로운 주목이 일고 있으며 그들의 활동도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연 신사회경제가 구사회경제를 어떻게 질적으로 대체하고 있는지, 신사회경제에서 사회적 기업의 특수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는 이 글의 문제의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더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겠다.

사회적 자본가들과 사회적 비즈니스, 시장과 자본의 사회화

사회적 기업의 두번째 흐름은 시장과 기업측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애초에 사회국가의 오랜 전통 속에 있는 독일의 자본가들은 상당한 정도로 '친사회적' 지향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컨데, 최근 경제 위기 속에서도 정리해고를 하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신중하고 또 자제를 하려고 한다. 물론 이는 기업의 이미지를 생각해서일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노동의 압력이 거세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종래 독일의 기업이나 재계가 지녀 온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친화성은 최근 또 하나의 질적인 변화를 맞고 있는 듯하다. 소위 '사회적 자본가들(Soziale Kapitalisten)' 내지 '사회적 비즈니스 (social business)' 로 명명되는 일련의 흐름이 그것을 보여준다. 이들은 사회적 책임과 사회성 자체를 하나의 비즈니스 영역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의 일환이며, 최근들어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사회정의와 생태친화성 등 사회적 가치관의 지배적인 확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으며, 전적으로 그러한 가치를 표방하고 비즈니스를 동일한 가치와 비전의 실현 수단으로 삼으려 한다. 소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의 보다 강화된 양태이자, 그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사회적 책임성이 극대화된 기업' 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예컨데, 독일의 유력 진보일간지인 타게스차이퉁TAZ의 기자였던 하네스 코흐(Hannes Koch)는 2007년에 바로 사회적 자본가들(Soziale Kapitalisten)이라는 제하에 이러한 지향을 갖는 기업들 10곳을 소개하였다. 이 책에 의하면, 사무용품 제작회사인 파버 카스텔의 사장인 안톤 볼프강 그라프 폰 파버-카스텔(Anton Wolfgang Graf von Faber-Castell)은 종래의 전형적인 기업가와 달리 자발적으로 노동조합과 협약을 체결하여 전 세계에 있는 자신의 회사 공장들에서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적절한 노동

하네스 코흐 저, '사회적 자본가들' 의 목차

서론

뿌리가 뽑힌 기업: 기업에 대한 신뢰의 상실

생존에의 질문: 왜 기업은 사회적 생태적 부가가치를 경제화하는가

1. 귄터 크라머의 '태양열 기업 SMA' (Günther Cramer - Solarfirma SMA)
2. 콘스탄츠 프리쉔의 '아소카 재단 독일' (Konstanze Frischen - Ashoka Germany)
3. 괴츠 베르너의 'DM' (Götz Werner - dm-drogerie markt)
4. 요헨 하네의 사무실기관 'Wilkhahn'
   (Jochen Hahne - Wilkhahn Büroeinrichtungen)
5. 미하엘 오토의 'Otto 그룹' (Michael Otto - Otto Gruppe)
6. 폰 파버 카스텔의 Faber-Castell
   (Anton Wolfgang Graf von Faber-Castell - Faber-Castell),
7. 말리 호페 리터의 'Ritter 스포츠' (Marli Hoppe-Ritter - Ritter Sport)
8. 울리히 레너의 'Henkel' (Ulrich Lehner - Henkel)
9. 위르겐 슈텔플룩의 '외코 테스트' (Jürgen Stellpflug - ÖKO-TEST)
10. 앤드류 머피의 투자기업 '머피&슈피츠'
    (Andrew Murphy - Investmentfirma Murphy&Spitz)

결론

경제의 정치화: 선호와의 작별

보다 많아져야 할 사회적 자본가를 위한 정치

연대의 경제
2009 비엔나대회 포스터

시간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카셀 출신의 태양에너지 생산업자인 귄터 크라머(Gönther Cramer)는 매년 자신의 회사가 남긴 이윤의 일부를 회사 직원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주는 기업 운영을 하고 있다. 초코렛 제조업체인 리터 슈포르트(Ritter Sport)의 사장인 말리 호페 리터(Marli Hoppe-Ritter)는 니카라구아의 카카오 농장에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고 원료를 공급받는다. 세탁기 제조업체인 헹켈(Henkel)의 사장인 울리히 레너(Ulrich Lehner)는 기후변동에 부합하게 행동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행위를 추구한다. 공산품 슈퍼마켓 체인점 DM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성장시킨 괴츠 베르너는 최근 무조건적인 시민기초소득(Grundeinkommen)의 도입을 주창하며 저소득층과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의 수립을 역설하면서 활발한 저

연대의 경제 2008년 Vienna 대회 개막행사

술 활동도 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흐름은 보다 국제적인 논의와 실천의 심화를 위한 노력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소위 '비전 정상회의(Vision Summit)' 으로 대변되는 흐름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비전 정상회의를 주도하는 기관이 바로 게니시스 연구소(Genisis Institute)이다. 이들은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유누스(Yunus)가 개발하고 실천하고 있는 마이크로 크레디트(micro credit)를 독일 및 여타 나라들의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삼으려고 한다. 나아가 사회적 증권시장 (social stock exchange)을 개발하려고 하는 등 종래에 비사회적으로 사고되었던 경제적인 수단들을 사회적인 목적을 위해 이용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시장과 비즈니스의 세계와 테두리 안에 있으면서 자본과 시장의 사회적 이용을 추구하는 이러한 흐름은 분명 세계화 시대에 몰사회적 이윤추구에 몰입하는 종래의 지배적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반성의 일환이기도 하며, 독일 사회의 전반적인 가치지향성의 지배적인 흐름에 비즈니스가 능동적으로 적응해 가는 모습이기도 하다.

좀 더 비판적인 시각에서 이들을 본다면, 기업의 이윤과 시장의 논리를 사회적 논리와 접맥시킨 하나의 포장이나 장식이라고 폄하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데올로기적인 시각에서 선험적으로 낙인을 찍기 보다, 이러한 시도들의 긍정적 효과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천착이 필요할 것이다.

시민사회의 진화한 형태로서의 사회적 기업

세 번째 범주는 구사회경제의 테두리를 넘어 보다 혁신적, 창의적, 능동적으로 아래로부터 사회적 과제들과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는 자율적인 흐름이다. 그들 중에 일부는 매우 고무적인 아이디어를 담고 있어서 독일 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는데 나름대로 큰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기도 하고, 그에 대한 후원이 뒤따르기도 한다. 종래에 시민단체 내지 시민행동(Bürgerinitiative)의 연장에서 그것들을 보다 세련되고 공식화된 하나의 '사회적 기업' 으로 만들어내려는 흐름으로, 시민사회(civil society)의 가일층 진화된 형태로 이해될 수도 있다. 독일의 언론도 이들의 존재와 활동에 주목하며 공론장에 소개를 하고, 이미 그 일부는 독일을 넘어 국제적으로도 명성을 날리고 있다. 이들 가운데 가장 주목할 대상은 독일 아소카 재단 (Ashoka Germany)과 연대의 경제(Solidarische Ökonomie) 그룹이다.

아소카 재단 독일 지부 (Ashoka Germany)와 그 펠로우들(Fellows)

국제적으로 사회적 기업의 중요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세력들 가운데 주목을 받고 있는 기관인 아소카 재단은 전세계 주요국들의 지부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들과 그들의 기관을 선정하여 '아소카 펠로우(Ashoka Fellow)' 로 칭하고 그들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아직 한국에는 그 지부가 존재하지 않지만, 독일에서는 지난 5년 전부터 독일지부(AShoka Germany)가 생겨나 3년여 동안 총 20개의 아소카 펠로우들을 배출해냈다. 아소카 재단 독일지부의 창립자는 콘스탄츠 프리쉔(Konstanze Frischen)이라고 하는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다. 창립할 당시에 그녀는 20대 후반이었다. 지난 약 5년간의 성공적인 활동을 배경으로 최근 프리쉔은 아소카 재단 세계본부의 임원으로 발령을 받아 이동했고, 최근 새로운 지부장이 임명 되었다.

독일 아소카 재단의 펠로우들은 다양한 면모를 지니고 있다. 이들이 다루는 분야는

분야	창립자	기관 이름
인터넷을 통한 사회적 소통의 혁신	틸 벵케 (Till Behnke)	베터 플레이스
	가브리엘라 엔더(Gabriela Ender)	오픈 스페이스
이민자의 사회통합 지원	무라트 부랄 Murat Vural	이민자 자녀를 위한 조직체 IBFS
	라마찬 잘만 (Ramazan Salman)	민속의학센터
정치개혁과 언론개혁	그레고어 하크막(Gregor Hackmack)	출마자 관찰 및 국회의원 관찰
	미하엘 글라이히(Michael Gleich)	컬쳐 카운츠 (Culture Counts)
기후 및 환경보호	요하네스 헹스텐베르그 (Johannes Hengstenberg)	Co2 온라인
	우어줄라 슬라덱(Ursula Sladek)	쉐나우 발전소
학교개혁과 교육혁신	다그마 슈라이버 (Dagmar Schreiber)	데모카리스(Democaris)
	하이케 쉐틀러 (Heike Schettler)	과학실험실 (Science-lab)
	베른트 게버트 (Bernd Gebert)	그것이 학교를 만든다
	마인라트 암브루스터 (Meinrad Armbruster)	학부모 회사(Eltern AG)
육아와 아동교육	폴커 바이쉬 (Volker Baisch)	아버지들
	로제 폴츠-슈미트 (Rose Volz-Schmidt)	웰컴
청소년 일탈 예방	루퍼트 보스 (Rupert Voss)	일과 권투 (Work and Box)
	주디 콘 (Judy Korn)	폭력 예방 네트워크
	위르겐 그리스벡 (Jürgen Griesbeck)	길거리 축구 세계
장애인과 사회적 취약계층	안드레아스 하이네케 (Andreas Heinecke)	전시회, 어둠속의 대화
	노버트 쿤츠 (Norbert Kunz)	엔터프라이즈
지역경제의 활성화	프란츠 둘링어 (Franz Dullinger)	엑스퍼 레기오(Xper-Regio)

〈표〉 독일 아소카 재단 선정 20개 펠로우들(Fellows)

인터넷을 통한 사회적 소통의 혁신을 추구하는 기관, 이민자의 사회통합지원을 위한 사회적 기업들, 정치개혁과 언론개혁, 기후 - 환경 보호, 학교개혁과 교육혁신, 육아와 아동교육, 청소년 일탈과 예방, 장애인과 사회적 취약계층, 그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 모두 사회 전반적으로 중요한 영역들이다. 이들의 창립자들은 모두 매우 새로운 사고와 발상 그리고 용기있는 실천의 실행을 통해 아래로부터의 진정한 사회혁신을 이루는게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향후 큰 성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대의 경제 (Solidarische Ökonomie, Solidarity Economy)

시민사회를 기반으로 한 두 번째 흐름은 소위 '연대의 경제' 를 표방하는 세력이다. 연대의 경제는 자본주의에서 상품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분리되고 생산활동이 이윤추구(Profit-making)에 종속되며, 생산자 간에 경쟁적 관계에 지배당하는 것을 극복하기위한 대안적인 경제체제를 의미한다. 즉,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짓고 시장을 경쟁

(competition)이 아니라 협력(cooperation)을 통해 꾸리려는 노력이다.

애초에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등 남유럽권 협동조합(Genossenschaft) 운동의 전통에 기반한 것으로 남유럽뿐 아니라 남미 등에서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 왔다. 최근들어 세계화된 자본주의 하에서 각국이 당면한 양극화 등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해 이들 나라의 사회운동세력은 협동조합적 시각에서 연대의 경제에 더욱 크게 주목하고 있다. 독일의 사회운동세력들도 근래에 들어 새로운 대안적인 타계책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에서 몇 년 전부터 연대의 경제의 개념과 실천을 수입하려는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다. 남미와 관련해서, 이 논의는 종래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개발협력정책의 실패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대안적인 사회경제 개발모델의 구축을 위한 노력과도 맞닿아 있다.

학계에서는 카셀대학의 뮐러-플란텐베르그 교수나 뮌헨 전문대학의 엘젠 교수 등이 이러한 논의를 주도하는 이론가로 활약하고 있다. 이들의 인식과 실천은 넓게 보아 하나의 진보적이고 좌파적인 것이라고도 이해할 수도 있으나, 이들이 모색하는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은 혁명이나 복지국가 등의 낡은 방식이 아니라, 시장을 적극적으로 사회적인 목적에 복속토록 새롭고 능동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다.

연대의 경제 주창자들은 지난 2006년 11월에 1차로 베를린에서 '연대의 경제 콩그

분야	주요 기관들
에너지	EWSchönau; Greenpeace-Energie; Solvis; Wagner 등
수자원, 식수	Wassergenos Schönstadt-Schwarzenborn (Hessen) + Kiel 등
건강, 보건	Assistenz-Genossenschaft Bremen; Artabana; Coingemeinschaft Gesundheit; Selbsthilfegruppen 등
주거	Mietshäusersyndikat; Stiftung Trias; Aller Wohnen eG 등
건설	Ökozentrum Verden (Biber u.a.); Axt & Kelle (Walz) 등
공동체	Ökodorf 7 Linden; Kommune Niederkaufungen 등
교육	AG SÖ Kassel; innova eG; freie Schule Prinzhöfte; Frauen-TH Zülpich; taz eG; Netzwerk Freies Wissen 등
금융, 재정	Netzwerk Selbsthilfe; GLS; Microkredite/ Peerlanding 등
지역발전	Regiogeld; Regionalmärkte; Gemüsekisten; Stadtteil Genossenschaften; Community-Supported Agriculture 등
생필품	Coop/ Sky; Mitgliederladen Landwege; FairKost eG; Interkulturelle Gärten Gö.; Dreschflegel; Café Libertad 등

〈표〉 독일 내 연대의 경제 흐름들

레스' 를 개최하여 각 지역에서 모색되어 왔던 논의와 실천을 최초로 집대성하여 하나의 큰 흐름으로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당초 500여 명이 참석하기로 했던 것에서 보다 확대되어 1,500명 가량이 행사장에 관심을 기울이며 방문을 했고, 당시 논의의 내용을 담은 단행본 도서인 '글로벌 자본주의 시대의 연대의 경제' 가 발간되어 이 흐름을 공식적으로 외화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기도 했다.

올해 2월에는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2차 대회는 1차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이후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진행되고 있는 노력들이 한층 가시화된 것으로 보인다. 4월에는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룩셈부르그에서 국제 콩그레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희망제작소의 접근 과제

지금까지 살펴본 독일의 사회적 기업 및 대안적 경제를 추구하는 흐름은 모두 한국 사회를 위해서 유의미한 함의를 지니고 있고, 희망제작소의 주요한 실천작업에 자양분이 될 수 있다. 향후 인식적 차원, 네트워크 차원 그리고 행동의 수준에 희망제작소의 실천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자원들이 독일로부터 많이 발굴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각 범주별로 희망제작소의 접근 과제를 간략히 정리하는 것으로 글을 마감토록 하겠다.

첫째, 복지국가의 대행자로서 사회적 기업은 현재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의 지배적인 흐름과 맞닿아 있다. 비록 종래에 발전된 복지체제를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려는 독일과는 그 맥락에 있어서 질적으로 상이할지라도, 현재 국내에서 노동부와 여타 기관들이 주도하는 이러한 흐름은 단기적으로 큰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된다. 이들은 분명 강화되어야 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혁신되어야 할 것이며, 독일의 사례는 구사회경제와 신사회경제 모두 그러한 흐름을 만들어가는데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희망제작소는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되,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 이러한 흐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몽하고, 보다 혁신적이고 능동적인 사회창발과 연대의 결절점으로 역할을 하는 사회적 기업의 다른 접근방식들을 개발, 소개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적 비즈니스와 사회자본의 발전은 한국 사회에서 아직까지 블루오션의 영역이 아닌가 싶다. 여전히 지지부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담론의 공격적 활성화와 함께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적극적으로 개척한다는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이해와 도입은 필수적이다. 하네스 코흐 등이 소개하고 독일 언론에도 자주 회자되는 다양한 혁신적인 기업들을 소개하고, 더욱 창의적인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비전 정상회의' 의 논의와 발전양상에 주목하고, 그 흐름과 궤를 같이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아직까지 한국의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생태적 가치

지향성의 무게가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소비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얼마나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그것을 성공적인 사회적 비즈니스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희망제작소는 이러한 발전의 촉매자이자 동시에 선점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셋째, 시민사회의 진화된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탐구와 그들로부터 희망제작소의 실천과의 접맥점을 찾는 시도는 두번째 범주 못지 않게 중요하다. 이들의 활동은 시민사회에 그 뿌리를 두면서, 새로운 사회적 혁신을 추구하는 희망제작소의 지향과 매우 강하게 맞닿아 있다. 조만간 필자는 '아소카 재단 독일 지부'의 펠로우들을 탐방하여 그들의 실천을 한국에 소개할 계획이다. 또 비엔나에서 개최된 2차 '연대의 경제' 콩그레스에 참가하여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연대의 경제의 흐름을 파악한 바 있다. 이 회의에 대한 보고와 함께 연대의 경제를 추구하는 흐름들을 차근차근 소개할 예정이다. 이러한 움직임들을 관찰하고 그로부터 유의미한 논의 및 실천자원을 끌어내는 노력은 한국에서 혁신적인 사회적 기업, 특히 그 중에서도 대안경제체제를 구축해 나가는데 있어 매우 유용한 결실을 낼 수 있으리라고 기대된다. 나아가 이들의 활동에 대한 이해와 이들과의 협력고리의 강화는 한국의 사회적 기업 논의의 취약한 부분을 메우는 자원을 공급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사회적 기업의 현주소

킷카와 준코
일본 희망제작소 사무국장

들어가며

일본에서는 2008년, '워킹 푸어' 나 '빈곤' 이라는 말이 거의 유행어처럼 세상을 떠돌았다. 그리고 연말, 세계가 금융경제위기에 직면하면서 일본 각지에서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대량해고가 단행되었다. 도쿄 한복판의 히비야(日比谷) 공원에는 '파견 마을' 이라는 간이숙박시설이 시민단체들에 의해 조성되었다. 500명 가량 되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새해를 맞았다. 이러한 비상 사태를 보고 16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몰려들었고, 약2300만 엔의 성금이 모인 것은 그나마 위안이 되는 뉴스였으나, 일본은 2009년 어두운 개막을 맞이해야 했다. 정부는 고용 대책에 상당한 예산을 퍼붓고 있지만, 고용이 회복되는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지금의 일본이다.

일본 희망 제작소는 2007년 6월30일 설립 기념 세미나를 가진 이래로 심포지엄이나 강좌의 개최, 연수 코디네이트 등을 중심으로 활동해왔다. 그 동안 진행된 연수는 2007년도 14회, 2008년도 22회에 달한다. 그 중 한 번은 한국의 사회적 기업을 조사하기 위해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서 진행했던 연수였고, 그 이외는 모두 한국에서 일본으로 오는 연수였다. 연수단의 구성은 자치단체장, 공무원, 시민단체 등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연수 테마 가운데 가장 많았던 것이 '일본의 사회적 기업 및 커뮤니티비지니스' 였다. 경제재생, 지역재생과 관련된 테마는 한일 양국의 공통되는 과제이긴 하나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현장을 바라 보는 시각이 일본의 현실과 엇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는 한일 양국의 사회적 기업을 들러싼 역사적, 사회적 맥락이나 배경이 상이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여러 차례 연수를 진행하면서 새삼스럽게 느낀 것은, 일본과 한국은 가장 가까운 나라이면서 역사, 문화, 그리고 사회상황 등 상호이해가 많이 부족하다는 사실이었다.

이 글에서는 일본의 사회적 기업을 소개하면서 그러한 사회적 기업을 둘러싼 한일 양국의 인식 차이에 대해서도 살펴 보고자 한다.

일본의 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 기업을 정의하는 것은 그리 간단치 않다. 대략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회적인 과제에 비지니스의 수법을 이용해서 기여하려는 사업체' (츠카모토 이치로(塚本一郎) 인터뷰, 「비영리섹터의 새로운 모델로서의 사회적 기업」, 〈자치단체 채널 플러스〉 2008년 8월호)이라는 해석이 일반적이겠지만 , 다양한 법인형태가 존재하는 가운데,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사회적 기업인가라고 묻게 되면 학자나 연구 기관에 따라 그 정의는 다양해질 수 있다.

일본에서는 '시민사업' 이라는 용어가 가끔 사용되는데, 이는 사회적 경제, 비영리 · 협동, 연대 경제 등 넓은 범위에서 복지, 교육, 의료, 문화, 환경, 인권 등 다양한 분야의 공공목적을 위한 시민주체의 사업활동을 뜻한다. 한편, 사회적 기업이란 시민사업 외에 주식 회사 등의 영리기업, 소셜 벤처, 커뮤니티비지니스등 다양한 존재 형태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사용되고 있다.

올해 (2009년) 2월17일, 경제산업성은 '일본을 대표하는 소셜 비지니스 55선' 을 발표했다. 긴급 고용대책이 추진되는 속에서 고용 창출의 수단으로 소셜 비지니스에 주목하고, 전국적으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대표적인 사례 55군데를 선정한 것이다.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보도자료 소셜 비지니스란 '마을 살리기 · 지역활성화, 출생률 감소 및 고령화, 환경, 빈곤문제와 같은 사회적 과제를 비지니스의 형태로 사업성을 확보하면서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활동' 이라고 되어 있다.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현실 속에서 야기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고, 어떻게든 이를 해결해보고자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힘쓰면서, 그 활동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형태를 취하게 되었고, 이제는 이러한 사회적 기업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회적 기업을 이끄는 주체들

2008년 경제산업성에 의해서 이루어진 「소셜 비지니스 · 커뮤니티비지니스 사업자 앙케이트」조사에 의하면, 소셜 비지니스로 여겨지는 사업의 법인형태는 특정 비영리활동 법인(NPO) 46.7%, 주식 회사 · 유한회사등의 영리기업 20.5%, 개인사업주 10.6%, 조합 6.8%, 워커즈컬렉티브 1.7%, LLP(유한책임사업조합) 0.4%, 기타가 16.3%로 NPO법인 비율이 가장 많다.

현재 NPO법인 수는 38,165건 (내각부 홈페이지/ 2009년1월31일 현재)에 달하고, 일본의 시민활동에서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NPO법인이란 「특정 비영리활동 촉진법」에 의해 정부(중앙정부)나 도도부현(광역지자체)에 인증을 받은 비영리단체를 일컫는다. 일본에서 NPO활동을 촉진하는 법률이 만들어진 것은 1995년에 일어난 한신 아와지(阪神 淡路) 대지진에서 비롯된다. 이 대지진은 사망자 6,433명, 부상자 43,792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피해를 낳은 재해였다. 피해자를 위한 행정 지원이 지체되는 상황에서, 시민들은 스스로 자원봉사를 조직하고 착실하게 지원의 고리를 펼쳐갔다. 연일 처참한 피해 상황과 함께 원조 활동 및 전국에서 모여 든 자원봉사들의 모습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대규모 재해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지를 통감했고, 더불어 사람들 사이에 관계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피해가 컸던 오사카, 효고(兵庫)의 사회기업가, NPO 활동가들 사이에는 이 지진 피해를 계기로 공익적인 활동에 나서게 된 사람이 대단히 많다.

지진 발생 3년 후인 1998년 12월, 많은 시민단체와 활동가들의 노력에 의해 「특정 비영리활동 촉진법」 (NPO법)이 제정되었다. 법 제정 10주년을 맞이한 작년에는 이 법률의 성립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 시즈(C's: 특정 비영리활동 법인 시즈, 시민활동을 유지하는 제도를 만드는 모임) 주최로 기념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NPO법은 일본 시민사회의 공공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하지만 그런 한편에서는 NPO라고 하면 자원봉사라는 인식이 정착 되어 재정기반을 만드는 유료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오히려 어려워졌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또한, 일본의 「지정 관리자제도」실시에 따라 많은 NPO법인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사업 위탁을 받게 되었는데, 이를 두고 값싼 '행정의 하청' 으로 전락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퇴직한 세대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는 NPO의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는 '삶의 보람 만들기' 가 우선적인 목적이 되면서 운영비는 자기부담으로 유지하고 있는 단체도 적지 않다. 그러한 자원봉사형 NPO와 달리 단단한 경영 기반을 가진 사업형 NPO가 어떻게 각각 역할과 분야를 조정할 수 있을지, 출자가 인정 받지 못하고 있는 NPO법인이 자금을 어떻게 조달해 갈 것인지 등 NPO법인을 둘러싸고 지속가능한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제기되는 과제는 많다.

한편, 사회적 기업의 또 하나 중요한 범주라고 할 수 있는 워커즈(Workers)는 '아무에게도 고용되지 않고 스스로 일한다' 는 취지로 모인 개인들이 대등하게 출자를 해서 사업체를 만든 비영리 단체다. 특히, 실업자 및 중 · 고령자의 일자리 만들기 운동에서 출발하여 1987년에 「일본 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로 확대 발전한 워커즈 코퍼레이션, 그리고 생활클럽생협이라고 하는 생협단체의 조합원들이 간호나 육아와 같은 주부로서의 경험을 살려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워커즈 컬렉티브도 일본에서는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워커즈에 걸맞는 법인형태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데, NPO법인, 기업조합, 주식회사, 임의단체 등의 형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활동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협동노동의 협동조합」법제화를 목표로 해서 활동하고 있지만 법제화까지의 길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

이러한 가운데 영국의 LLP(Limited Liability Partnership)제도를 참고로 2005년에 「유한책임사업조합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출자자가 출자액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는 일본판LLP가 시작되었다. LLP는 법인격을 가지지 않고 구성원은 조합원이 된다. LLC(Limited Liability Company)는 회사법이 적용되며 LLP과 같이 출자자가 유한한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LLP와는 달리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 LLP도 LLC도 출자자의 의사나 내부자치를 존중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지만, 아직까지 LLC의 일본 내인지도는 그다지 높지 않다.

이 밖에 공익적인 단체로 잘 알려져 있는 것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지만, 어느쪽도 주무관청에서 설립 허가를 얻기 위한 조건은 상당히 까다롭다 . 2006년에는 일반사단・재단법인법, 공익법인인정법, 관계 법률정비법이라고 하는 공익법인제도개혁

3법이 성립되고, 2008년 12월에 시행되었다. 1896년에 시작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민법 제34조)은, 공익법인으로서의 인지도는 높지만, 사실상 고급 관료들의 '낙하산 인사'가 빈번하다는 비판도 많다. 따라서 2006년에는 시민의 비영리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설립 인정 조건을 대폭 낮추어 간단한 등록만으로 설립이 가능한 일반 사단법인 · 일반재단법인을 제도화했다. 일반 사단 법인은 비영리가 원칙이지만 사원 2명 이상, 일반재단법인은 출자 자산이 300만 엔이상이어야 설립할 수 있다. 또한, 일반 사단법인의 경우 기금제도도 만들 수 있고, 배당은 없지만 출자금도 모집할 수 있다. 이는 출자를 못하는 NPO의 경우와는 다른 제도다. 이러한 법인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갈 것인지 그 동향이 주목된다.

시민활동을 시작한 사람들은 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법인화를 검토하게 된다. 법인화의 동기는 단체의 이름으로 사무소를 빌릴 수 없거나, 은행에 계좌를 만들 수 없는 등 실무적인 문제로부터, 사회적인 신용도를 높이기 위한 욕구까지 다양하다. NPO나 창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등은 사업전개의 용이성을 위해 법인격의 취득을 권하고 있지만 NPO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상 상당히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 하지만 〈표〉에서도 알수 있듯 비영리법인은 세제도 우대되므로 법률이나 제도를 잘 연구하여 이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법률이나 제도에 정통하지 못한 NPO들한테 다양한 지식을 전수하는 중간지원 조직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표〉 법인별 과세 방식

공익법인	공익목적사업을 제외하는 수익사업만 과세(원칙비과세)
비영리일반법인	수익사업소득, 이자에 과세(원칙비과세)
일반법인	모든 소득및 이자에 과세
NPO법인	수익사업소득, 이자에 과세(원칙비과세)
주식 회사등	모든 소득및 이자에 과세

스가와라 토시오(菅原敏夫: 일본희망제작소 부이사장 「시민활동과 신공익법인 제도」 『참가 시스템』 2009년 3월호에서 발췌)

나뭇 잎을 팔아서 활력이 넘치게 된 할머니들

한국에서 온 연수단은 일본의 여러 현장을 방문하지만, 대부분 연수 대상이 되는 사업의 규모는 크지 않다. 2008년 경제산업성 조사에도 나와 있듯이 한 단체당 연간 수입(매출액)은 1,000~5,000만 엔 미만인 단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26.4%). 또한 한 단체당 종업원수는, 상근자가 4명 이하인 단체가 과반수(52.6%)를 차지하고 있

다. 한편, 종업원의 평균 연령은 40대인 조직이 가장 많다고 보고되고 있다. (경제산업성 『소셜 비지니스 연구회 보고서』 2008년 4월). 한국에서 연수를 오는 사람들 가운데는 사업체의 성공여부를 규모에 따라 판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사실 중요한 것은 어떤 발상으로 어디에 착안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가 하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 사회적 기업의 다양한 에센스가 담겨 있는 것이다.

도쿠시마(德島)현에 카미카츠(上勝)쵸라고 하는 인구 2000여 명의 작은 마을이 있다. 이 마을에 일본을 대표하는 사회적 기업 주식회사 '이로도리' 가 있다. 이로도리는 자본의 7할을 카미카츠쵸가 출자하는 제3섹터다. 일본에서도 이미 몇 번이나 매스컴에서 소개해서 유명해진 이 사례는, 아마 한국에도 알려져 있을 것이다. 과거 카미카츠쵸는 고령화와 과소화가 심한 시골 마을에 불과했다. 여기에서 이로도리를 만든 사람은 현재 부사장을 맡는 요코이시 토모지(横石知二)씨다. 요코이시는 노인이나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찾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 중에 어떤 초밥집에 들어갔을 때 젊은 여성이 요리에 놓인 단풍을 보고 '예뻐!' 라고 하는 것을 듣고, 어떤 생각이 번쩍 떠올랐다고 한다. '카미카츠쵸에 널려 있는 나뭇잎을 팔면 어떨까?'

처음에는 아무도 찬성하지 않았던 일이 지금은 연간 매출 약2억 6000만 엔을 올리는 기업이 되고, 연수 오는 사람도 마을 인구의 2배가 된다고 한다. 나뭇잎은 할머니들 스스로 키우고 수집과 출하까지 한다. 카미카츠쵸를 취재한 뉴스에서는 할머니들이 생기발랄하게 일을 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준다. 자기들의 지역에서도 같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똑같이 성공한 곳은 아직 없다. '그저 나뭇잎만을 팔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로도리는 지역에서 사람과 사람 간의 유대를 중요시하면서, 거래처와 신뢰 관계를 이룩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 이라고 요코이시씨는 지적한다. 이로도리에는 고령자와 여성의 활용, 지역자원의 발견, 면밀한 마켓 조사, 그리고 요코이시씨와 같은 지역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다양한 에센스가 모두 모여있다.

향후 과제

일본에서도 지속가능한 사업체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자주 논의되고 있다. 더구나, 다양한 형태를 취하는 사회적 기업이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매니지먼트를 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자주 거론되는 과제이기도 하다. 사회적 기업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NPO법인은 출자를 할 수 없는 법인이다. 중소기업과도 달라서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는 것도 어렵다. 그런 상황을 반영하여 최근에서는 미래 뱅크 사업조합(도쿄), 홋카이도 NPO뱅크, 커뮤니티 파워 뱅크 등의 금융NPO나, 소셜 벤처에 투자를 하는 소셜 벤처 · 파트너즈 도쿄 등이 주목받고 있다. 돈의 흐름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어 가는 '사회적 책임투자(SRI)' 가 점차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일본의 사회적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한국의 「사회적 기업육성법」에 주

목하고 있다. 법률이나 제도를 만드는데 엄청난 시간이 소비되는 일본에서는 잇달아 법률이 제정되는 한국을 경이롭게 보는 사람도 적지 않다. 최근에는 한국에서 관계자를 초청해 심포지엄을 갖거나, 한국으로 직접 조사를 하러 가는 경우도 늘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 다녀온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다이나믹한 활동과 전개에 압도되었다면서 시민단체들 간의 네트워크에 감탄한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일본에는 NPO법인이 38000개 이상 있지만, 네트워크를 만들고 함께 사업을 하는 일은 그다지 많지 않다. 대신에 다양한 분야에서,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규모는 작지만 착실하게 활동도 계속하고 있는 단체들이 대단히 많다. 워커즈 코퍼레이션, 워커즈 컬렉티브 등은 각자 오랫동안 견실하게 활동을 계속해온 사회적 기업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협동 노동의 협동조합」 법제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협조하게 되었다고 한다. 게다가 이들 협동조합계의 사회적 기업과 소셜 벤처형의 사회적 기업은 거의 접점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일본에서 '연대'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가장 어려운 일일지도 모른다.

'희망제작소'나 '아름다운 재단'의 취지는 과거 한국사회에서 당연한 일이었던 '나눔'의 정신과 습관을 현대사회에서 회복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는 그야말로 지금 일본에서 더 필요한 활동이 아닐까 생각된다.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필경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사회를 재생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 간의 유대를 소생시켜 보다 공고히 만드는 네트워크 구축이 급선무일 것이다. *

노동 양극화의 숲에 가려져 있던 '일하는 사람들'의 각박한 삶

양극화시대의 일하는 사람들 - 환경미화원에서 변리사까지

심 지 영 희망제작소 대안센터 연구원

이병훈, 윤정향, 김종진, 강은애 지음.
창비, 2008

한 개인의 삶에서 '일'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 우리가 태어나서 일을 하는 기간은 평균적으로 약 30년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한해 평균 노동시간은 2357시간… 생애의 3분의 1 이상, 수면 시간을 제외하면 일상의 절반 이상 일을 하며 보내는 셈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2370만 9000명의 '일자리'의 면면은 어떠할까.

희망제작소 '우리시대 희망찾기' 시리즈 다섯 번째 편인 '양극화시대의 일하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 '서열화된 일자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생생한 목격담이다. 음지와 양지로 양분된 노동 환경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어떤 아픔과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지 세밀히 들여다 본다. 일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우리는 어떤 노동 조건에 처해 있는지, 임금수준과 고용의 질에 따라 삶의 양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그 속에서 최소한의 권리는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체험이 녹아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정규직 가운데서도 직접고용과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를 대상으로 선정된 28인의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우리 모두의 삶과 맞물려 있는 이웃들의 삶이기에 쉽게 공감이 간다. 기간제 교사, 생계형 청년 아르바이트생, 영세 자영업자, 노인 경비원,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취업 준비생, 공기업 직원, 변리사 등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하여 노동 현장의 일상적인 삶에 밴 좌절감과 분노, 불안 심리를 드러냈고, 이를 통해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역으로 포착하고 있다.

실업자 100만 시대, 한편에서는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는데 온갖 정책이 동원되는 기형적인 현실 속에서, 이미 일자리를 가진 자, 소위 '좋은 일자리'를 가졌다는 사람들의 삶조차도 각박해지고 있음을 드러내는 대목은 양극화 시대, 양지의 일자리도 결코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뼈아픈 실상을 대변하는 게 아닐까. 비록 이 책이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을 제대로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통계의 수치 속에 묻혀 피상적으로만 그려지던 노

동계의 문제들을 현장의 민초들의 삶에 천착해서 들여다봤다는 점에서 노동의 문제가 곧 우리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고, 무엇보다 절실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임을 공감케 한다.

"그 사람이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백로야 고라니야, 내가 지켜줄게 - 시화호의 기록자 최종인

정 송 정 아 희망제작소 웹미디어센터 연구원

1987년, 당시 나는 여덟 살이었다.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공장이 흩어져 있던 지역에 살았다. 우리 집의 담장은 공장을 면하고 있었다. 방 침대에 올라 창문을 열면 옆 공장의 마당이 훤히 들여다보였다. 점심시간에 족구를 하거나 삼삼오오 오가는 그들을 멀뚱히 구경하던 어느 날, 세 명의 '아저씨' 들이 내 방 창가로 다가왔다. 화장지를 달라고 했다. 두루마리 화장지를 건네니, 까만 손 안에서 마술처럼 흰 장미꽃 한 송이가 피어났다. 나는 화장지로 만든 흰 장미를 선물로 받았다. 그들의 손은 기름때로 인해 까맣고, 무리엔 외국인 노동자도 섞여 있었지만, 이질감보다는 히죽 웃으며 종이꽃을 건네는 20대의 밝은 인상만이 남았다.

이현구 지음 | 푸른나무, 2008

〈백로야 고라니야, 내가 지켜줄게〉의 주인공인 '시화호 지킴이' 최종인씨는 젊은 시절, 서울과 안산 등지에서 공장자동화설비 기술자로 일했다. 쉬는 날 곧잘 구리선을 꼬아 장미꽃 모양의 장식품을 만들었다던 그의 젊은 시절은, 10년의 시차를 두고 내 여덟 살의 기억과 포개진다. 그런데, 손재주 많던 기술자가 어떻게 시화호의 환경지킴이가 됐을까. 그것도 공룡알 화석의 진위여부를 밝혀내 정부가 보호구역을 지정하게 하고, 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 다큐멘터리를 공동으로 촬영하고 자문하는, 전문가가 인정하는 최고의 전문가가. 그것은 가진 것 없던 그에게도 무엇이든 내주었던 바다에 대한 애정 때문이었다.

"안산에 있는 공단에서 일감을 맡아 작업한 적이 있어요. 시화방조제를 건설하기 전이었

죠. 안산 고잔동 신도시 역시 그때는 모두 갯벌이었어요. 점심시간이나 일이 끝난 뒤면 온몸에 흙탕물을 묻혀 가면서 망둥어 낚시를 했어요. 지금도 그때 생각이 나요." (p.110)

그에게 바다와 갯벌은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 생명이 함께 뛰놀던 곳이었다. 고단한 젊은 기술자에게 마음의 위안을 주던 바다는, 그러나 공장 주변에서 유출되는 폐수 때문에 점점 오염돼 가기 시작했다. 그 모습에 문제의식을 느낀 그는 공해추방운동본부, 환경운동연합에서 봉사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즈음인 1994년, 시화방조제가 완공되었다. 바닷물을 막아 생긴 거대한 간석지에 농업단지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담수호를 통해 용수를 공급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에서 폐수가 흘러들었고, 1996년 물고기 수십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하면서 시화호는 '죽음의 호수' 로 불리기 시작했다.

결국, 2000년 정부는 공식적으로 담수화 계획을 포기하고 시화호는 다시 바닷물이 드나드는 해수호가 되었다. 이후 시화호의 생태계는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했지만, 그 과정에는 최종인씨를 비롯한 환경운동가들의 지난한 투쟁이 있었다. 최종인씨는 지금도 이름을 바꾼 채 계속 등장하는 새로운 개발정책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

경제적 어려움에 허덕이고 주민들과 불화를 겪으면서도 고집스러우리만치 안산의 생태계를 지키고자 했던 '시화호의 기록자' 최종인. 책에 그려진 그의 바쁘디 바쁜 활동상을 쫓다 보면, 고독한 작업으로 얻어진 보물 같은 자료들을 수많은 다큐멘터리를 통해 '공짜' 로 보고 있다는 점이 미안하게 여겨질 정도이다. 전방위적 개발의 압력에 맞선 대가 없는 그의 노력이 숭고하게 여겨질 정도이다.

이 책은 한 환경운동가의 집념의 기록이자, 우리나라의 개발정책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지점들을 현장을 통해 보여주는 한 편의 교과서이다.

마을에서 마을로 이어지는 여행 그리고 삶의 기록들

박원순의 희망탐사 1 - **마을에서 희망을 만나다**

흔히 여행을 즐기지 않는 사람들의 변명은 '어디를 가든지 다 똑같다' 는 것이다. 겉만 훑어본다면 어쩌면 맞는 말일지도 모른다. 허나 바람도 산을 타고 넘어오는 바람, 평지를 곧게 건너서 부는 바람이 다르고, 흐르는 물도 다른데, 심지어는 꽃 한 송이도 여기 피는 것과 저기 피는 것이

다 다른데, 어찌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어디든 '다른' 사람들이 있다. 다른 사람들이 지어내는 저마다 다른 삶은 마을 깊이 들어가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겉모습만 즐기다 오는 '관광' 이 아니라 정말 마을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는 '여행' 을 하고 싶은 이들에게는 이 책이 꼭 필요할 것이다.

박원순 지음 | 검둥소, 2009

우선은 이 책이 책상머리에서 쓰인 것이 아니라는 게 반갑다. 저자인 박원순 변호사가 2006년부터 시작해서 2년 반 동안 시간 날 때마다, 때로는 없는 시간도 만들어서 전국 방방곡곡 마을을 찾아서,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기록하고 자료를 모아서 썼다고 하니 보통 정성과 땀이 밴 기록들이 아니다.

그는 왜 이렇게 힘든 여행을 시작했던 것일까? 프레시안 연재를 마치면서 쓴 글 중에 이런 구절이 있다.

"우리의 지역사회는 지난 근대화의 결과로 이렇게 송두리째 뿌리 뽑혀져 버렸다. 서로 함께 돕고 함께 교류하고 함께 살아갈 공동체가 사라져 버린 것이다. 농촌과 지역의 사람들은 언제 떠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고, 도시의 사람들은 서로 앞집에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우리 모두는 공동체와 정주성을 상실한 채 부평초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그곳에 희망이 있음을 믿는다. 무엇보다도 훌륭한 풀뿌리 활동가들과 좋은 사람들이 지역 안에서 희망의 씨앗을 품고 자신의 지역과 동네를 되살리고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땀방울을 흘리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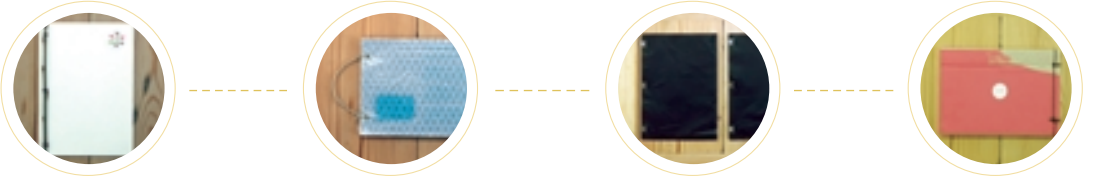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깃발을 부여잡고 자신의 지역과 한계상황 속에서 농민과 상인, 문화인과 예술가들, 교육자들, 언론인과 시민운동가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그들로부터 뭔가 희망을 찾을 수 있으리라는 내 믿음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자가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기록하는 여행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찾고 싶었던 것은 우리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 줄 수 있는 희망이었던 것 같다.

희망이 사라진 시대라고 한다. 저마다 한숨만 나온다고 한다. 힘들어서 외롭다고들 한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면 어쩐지 덜 외롭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우리와 같은 시대에 발을 딛고, 환경의 핍박에 굴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지역의 삶,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그들과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뭉클한 위안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

그린 디자이너와 함께 배우는 에코노트 만들기

김 진 수 희망제작소 그린 디자이너



희망제작소는 거창한 이론과 접근에 앞서 우리 사무실에서 우리부터 생각을 바꾸고 작은 변화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적게 쓰고reduce, 다시 쓰고reuse, 재활용recycle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에코오피스eco-office 만들기를 선언합니다. - 2007년 희망제작소

에코오피스가 선언되고 우리 연구원들이 처음 한 일은 에코노트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혁신적인 슬로건과 계획도 아니고 거대한 담론도 아닌 에코노트였습니다. 희망제작소 사무실 곳곳에 넘쳐나는 이면지와 주변에 흔히 널려있는 골판지 박스 그리고 쉽게 버려지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모아 노트로 만들었습니다.

에코노트는 희망제작소가 에코오피스로 거듭나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에코노트는 형식과 스타일이 없습니다. 일정한 매뉴얼에 의한 효율성과 디자인만을 강요하기보단 삶의 방식부터 바꾸어보길 원합니다. 하찮고도 소소한, 쓸모가 없어진 사물에 진심어린 애정과 마음을 담아보길 원합니다.

에코노트는 생태적인 재료와 방법 그리고 용도와 기능 모든 과정을 스스로가 문제해결을 하면서 계획합니다. 그렇게 디자인 되는 에코노트는 사용자가 제작 전과정에 참여해서 서로 다른 자신만의 개성 있는 에코노트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노트. 쓸모를 잃었던 사물들이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부여받아 존재의 경이로움을 지속시켜 나가게 되는 순간입니다.

성장과 기술개발이 물질적인 풍요를 약속한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환경 파괴라는 결과를 낳는다면, 이는 맹목적인 수용의 대상이 아닌 성찰과 반성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위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가져야 합니다.

환경문제 해결은 선진국이나 부유하고 힘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일상을 되돌아보며 작은 것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을 때 조금씩 변화될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에코노트를 만들어 보아요~*

eco-note 만드는 법

01

에코노트를 만들 재료가 되는 이면지,
주인 없는 박스, 좋아하는 사진 등을 찾아봅니다.

02

이면지인 A4용지를 반으로 접어서
끈을 묶을수 있게 펀치로 구멍을 뚫어줍니다.

03

표지로 쓸 재료는 전자부품을 봉해두었던 투명 비닐입니다.
역시 펀치로 구멍을 뽕뽕 ~

04

마지막으로 뒷 표지를 장식할 바나나 박스도 구멍을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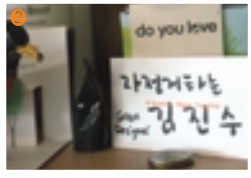
이젠 표지와 내지 그리고 뒷 표지를
순서대로 쌓아서 버려졌던 끈으로 묶어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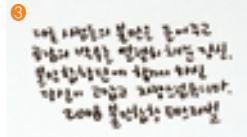
06

자! 완성되었습니다.
표지로 쓰인 비닐에 좋아하는
사진이나 잡지를 찢어 넣으면
매번 새로운 표지를 구성할 수 있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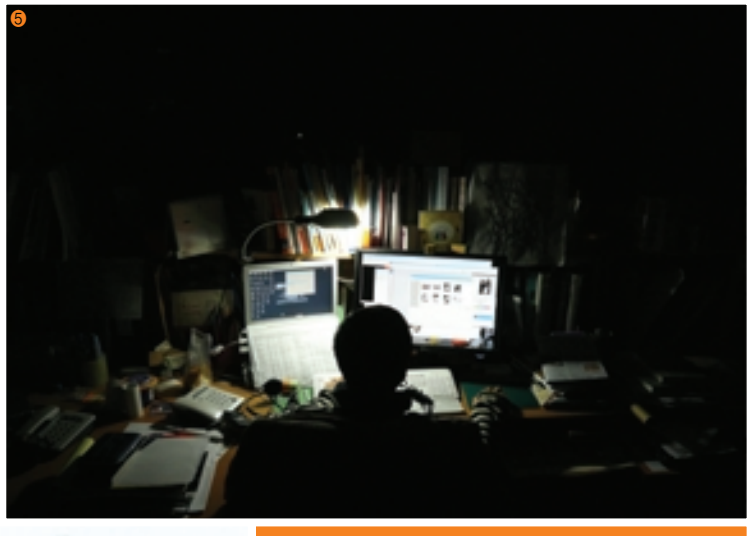
세상 어디에도 없는, 오직 여기에만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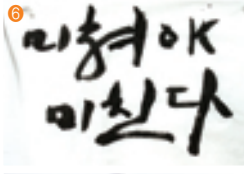
글/ 김 수 종 희망제작소 전문위원, 전 한국일보 주필





희망제작소는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특이한 조직이다.
영어로 'Hope Institute', 즉 연구소다.
그런데 사회통념으로 생각하는 그런 연구소와는 다르다.
희망제작소는 민간 싱크탱크를 지향한다.
정부나 기업의 입김으로부터 독립한 민간 싱크탱크를 지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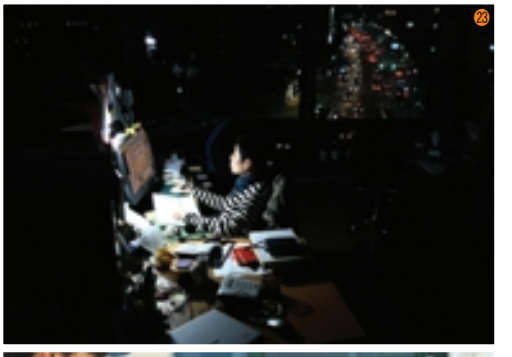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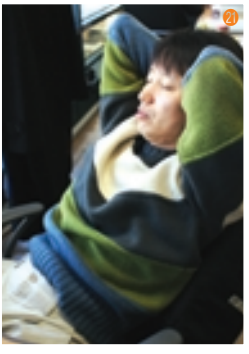


연구방법도 실사구시(實事求是)를 추구한다.
쳇바퀴 돌듯 하는 거대담론이나 심오한 학문을 다루지 않는다.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을
현장 중심으로 연구하고 해법을 찾는다.
피폐해지는 지방과 농어촌의 자원 재활용 방안,
젊은이들의 창업아이디어 숙성하기,
전문퇴직자의 경험 재활용, 혼란스런 간판 정리하기 등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필요하지만
효율성이란 이름 아래 정부도 기업도 거들떠보지 않은
문제들을 찾아 나선다. 그래서 연구부서 이름도 색다르다.
대안센터, 뿌리센터, 공공문화센터, 소기업발전소 등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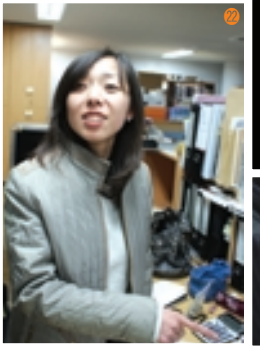
❶ 책 나눠주기 이벤트 일명 '도요새 책방' ❷ '두 유 러브' 자전거 타는 김진수 디자이너 책상. 손글씨 명함 ❸ 불만합창단 김이혜연 손글씨 ❹ 무너지면 재난 상황? 재난관리 최희천 ❺ 야근 ❻ 요즘 손글씨 공부에 심취한 김이혜연 손글씨 ❼ 6층 사무실 벽에 있는 손글씨 ❽ 온돌방에서 낮잠 자는 피곤한 김홍길 ❾ '희망'을 들고(?) 활짝 웃는 박원순 상임이사 ❿ 버럭 도심 '착한 도심'으로 설정 샷 ⓫ 누워서 일하는 기메연, 옆에서 잠든 김홍길 ⓬ 멀어지는 눈, 모희정 ⓭ 김경환 웹미디어센터장 책상 ⓮ 색소를 머금은 웹팀 조국진 팀장 ⓯ 상임이사와 웹 집중회의 ⓰ 연회 주최! 명랑 탁구대회 명화와 승현 ⓱ 멀어지지 않아서 슬픈 눈!! 이재흥 ⓲ 담소를 나누는 모희정, 김연희. 김연희는 며칠 전 득녀! ⓳ 출판팀 이원혜 책장 위에 ⓴ 비니가 어울리는 그린 디자이너 김진수 ㉑ 잠시 눈 붙인 한순웅 팀장 ㉒ 책 판매하러 모울에 내려가는 박수현 ㉓ 뉴스팀 정송정 아는 야근 중 ㉔ 6층 온돌방에서 심각하게 회의중

희망제작소의 모든 정규직원은 '연구원'이다.
아울러 그들의 명함엔 '사회디자이너'란 직함이 찍혀 있다.
연구원들 중엔 박사도 더러 있지만
다른 연구소처럼 학위를 위주로 한 연구조직은 아직 아닌듯하다.
대부분 연구원들은 배낭을 지고 현장으로 잘 나다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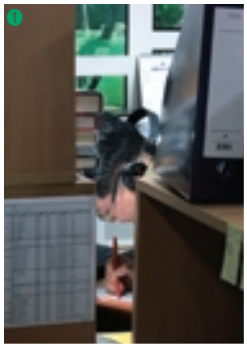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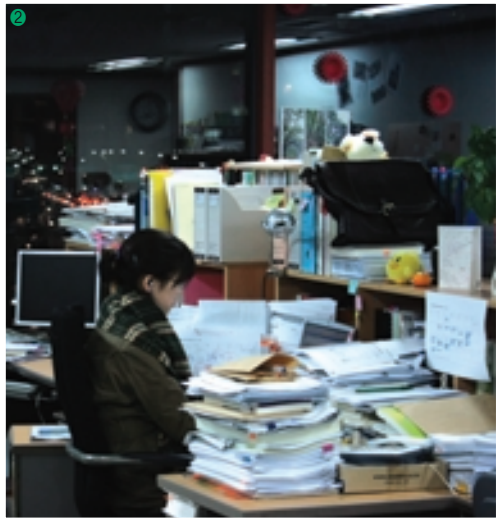


찬란하게 빛나는 연구소가
아니지만 밤늦게 희망제작소는
연구원들이 프로젝트에 몰두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그 연구원들 중에는
희망제작소를 이끄는
박원순 상임이사도 있다.
그는 낮에는 후원회원
모집하러 다니다 밤에는
슬리핑백을 펴놓고 자면서
그의 연구 과제를 정리한다.



희망제작소 24시





희망제작소에는 '모울'이 있다. '모이다'에서 나온 말로, 집회가 열리는 공간을 말한다. 100명만 자리를 잡아도 꽉 차 버리는 강당이지만 이곳은 희망제작소를 상징한다. 각종 강연회와 세미나가 오후마다 거의 열린다. 때로는 캐슬린 스티븐슨 주한미국대사 같은 거물도 연사로 초청되지만 대부분 주류사회로부터 먼 곳에 떨어져 열심히 독특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초청된다.

매월 첫 월요일 아침 희망제작소 사람들은 모울에 와글와글 다 모인다. 한 달 동안 일해 나갈 방도와 계획을 공유하는 자리다. 결혼 등 좋은 일이 있는 사람이 이날 회의에 빵과 음료를 제공하고 연구원들은 그걸 먹으며 회의에 참석한다. 회장이나 사장이 근엄하게 중심에 위치하여 진행되는 일반 기업의 집회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넥타이를 맨 사람은 드물다. 두 시간동안 별 이야기들이 다 나온다.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을 누군가에 선물하는 이벤트도 있다. 엔터테인먼트도 있고, 반성도 있고, 심각한 논쟁도 있다. 그리고 연구소를 운영할 자금 문제도 논의한다.

❶ 열공 모드! 홍일표 대안센터장 ❷ 에브리데이 야근하는 심여사 ❸ 웃을까 말까, 대안센터 선경 ❹ 후원현황표 앞에서 명화,기연 ❺ 인턴 면접 중, 기획실 이성은 ❻ 사회창안 업무 논의하는데, 책장 너머 보이는 사람은 누구? ❼ 명화, 상훈,기연은 삼남매? ❽ 김해창 부소장 너머 이수빈 센터장 ❾ 예쁜 스탠드가 있는 김신형 선생님 자리 ❿ 즐거운 점심시간! 4층에 모인 일명 '윤봉길파' ⓫ 김수종 전문위원 ⓬ 물 나르는 김이승현은 오늘 당번 ⓭ 손님을 안내하는 박원순 상임이사 ⓮ 뿌리센터 연구원들 ⓯ 꽃보다 상훈,득녀 축하! ⓰ 해피시니어팀 ⓱ 5층 자료실에서 현지에게 들이대는 기웅 ⓲ 이용규 팀장, 무슨 생각하세요? ⓳ 커피 먹는(?) 정성원 실땅님! ⓴ 심각하게 회의 중 ㉑ 희망아카데미팀 ㉒ 기후환경팀 ㉓ 기후환경 홍선팀장 ㉔ 당직은 싫어요! ㉕ 회의중인 공공문화 안선, 박상현

두 시간 동안 계속되는 회의가 끝날 무렵에 사회자가 말한다. "우리 한 번 원순씨의 생각도 들어볼까요?" 희망제작소를 대표하는 박원순 상임이사가 이때야 앞으로 나가 한마디 격려사 같은 말을 한다. 씩 웃으며 툭 던진다. "뭐 잘들 되고 있죠?" "전 언제라도 떠날 겁니다. 여러분들 자생력을 준비하세요."

연구원들의 밝은 얼굴은 출근할 때나 퇴근할 때나 변덕이 없다. 고민도 많을 텐데, 젊어서 그런가. 그들의 상상력이 모이면 재미있고 유익한 일들이 벌어질 것도 같다.

"나는 를 희망합니다"

나는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희망을 갖고 많이 웃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나는 제작할 희망이 더 이상 없는 세상을 희망합니다.

강미혜, 박상원, 신한카드 기업제휴팀 부부장(左), 차장(右), 신한 사회공헌카드 아름人

나는 기부문화 선진화로 사회를 바꿀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류무종, 기부문화도서관장, ㈜다아몬드치재, 회장

나는 학사농장처럼 잘 사는 농민들이 많아지기를 희망합니다

강용, 학사농장 대표, 전남대학교 응용생물학부 교수

나는 은근하고 꾸준한 사랑이 넘치는 세상을 희망합니다.

류수근, 메트로신문사 편집국장

나는 아름다운 시니어들이 공익을 위해 땀 흘리는 세상을 희망합니다.

김신형, 희망제작소 해피시니어

나는 희망이 희망답게 여겨지는 세상을 희망합니다.

만종, 스님

나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삶을 살기를 희망합니다.

김애록, 17년차 주부

나는 제 블로그를 통해서 서남아시아 아이들에게 학교를 한 채 지어줄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문성실, 김용민, 김보윤, 김보성, 문성실의 이야기가 있는 밥상, 문성실 닷컴

나는 대한민국이 금융과 지적재산권으로 지구촌에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김영선, 국회의원, 정무위원장

나는 준비하고 깨어있기를 희망합니다.

문승국,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나는 우리가 자신 못지않게 남을 생각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김일섭, 달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장

나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것을 희망합니다.

박병배, 알파문구 안국점 대표

나는 '돈' 도 '권력' 도 아닌 '사람' 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희망합니다.

김재윤, 국회의원

나는 우리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박선숙, 국회의원

나는 인간이 인간답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을 희망합니다.

서명숙, 제주올레 이사장

나는 신발이 아니라 희망이
전 세계로 팔려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임동준, 탐스슈즈 대표

나는 눈물의 커피가 희망의 씨앗이 되는
그 날이 오기를 희망합니다.

신충섭, 아름다운커피 사업국장

나는 희망제작소가
'화이팅' 하는 모습을 희망합니다.

전자영, 용인 시민신문, 취재부, 부장

나는 지식과 정보가 나비처럼
자유로운 세상을 희망합니다.

유종필, 국회도서관 관장

나는 우리들의 의식, 우리들의 힘이
조금 더 강해지기를 희망합니다.

지은희, 덕성여대 총장

나는 자동차가 자전거를 위협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나는 산책할 수 있는 숲과 공원이 더욱 많아지기를 희망합니다.
나는 '다름'과 '틀림'이 늘 공정하게 구별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나원, 정다운, 김문화, LG전자, 그래픽디자이너

나는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웃는 날이 오기를 희망합니다.

최영란, 이화여대 교육학과, 강사

history

희망제작소가 걸어온 길

The History of Hope Institute

2005

08.08 **희망제작소 설립 제안**
09.05 창립 준비위원회 구성, 1차 회의
10.05 준비위원회 2차 회의
11.04 준비위원회 3차 회의
12.01 서울 종로구 수송동 동일빌딩 사무실 입주 (준비위 해소, 연구원 5인 상근 시작)
12.21 연구기획위원회 1차 회의

2006

01.09 연구원 1기 공채
01.19 목요포럼 시작, '미국의 싱크탱크를 가다'
02.09 상근 연구원 워크숍(제주도), 부서별 자문위원회 구성, 뿌리포럼 등 내부 세미나, 인턴 1기(20명) 활동 시작
02.25 희망제작소 창립 발기인 총회
03.06 전국 순회 지역 연석회의(10일까지)
03.23 목요포럼, '세계 싱크탱크의 흐름과 삼성경제연구소의 경험으로 본 성과와 한계'
03.27 **희망제작소 창립**, 창립기념 사진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희망씨' 개최, 창립기념 국제세미나 '싱크탱크와 우리시대 희망찾기' 개최, 사회창안센터 시민참여 아이디어 '임산부 배려 캠페인' 시작, 대안센터 '우리시대 희망찾기' 프로젝트 시작
04.04 미국 싱크탱크 방문(11일까지)
04.14 연구원 워크숍(천리포 수목원)
04.23 일본 지역만들기 관련 단체 방문(27일까지), 연구원 2기 공채, 희망제작소 CI 확정
05.01 '작은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꿔라' 시민 아이디어 공모
05.03 세미나 '살기 좋은 국토공간 만들기' 개최, 박원순 상임이사 '내 고장 희망찾기' 지역순례 시작, 인턴 2기(12명) 활동 시작
05.30 희망모울 '한강, 그 흐름을 네트워킹하라' 개최
06.15 '시장학교' 개최, '임산부 배려 캠페인' 심볼 디자인 공모, '지역연구사업' 공모, 희망모울 '5 · 31지방선거, 그 희망의 뿌리를 찾아서' 개최, 세계도시라이브러리 시민참여프로그램 '누리술래단' 모집
07.04 인턴 3기(30명) 활동 시작
07.21 희망모울 '한미 FTA, 내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개최
07.22 조례연구를 위한 워크숍
07.23 일본 싱크탱크 방문(28일까지)
07.26 누리술래단 1기 활동보고회
07.28 사회창안센터 1기 시민평가단 위촉
08.01 사회창안센터 '관용차 개선 캠페인' 시작
08.08 현대기아자동차 사회공헌 컨설팅
09.05 희망제작소 부설 세계공원연구소 창립
09.14 희망제작소 부설 조례연구소 창립
09.29 희망모울 '천재 그리고 인재,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
10.11 자치재정연구소 설립을 위한 1차 워크숍

10.16 사회창안센터 '더 좋은 수학여행을 위한아이디어' 공모
10.23 희망아카데미 '순천시 공무원 학교' 개최(200명, 11.22까지)
11.01 자치재정연구소 설립을 위한 2차 워크숍
11.06 글로벌브레인투데이 웹진 준비 1호 발간
11.15 사회창안센터 2기 시민평가단 위촉
11.20 세계공원연구소 '시티 다큐' 세미나, 대한생명과 '해피시니어프로젝트' 협약 체결
11.21 한일 컨퍼런스 '지역만들기 지원제도의 현황과 과제' 개최
11.23 '우리시대 희망찾기' 7개 영역 연구진 회의
11.24 사회창안센터 와글와글포럼 '유통기한 표기 개선' 개최
11.25 외국인, 재외동포 객원연구원(희망벗들)을 위한 오픈하우스
12.01 세계도시라이브러리 웹사이트 아이템 공모, 사회창안클럽 첫 모임, '사회창안상' 시상식
12.08 사회창안센터 시민평가단 총회
12.13 자치재정연구소 설립을 위한 3차 워크숍
'지역연구공모사업' 최종 자문회의
12.15 2007 연구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원 워크숍
12.18 사회창안센터 임산부 배려 길거리, 온라인 캠페인 시작, 사회창안센터 '어린이의 권리' 신장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12.19 희망제작소 정기 이사회, 희망지역만들기 장흥 '슬로우월드' 주민 설명회
12.20 사회창안센터 제2회 와글와글포럼 '수영장 등, 스포츠시설에서 여성피해 문제' 개최
12.21 희망제작소 후원회원 송년회
12.22 인턴 4기(25명) 활동 시작

01.03 시무식
01.05 '아름다운 간판 만들기' 원년 선언, '아름다운 간판이 아름다운 도시를 만듭니다' 방송 캠페인
01.10 지하철 개선 프로젝트 시작
01.11 용산 미군기지 공원화 모색을 위한 토론회
01.24 자치재정연구소 창립기념 세미나, 희망아카데미 1기 의원학교
01.30 간판문화연구소 창립
01.31 지방의원학교 개최(1박2일), 2006 사회창안 아이디어 총결산 시상식
02.05 해피시니어 자문위원 위촉식
02.14 세계도시라이브러리 웹사이트 오픈
02.28 자치재정연구소 창립 기념 세미나
03.01 금강산 워크숍(1박2일)
03.08 KBS 시청자 칼럼 · 희망제작소 공동기획 '희망제안' 방송 시작
03.14 홍익대 · 아름지기 · 희망제작소 공동진행 '공공디자인 컬로퀴엄' 시작
03.18 지하철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마감
03.21 제1회 조례연구소 월례포럼 개최
03.24 재난관리연구소 1차 준비위원회
03.27 희망제작소 창립 1주년 기념 '방문의 날' 개최
03.28 1000번째 프러포즈, 사회창안상 시상, 희망제작소 창립 1주년 기념 세미나
04.10 희망제작소 · 프레시안 공동기획 '박원순의 희망탐사' 연재 시작
04.11 재난관리연구소 창립기념 세미나
04.20 재난관리연구소 창립
04.26 자치재정연구소 '국가재정' 토론회
04.26 조례연구소 2차 월례포럼
05.01 '희망순천 2020' 마인드 교육 시작
05.08 한국일보 · 희망제작소 · 행정자치부 '국민제안 민관공동 프로젝트' 협약
05.14 희망제작소 · 충청남도 '포괄적인 협력관 컨설팅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05.15 서울메트로 · 도시철도공사 · 행자부 '더 좋은 지하철 만들기' 포럼
05.17 제1회 자치재정 월례포럼
05.25 일본 마을만들기 관련 뿌리총서(5권) 출판기념회, 강연회
06.04 소기업발전소 창립 준비를 위한 1차 운영위원회

2007

06.05 시민의 아이디어와 함께하는 국회의원 모임 '호민관클럽' 결성식
06.07 자치재정연구소 월례포럼
06.19 제1기 간판디자인학교 개최, 와글와글포럼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음성유도기 문제'
06.30 일본희망제작소 창립식
07.05 자치재정 월례포럼 '지역사회복지비 지출에 대한 분석'
07.09 소기업발전소 창립식, '제1기 해피리포터 양성 워크숍' 개최
07.10 강원도 정선군 지역리더 아카데미 일본 연수
07.13 '우리시대 희망찾기' 제1권 〈우리는 더 많은 민주주의를 원한다〉 출간(창비)
07.19 농총희망본부 창립 기념 세미나
08.01 재난관리연구소 홈페이지 오픈
08.05 '꿈의 대화' 아름다운 전시회 후원
08.28 전국 NPO 리더들을 위한 제1차 워크숍
09.10 제1기 행복설계 아카데미 개최
09.12 (주)동훈 기증 '달리는 희망버스' 발진식, 공공리더들이 직접 보고 느끼는 공공디자인학교 출범
09.18 노원구 공무원들의 우수 아이디어 현실화를 위한 포럼
09.21 '지역희망찾기' 연구공모사업 시리즈(8권) 발간, 한겨레 · 희망제작소 공동기획 '걷고 싶은 거리만들기, 보행권을 되찾자'
10.08 지식관리시스템(KMS) 1차 오픈
10.19 농촌희망본부 '농촌이주 도시민과 지역주민 하나되기, 화합과 상생의 길' 학술 세미나
10.25 '비농업인이 바라본 한국 농업 · 농촌의 미래' 연속 강좌 시작
10.27 좋은간판상 · 간판별동대 '9월의 간판' 선정
10.30 희망을 여는 사람들 1권 〈수십만의 직원을 둔 기업가〉 발간(푸른나무)
11.02 '대한민국 최고의 농업고수로부터 듣는다' 연속 강좌(박동복) 시작
11.05 사회창안센터 '작은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꿔라' 이벤트 시작
11.08 재난관리연구소 국제 학술회의, '시민 보호를 위한 국제 재해구호 거버넌스와 재난관리 협력체계' 개최
11.21 행자부 · 희망제작소 공동 지역홍보센터 개관
11.28 소기업발전소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CSR 혁신전략' 국제포럼
11.29 해피시니어 '중고령 퇴직자의 일의 의미와 사회적 공헌활동' 심포지엄
12.10 2007 최고의 아이디어 선정
12.20 제1기 해피리포터 수료식, 사회창안센터 송년의 밤
12.27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련 심포지엄 '좋은 준비, 좋은 정부' 개최

2008

01.01 '대한민국 최고의 농업고수로부터 듣는다' 연속강좌(김대립)
01.08 제1차 희망소기업 충전식
01.10 희망을 여는 사람들 2권 〈때로는 눈먼 이가 보는 이를 위로한다〉 발간(푸른나무)
01.11 〈인수위 67일이 정권 5년보다 크다〉 발간(중앙북스)
01.17 '비농업인이 바라본 한국 농업, 농촌의 미래' 연속강좌(박석무)
01.22 지역희망찾기 시리즈 8권 완간
01.24 정부조직개편 긴급토론회
01.25 세계도시탐방단 발대식
02.13 '세계지역재단 현황과 지역재단의 미래' 세미나
02.19 '또 하나의 소중한 자산, 퇴임 대통령' 세미나
02.21 '비농업인이 바라본 한국농업 농촌의 미래' 연속강좌(천호균)
03.19 '새 정부 인사정책에 대한 평가와 대안' 긴급토론회
03.25 E-민주주의 포럼 '세계를 바꾸는 블로그, UCC'
03.26 '한국형 지역재단을 모색한다' 세미나
03.27 희망제작소 창립 2주년 기념식
04.01 '소시지팩토리' 강연 '세계 MBA는 소셜벤처를 주목한다' (이철영)
04.08 제2기 해피리포터 발대식
04.17 '비농업인이 바라본 한국 농업, 농촌의 미래' 연속강좌(양희규)
04.22 일본 공공디자인 현장 투어
04.23 '풀뿌리 지역재단이 희망이다' 강좌(윤정숙)
04.24 '46점짜리, 위기의 민주주의를 구하라' 긴급토론회
04.28 '강진군 물결푸른 풍경 만들기' 컨설팅 보고회
04.29 E-민주주의 포럼 '한국사회 인터넷 커뮤니티의 한계와 비전'
05.09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칭찬 학습법〉 출간(이매진)
05.13 미국 싱크탱크 연구서 〈세계를 이쓰는 생각〉 발간(중앙북스)
05.14 행복설계아카데미 4기 입학식
05.16 희망펠로우 1기 오리엔테이션
05.22 '공동체라디오 정규사업 도입을 위한 방안' 전문가 토론회

2009

05.23 '소시지팩토리' 사회적 기업가 5차 세미나
05.26 인턴 6기 모집
05.28 '우리시대 공공리더 9인9색' 연속강좌(윤정숙)
05.29 불만합창단 조직을 위한 설명회
06.03 자치재정 월례포럼 '성인지예산제도의 이해와 쟁점'
06.20 좋은 시장학교 1기(39명) 모집
07.16 '우리시대 공공리더 9인9색' 연속강좌(안병옥)
07.21 노원구청 · 희망제작소 공동포럼
07.22 호민관클럽 창립, E-민주주의 포럼 '지방정부 전자민주주의를 해부한다'
07.24 통번역 자원봉사단 희망고리 1기(30명) 모집
08.15 사회창안대회 아이디어 공모(09.15까지)
08.22 한일 사회적기업 심포지엄
08.27 커뮤니티비즈니스연구소 창립 포럼
08.28 호민관클럽 시민창안 1호 법안 입법 발의
09.02 삼선자치단체장 포럼(임수진)
09.11 '대한민국 최고의 농업고수로부터 듣는다' 연속강좌(김성훈)
09.18 커뮤니티비즈니스 한일포럼(09.19까지)
09.22 공공디자인 유럽연수(영국, 독일 편)
09.24 희망을 여는 사람들 3권 〈고삐 풀린 망아지, 옥천에서 일내다〉 발간(푸른나무)
10.06 '지역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구축은 가능한가' 특강(존번)
10.08 사회창안주간, 사회창안 국제회의(10.11까지)
10.11 불만합창 페스티벌
10.16 '글로벌사회에서의 위기관리' 학술회의
10.21 제2기 소셜디자이너스쿨(SDS) 개강
10.28 아시아 사회적기업 활동가대회 공동 개최
11.06 2008 대한민국 좋은 간판상 대상 시상식
11.11 제4회 공공디자인전(11.13까지)
11.14 '수도권 규제완화-공멸인가 경쟁력 강화인가' 긴급토론회
11.26 2008 경기 간판디자인학교(12.18까지)
12.01 후원회원 감사의 밤
12.04 에너지 전문가 테드 플래니건 특강
12.06 소시지팩토리 사회적기업 페스티벌
12.15 희망을 여는 사람들 4권 〈백로야 고라니야 내가 지켜줄게〉 발간(푸른나무)
12.19 '비농업인이 바라본 한국 농업, 농촌의 미래' 연속강좌(이영혜)

01.06 신년 특강(신영복)
01.12 2009 해외연사초청 특별강연 '교육에서 희망찾기'
01.16 신년 특강(도법)
01.22 행복설계포럼 '시니어를 위한 유지나의 시네토크'
신년 특강(장하성)
01.23 한국지방신문협회 · 희망제작소 공동기획 '행정체제 개편' 토론(제주도)
01.29 신년 특강(윤여준)
02.03 2차 희망소기업 충전식(17개 기업)
02.02 한국지방신문협회 · 희망제작소 공동기획 '행정체제 개편' 토론(경기)
02.05 한국지방신문협회 · 희망제작소 공동기획 '행정체제 개편' 토론(전북)
02.12 한국지방신문협회 · 희망제작소 공동기획 '행정체제 개편' 토론(강원)
02.19 해외연사초청 대화마당 '사할린 한인 정의복권재단 이사장 김복권'
02.24 불만합창단 2기 모집
02.26 행복설계포럼 '삶, 내 길을 찾아 떠나는 여행!' (서명숙)
03.04 희망제작소 · 국회도서관 학술정보 상호협력 조인식
03.17 행복설계포럼 '당하는 죽음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을' (최준식)
제9기 행복설계아카데미
03.24 희망제작소 창립 3주년 기념 후원의 밤 '…그래도 나는 희망한다'
03.27 희망제작소 창립 3주년

잃어버린 소(所 or cattle)를 찾아서

희망제작소 간판 수난기

정송정아 희망제작소 웹미디어센터 연구원

2008년 6월 10일이었다. 희망제작소 채널간판 중 '소' 가 없어진 날은(채널간판은 글자 간판을 뜻한다. 업계에서는 '잔넬' 이라고도 한다).

희망제작소, 이름 이야기

희망제작소는 민간싱크탱크이다. 싱크탱크 앞에 '민간' 이 붙는 이유는 이곳이 정부산하 연구소도 기업 산하 연구소도 아닌 시민사회에 기반을 둔 독립적인 연구소이기 때문이다. 어떻든 희망제작소(希望製作所)는 싱크탱크를 표방하는 곳의 이름으로는 조금 특이하다. 이곳을 알지 못하는 외부인사와 통화하게 될 때면 "네? 무슨 제작소라구요?" 라는 질문을 듣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택배를 보낼 때 수신지를 '희망세탁소' 라고 쓴 사람도 있다. 전화로 듣기에 '희망제작소' 가 너무 거창한 이름이었거나,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리라. '희망세탁소 사건' 은 우리를 웃게 만들었다. '희망세탁소 '라는 장소의 소박함과 '희망제작소' 라는 이름이 담고 있는 포부 사이의 간격이 웃음의 원천이 아니었을까.

'소' 가 사라진 희망제작소 간판. 어떤 이는 이 참에 '희망제작중' 이라는 동적인 이름을 붙이자고 했다.

추적, 잃어버린 소(所 or cattle)

그런데 왜! 누구를 해코지 했을 것 같지 않은, 이 사회에 희망을 만들어내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가진 희망제작소의 간판

이 없어졌을까? 그것도 하필 '소' 자가(만)?

정황은 이렇다. 2008년 5월 2일부터 이어진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는 '학교 자율화 반대'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의료보험 민영화 반대' 등 이명박 정부의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한 반대와 맞물리면서 80%에 달하는 시민(국민)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었고, 한 달 넘게 매일 지속되었다. 밤샘 집회의 규모가 계속 커지자 경찰은 강경한 대응(물대포, 방패진압)을 하고 정부와 여당은 시위대를 불법,해충, 배후세력 등으로 몰아붙이면서 저항은 더욱 거세졌다.

그러던 중 다시, 6월 10일이라는 기억할 만한 날짜(memorial day)가 다가온 것이다. 87년 6월 항쟁 21주년을 맞아 광화문은 전세대, 전계층에서 쏟아져 나온 70만 명의 시민들로 가득 찼다. 양희은씨는 연단에 나와 '다시' 한국현대사의 민주화 터널마다 울렸던 '아침이슬'을 불렀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부르세요~" 이렇게 우리를 추어주면서 말이다. 광장에 모인 70만 명의 사람들은 이 날, '권위주의(군부독재) 정부'에 저항해 민주화를 이뤄낸 이전 세대(시간)와 접속했고, 보다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절실한 마음으로 밤을 지새웠다.

우리는 안국역 사거리에서 더 이상 청와대로 행진하지 못하고 자유발언, 랩, 노래를 하던 시위대가 '소' 자를 발견하고는 떼어간 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다.

"어~ 저기 우리를 이렇게 거리로 나오게 만든 소가 있네. 떼어버리자."

하긴 청와대를 향한 그 수많은 사람들의 분노가 희망제작소의 '소' 자로 일순간에 레이저빔처럼 집중됐다면 그 기운만으로도 저절로 떨어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진짜 소(cattle)를 붙이자

우리는 희망제작소 간판의 수난이 이 혼란스러운 시국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보고 이를 상징 및 기념하기 위해 진짜 소(cattle) 모양의 실물간판을 만들어 붙이기로 했다. 이후에도 촛불시위는 계속되었다.

어떤 토요일엔 전경들이 건물 주차장을 다 점거해버려서 가로로 누운 방패를 하나씩 넘어가야 할 때도 있었다. (오! 맙소사! '전경방패장애물넘기'라니) 스스로 촛불시위 참여자이기도 하기에 도열하고 있는 전경들을 매일 마주치며 "아, 이민 가야겠다"라고 혼잣말을 주억거리기도 했다. 그렇게 '미친 소 국면'은 이어졌고 장마철을 이기지 못한 종이 소(cattle)는 또 떨어졌다. 그리하여 업그레이드된 재질로 지금의 '미친 소 ver2'를 만들게 되었다.

※대한생명은 희망제작소와 해피시니어 사업을 함께합니다.

Love your life, Love your dream

한화금융네트워크
대한생명

희망,
지혜의 숲을
거닐다!

희망제작소가 만든
책 이야기

지역 활동에서 희망을 찾는 사람들이 들려주는 우리 지역 이야기

송산마을 속으로 들어가다

천승룡 외 저 | 204쪽 | 9,000원 | 이매진 | 2007.9.21

2005년 송산마을의 80년 된 한옥 한 채가 젊은 문화인에게 양도돼 '문화공간 오래된 숲'으로 새롭게 바뀌면서 마을 안팎의 사람들이 이곳을 중심으로 모여 각종 문화행사를 진행했다. 이런 노력들이 조금씩 동네 사람들의 믿음을 얻게 되면서 마침내 마을 사람들이 모두 참여하는 대보름놀이까지 이어졌다. 팔순 노인부터 초등학생 아이까지 마을사람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힘을 모아 치르고 이뤄낸 마을의 작은 역사(歷史)가 담겨 있다.

이천동 도시의 옛 고향

최엄윤 저 | 159쪽 | 9,000원 | 이매진 | 2007.9.21

프로젝트 모임 〈소풍〉이 활동하는 대구시 남구 이천동은 재개발에 대해 80% 이상 주민들의 동의를 얻은 상태였다. 그러나 〈소풍〉은 성장과 파괴를 거듭하는 한국의 도시 계획 현장에서 도시의 역사를 남기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다. 그리고 다양한 예술 활동을 통해 주민들과 만나고 그들과 함께 이천동의 오늘을 기록하고 싶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이천동의 오늘과 그 속에서 생생히 일어나고 있는 일상적 문화 활동의 모습을 기록하며, 한국 사회의 무수히 많은 지역에 문화공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대안적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 시대의 커뮤빌더

김기현 저 | 175쪽 | 9,000원 | 이매진 | 2007.9.21

이 책은 시민운동의 새로운 지도력으로 떠오른 커뮤니티 빌더(커뮤빌더)에 관한 보고서다. 작은 실천이 작은 변화를 불러오고,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변화를 일구어낸다는 소박한 마음이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 둘 피어나기 시작한다면, 우리 사회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삶이 풍요롭고 따뜻해질 것이라는 '사회 변화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 이 책에서 우리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커뮤빌더들의 진심 어린 희망을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다.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시민운동의 힘을 만들어가는지, 커뮤빌더로 성장하기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각자의 활동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이 책은 이런 질문에 답하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담아내고 있다.

연안테제, 연안사회를 조직하라

김갑곤 저 | 197쪽 | 9,000원 | 이매진 | 2007.9.21

시화호 운동에 참여하면서 연안의 가치를 깨닫고, 연안에 닥친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다. 실질적인 연안사회 발전모델을 계획하기 위해 중앙중심주의와 땅의 관점에서 벗어나 바다와 해양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삶의 방식과 내용을 살펴보고, 연안 유역권의 진정한 가치를 확인하고 있다.

치유와 키움, 기적의 풀뿌리 주민운동 체험기

정보연 저 | 187쪽 | 9,000원 | 이매진 | 2007.9.21

도봉시민회라는 한 작은 풀뿌리 주민운동 단체가 우여곡절을 겪으며 성장하는 과정을 기록한 책이다. 단체만 성장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고 동네가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는 모습이 오롯이 담겨 있다. 대립과 계몽이 아니라 '치유와 키움'이라는 새로운 시민운동의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도봉시민회가 말하는 새로운 풀뿌리 주민운동을 소개하고 있다.

동네에너지가 희망이다 우리동네 에너지 농부 이야기

이유진 저 | 251쪽 | 10,000원 | 이매진 | 2008.1.10

동네에서 에너지를 직접 만들어 쓰는 꿈같은 일이 바로 내 이웃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풀무학교를 중심으로 태양광과 풍력과 바이오가스로 전기를 생산하는 충남 홍성, 태양광 발전기가 늘어나고 유채기름으로 경운기와 버스를 굴리는 전북 부안, 한국의 프라이부르크를 꿈꾸는 태양 도시 광주, 재생가능에너지 보물섬인 제주도에는 어떤 특별함이 숨어 있을까.

순천만, 시민사회 물결치다

박두규 저 | 271쪽 | 9,000원 | 이매진 | 2008.1.10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틀을 세우기 위해 시민사회의 물결이 용솟음친 순천의 이야기. 순천 시민의 꾸준한 노력과 실천을 여덟 가지 사례로 나눠 들려주고 있다. 우리가 사는 지역을 변화시키려면 적지 않은 진통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누군가 기록해야 한다. 오랜 기간 이어진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순천을 살고 싶은 도시, 살 만한 고장으로 만든 지역 주민의 땀과 지혜를 담은 기록을 이 책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5.18로 끓여먹는 얼큰한 문화도시

류동훈 저 | 168쪽 | 9,000원 | 이매진 | 2008.1.10

광주는 요즘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 도약하려고 열심히 준비 중이다. 문화중심도시는 어느 날 갑자기 정해진 '정체성'이긴 하지만, 지역 발전을 향한 도약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국책 사업'이다. 광주 시민은 문화중심도시 사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 책은 문화중심도시 사업에 거는 기대와 염려,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는다. 광주의 자부심이자 아픔인 5.18민주화운동 정신이 생활 곳곳에 스며들어가 광주 시민의 삶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방법. 이 책은 그 답을 제시하고 있다.

골목을 걷다–이야기가 있는 동네기행 이야기

김기홍 · 이애란 · 정혜진 글, 이지용 사진 | 10,000원 | 이매진 | 2008.12.22

역사와 사람을 고스란히 품은 우리 동네 골목 이야기. 우리 동네 골목에는 사람이 살고, 역사가 숨쉰다. 골목을 걸으면 살기 좋은 도시가 보인다. '좁고 낡고 불편한' 골목을 '넓고 새롭고 편리한' 아파트 단지와 주상복합건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유행'인 시대. 무심코 지나치던 우리 동네 골목을 새삼 돌아보다가 그 매력에 푹 빠져든 사람들이 있다. 9개월에 걸쳐 대구 구도심인 중구의 골목골목을 쏘다니며 사진과 글로 기록을 남겼으며, 그 중 스물여섯 곳의 이야기가 담겼다.

행정 에이전시로 마음을 드래그하라

이준범 | 10,000원 | 이매진 | 2009.1.23

모든 것을 아우르는 키워드는 관심이다.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대하면 마음이 서서히 열리고, 일에 관심을 가지면 잘 하려는 의지가 생긴다.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인간적인 교감이다. "모든 일은 사람에서 시작되고 완성된다."

이런 사람 만나봤어?
따로 또 같이 일구는 관악사회복지 이야기

한재랑 · 박영하 · 김의인 · 윤홍용 | 10,000원 | 이매진 | 2009.1.23

우리와 관계 맺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물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자발적인 공동체를 일구기를 희망한다. 그 공동체들이 늘어나 서로 촘촘하게 연대하는 지역을 꿈꾼다. 관악사회복지는 그 꿈을 위한 엄마의 자궁이며 이웃사랑방이다.

우리 사회 각 분야를 구술을 통해 정리하고 분석한 새로운 인문학 시리즈

우리는 더 많은 민주주의를 원한다

유시주 저 | 352쪽 | 15,000원 | 창비 | 2007.6.1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는 사회구성원 30명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민주주의'의 생활 속 체감지수를 들여다 본다. '민주주의란 무엇일까'를 시작으로 총 9가지 주제로 나누어 시민들의 생각을 정리하였다. 이들은 일상의 공간에서 저마다의 절실한 문제를 붙들고, 비판 · 저항과 함께 소통 · 참여하는 새로운 시민상을 보여주었다.

– 2007 문화관광부 교양도서, 한국출판인회의 '이달의 책' 선정 (2007.8)

시민이 챙겨야 할 나라 가계부

이원희 저 | 230쪽 | 15,000원 | 창비 | 2008.8.1

방대하고 복잡한 국가재정의 흐름을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풀어내고 정부의 예산운용에 시민이 참여하는 길을 안내하는 책. 관련 정부부처 공무원, 국책연구소 연구원, 대학교수, 시민활동가 등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통해 재정민주주의로 한 걸음 다가서기 위한 개혁과제를 점검한다. 세금의 낭비실태, 분야별 적정한 예산규모와 우선 순위 선정에 대한 논쟁을 소개하고, 시민이 단순한 납세자가 아니라 국가재정의 주체로서 예산을 가꿔나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교육개혁은 왜 매번 실패 하는가

정병호 김찬호 이수광 이민경 저 | 249쪽 | 15,000원 | 창비 | 2008.8.1

왜 교육개혁은 백전백패였을까. 불치병처럼 변해버린 교육문제의 해법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이 책은 무수한 교육공학적 시도들이 실패한 까닭을 교육 바깥의 심리 · 사회 · 문화적 압력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라고 진단한다. 특히 성공에의 환상과 도태에 대한 불안, 선수 · 후원자 · 관객이 혼연일체가 되어 몰입하는 '교육게임'의 열기 등은 백약을 무효로 만들었다. 교육문제에 대한 이 같은 참신한 접근방법으로 1 · 2장에서는 교육문제라는 문화적 질병의 실체를, 3 · 4장에서는 제도교육 안팎에서 펼쳐지는 치유방법들을 다루었다.

아래로부터의 시민사회-시민활동가 30인에게 듣는다

주성수, 정규호, 이선미, 조성미 저 | 253쪽 | 15,000원 | 창비 | 2008.8.1

시민운동 현장에서 우리사회의 희망을 찾고 만들어가는 다양한 영역의 활동가 30인의 진솔한 목소리를 통해 한국 시민사회의 의미와 전망을 다룬 책이다. 2000년대 들어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시민사회운동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운동의 과제와 새로운 가능성을 살펴본다. 시민들이 자생적으로 일구어낸 촛불집회의 집단적 창발성과 유쾌한 에너지를 오롯이 담아낼 수 있는 시민사회를 어떻게 리모델링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현장활동가들의 성찰과 지혜가 담겨 있다.

양극화시대의 일하는 사람들-환경미화원에서 변리사까지

이병훈, 윤정향, 김종진 저 | 268쪽 | 15,000원 | 창비 | 2008.12.26

분배의 정의가 실종된 양극화시대 연대와 진보의 돌파구를 찾는 일하는 사람들의 소중한 목소리. 고용 없는 성장과 비정규직 남용, 노동시장 유연화 등으로 평등한 노동시장의 이상향은 머나먼 이야기가 돼버렸다. 그러나 필자들은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우리시대 희망찾기의 돌파구라고 말한다. 이들이 수동적 존재에서 벗어나 연대의 주체로 탈바꿈할 때만이 노동양극화의 잔인한 구조를 깨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속 가능한 세상을 향한 발돋움-환경갈등이라는 복잡한 숙제 풀기

박진섭, 소병천 저 | 256쪽 | 창비 | 15,000원 | 2008.12.26

환경운동가와 환경법 연구자가 환경갈등이라는 공통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만나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앞으로 더욱 크게 사회적 이슈로 부각될 '지역개발과정에서의 환경보전'이라는 사안을 우리사회에 저항을 불러일으켰던 새만금 간척사업과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사건이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끌어가면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토대를 탐색한다.

새로운 마을만들기를 위한 다양한 활동, 사례, 연구를 모은 대안 시리즈

마을은 보물로 가득 차있다-에코뮤지엄 기행

오하라 가즈오키 저 | 김현정 역 | 252쪽 | 15,000원 | 아르케 2008.8.12

에코뮤지엄에 대한 개념의 기원과 변화과정이 시대적·공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다. 또한 에코뮤지엄이 활성화되어 있는 프랑스, 벨기에, 캐나다, 스웨덴, 노르웨이를 중심으로 필자가 직접 현지를 방문하고 집필한 풍부한 사례들이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나열되어 있어 비전문가들에게 '에코뮤지엄'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불러오기에 충분할 것이다.

1% 너머로 보는 지역활성화

지바 미쓰유키 저 | 서하나 역 | 229쪽 | 12,000원 | 아르케 | 2007.6.1

일본 지바현 이차카와시는 2005년 4월부터 납세자가 NPO 등의 시민활동단체를 선택하여 자신이 낸 개인 시민세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시민활동단체지원제도'(통칭 '1%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책은 이 제도를 통해 세금이 얼마나 지역사회와 밀착해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의미있게 쓰여 질 수 있는 지를 심도있게 들여다보고 있다.

일본형 매혹도시를 만들다

아오키 히토시 저 | 최민경 역 | 278쪽 | 14,000원 | 아르케 | 2007.6.1

주민의 손으로 직접 하는 도시 만들기, 일본 도시의 고유한 매력을 살리는 도시 만들기를 제안하는 책이다. 저자는 정부가 주도하는 거대한 규모의 도시 계획이 가지는 한계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도시 만들기의 시점을 제안한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소규모의 도시 만들기가 가지는 가능성을 이 책에서 그려낸다.

지역 공동체의 재생과 자립을 위한 커뮤니티비즈니스 연구 총서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커뮤니티비즈니스

호소우치 노부타카 저 | 이상현 외 역 | 220쪽 | 12,000원 | 아르케 | 2007.6.1

커뮤니티비즈니스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건강하게 만드는 주민주체의 지역사업으로,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비즈니스로 전개하려는 것이다. 이 책은 커뮤니티비즈니스의 개념부터 주변관계, 사례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지혜를 전달하고 있다.

소통과 나눔 그리고 새로운 마을–창발 마을만들기

와다 다카시 편저 저 | 손주희 역 | 247쪽 | 15,000원 | 아르케 | 2008.10.23

창발 마을만들기는 서로 다른 가치관과 능력을 지닌 사람이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가치관과 아이디어를 창(創)조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활동을 유발(發)하는 마을만들기를 뜻하는 새로운 말이다. 이 책에서는 일곱 명의 실천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상호작용의 장은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대해 몇 가지 생각과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우리 모두 주인공인 커뮤니티비즈니스

호소우치 노부타카 엮음 | 정정일 역 | 229쪽 | 9,000원 | 이매진 | 2008.10.29

'커뮤니티비즈니스'란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자원을 이용해, 지역의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로서, 무너져만 가는 지역 공동체의 재생과 자립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다. 일본의 저명한 커뮤니티비즈니스 연구자인 호소우치 노부타카는 이 책에서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원리, 성공 사례와 다양한 사업 모델, 중간지원조직(NPO), 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원 구조 등 다양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

조례가 지역주민의 삶을 만든다! 국내외 이색 조례를 소개하는 시리즈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칭찬 학습법

후쿠도메 쓰요시 지음 | 정선철 역 | 162쪽 | 9,000원 | 이매진 | 2008.4.28

'칭찬'이라는 작은 행위 하나가 아이와 사회를 이렇게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것이 놀랍다. 이 책에는 최근 일본의 자치단체들이 '아이를 칭찬하며 키우자'는 뜻으로 제정하기 시작한 조례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가정과 학교, 지역 사회가 이 문제로 씨름하면서 경험하게 된 주목할 만한 변화에 관한 이야기들이 아기자기 하고 박진감 있게 소개 되어 있다.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자치헌법 만들기

우치나카 이에스케 지음 | 정선철 역 | 228쪽 | 9,000원 | 이매진 | 2008.5.13

자치기본조례는 왜 필요하며,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고, 누가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해 지은이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생생하게 정리하고 있는 책이다. 이 책은 혁신도시, 지역균형발전 등 수도권에 과도하게 몰린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하려는 계획 등과 관련하여 각 지역에 알맞은 자치기본조례 제정 문제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조례는 법률의 씨앗이다–전기성의 조례사랑이야기

전기성 저 | 199쪽 | 10,000원 | 중앙교육진흥연구소 | 2008.12.1

조례를 일반인들도 알기 쉽게, 마치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야기하듯 풀어쓴 최초의 조례칼럼집이다. 저자의 '법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나라가 잘 되고 국민생활이 편안해진다'는 평소 소망의 작은 결실이다.

지역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땀방울이 진하게 담긴 인간탐구, 지역탐구 시리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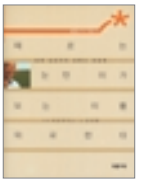
수십만의 직원들 둔 기업가–토종벌 총각 김대립

김진아 저 | 192쪽 | 8,000원 | 푸른나무 | 2007.10.30

농촌 총각 김대립의 특별한 벌 사랑 이야기. 앉으나 서나 벌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토종 양봉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김대립씨는 인공분봉법, 특수보온벌통, 무지개 꿀 등을 개발하였다. 나아가 더불어 잘 사는 삶을 꿈꾸며 이를 실천하고 있는 그는 현대인들에게 귀감이 되기에 충분하다.

때로는 눈먼 이가 보는 이를 위로한다 –김제 남포리의 상록수 오윤택

김경환 저 | 190쪽 | 8,000원 | 푸른나무 | 2008.1.2



오윤택 씨가 살아온 삶을 보면 영화 속 주인공 홍반장이 떠오른다. 무학이 가슴에 맺혀 동네 도서관과 이동도서관을 만들고 문고기금으로 지역의 어려운 아이들을 도운 일이며, 시골 작은 마을에 정보화센터를 만든 일까지 그의 삶은 '지역에서 터를 박고 삶다운 삶을 사는 일'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전형이다.봉사는 그를 지탱하는 힘이였으며 평생을 걸고 해낸 일이다. 남을 위하는 마음이 없고서는 결코 가능하지 않는 일이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좀 더 높은 차원으로 승화시킨 그의 삶은 어려움 없이 자라 쉽게 포기하고 열정이 없는 현재 젊은이들에게 교훈이 되기에 충분하다.

– '소외된 이웃을 위하여 20선' 선정

고삐 풀린 망아지 옥천에서 일내다–풀뿌리 언론의 희망 오한흥

정지환 저 | 230쪽 | 9,500원 | 푸른나무 | 2008.10.6

오한흥씨는 풀뿌리 언론의 성공 모델인 〈옥천신문〉을 창간하고 키웠으며,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 옥천에서 〈조선일보〉 절독운동을 성공시켰다.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입법전문 정치주간지 〈여의도통신〉 창간을 주도했으며, 이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안터마을을 보다 건강한 생태마을로 가꾸기에 여념이 없다.

백로야, 고라니야 내가 지켜줄게–시화호의 기록자 최종인

이현구 저 | 230쪽 | 9,500원 | 푸른나무 | 2008.12.15

시화호를 돌아다니며 다친 동물을 치료하고 새 사진을 찍고, 시화호의 어제와 오늘을 훤히 꿰뚫고 있으며, 대중 매체에서 붙여줬음직한 '시화호 지킴이'라는 별명을 가진 최종인 씨가 네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그는 쉼 없이 발품을 팔면서 시화호의 모든 것을 사진과 동영상에 담아낸 생생한 기록자다.

고속도로 통행권에 복권을 붙이면 정말 좋겠네

희망메이커, 박원순, 전유성, 박준형 저 | 312쪽 | 11,800원 | 위즈덤하우스 | 2007.10.25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발한 상상력이 경쟁력이 된 시대 하지만 이제는 단지 상상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체화시키고 현실화시키는 단계에 와 있다. 일반 시민들의 아이디어와 박원순 변호사가 해외를 다니면서 직접 수집한 아이디어들, 희망제작소에 제안된 아이디어 중 실현된 사례들이 소개되어 있다.

세계를 이끄는 생각

홍일표 저 | 432쪽 | 18,000원 | 중앙북스 | 2008.5.13

워싱턴을 중심으로 포진해 있는 다양한 싱크탱크를 탐방,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 싱크탱크 파워의 원천은 어디에 있는지 살핀 그야말로 '발로 뛴 워싱턴 싱크탱크 탐방기'이다. 워싱턴 싱크탱크가 이처럼 훌륭한 정책을 끊임없이 생산해 낼 수 있는 것은 단지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나 고위 관료가 연구소에 많이 있어서가 아니라 새롭고 독창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는 '다음 세대'를 길러 내는 데 성공했기 때문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날카로운 통찰,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 우리 시대 공공리더를 위한 정책 시리즈

인수위 67일이 정권 5년보다 크다

희망제작소 엮음 | 282쪽 | 15,000원 | 중앙북스 | 2008.1.10

국정운영의 소중한 지혜를 새로운 정부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기획 · 출판되었다.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주요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5년의 국정운영이 대통령 취임 전 인수위원회 67일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이 책은 과거 인수위원회의 운영상의 문제점과 주요 쟁점들을 잘 정리하고 있다.

사랑받는 대통령의 조건

리처드 뉴스타드 저 | 이종훈 역 | 297쪽 | 15,000원 | 중앙북스 | 2008.1.10

국가를 경영하는 'CEO 중의 CEO'인 대통령직 전반에 관한 심층적인 분석을 제공하는 이 책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다양한 문제들을 돌아봄으로써 이 시대 국민에게 사랑받는 대통령은 진정 어떤 지도자인지에 대한 해답을 내리고 있다. 케네디부터 클린턴까지 역대 미국의 대통령들에게 주는 조언 형식을 발견 이 책에는 가장 믿을 만한 보좌진의 선발과 각료 임명을 비롯한 인사 원칙, 국회나 언론과의 관계 정립 방법, 대통령 부인의 처신 요령까지 대통령직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매뉴얼이 섬세하게 정리되어 있다.

진정한 리더는 떠난 후에 아름답다 –지미 카터, 퇴임 후의 삶

지미 카터 저 | 이종훈 역 | 351쪽 | 13,000원 | 중앙북스 | 2008.10.6

제 39대 미국 대통령이면서, 재임 당시보다 퇴임 후의 활동으로 더욱 유명한 지미 카터가 자신이 설립한 카터 재단과 함께 지난 25년간 펼친 활약상을 담담한 필체로 그리고 있다.대통령 재직 당시에 인기가 없었고, 퇴임 이후에도 카터 재단을 설립하려 할 당시 후원자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그는 현재 카터 재단을 통해 세계 70여 개국에서 활동을 벌이며, 모범적인 전직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그의 노력을 한국의 전직 대통령들과 비교하며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희망제작소 창립기념 국제세미나]

싱크탱크와 우리시대 희망찾기

희망제작소 | 15,000원 | 2006.3.27

영국, 일본, 미국의 싱크탱크에 대한 역사와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싱크탱크들의 분석을 통해 희망제작소가와 같은 민간 싱크탱크가 어떻게 우리 사회에 알차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인가를 모색해 본다.

[희망모울 7]

한미FTA는 내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희망제작소 대안센터 | 7,000원 | 2006.7.21

한미FTA는 우리나라의 명운을 좌우하게 될 사안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정부는 추진의 시급성만을 강조하고 있고 국회는 제 역할을 다하고 있지 않다. 희망제작소는 한미FTA가 체결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상정하고 이에 따라 시민들의 생활이 어떻게 영향을 받게 될지를 구체적으로 되짚어 보았다.

[희망모울 9]

천재 그리고 인재,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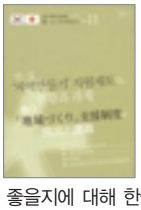
희망제작소 대안센터 | 7,000원 | 2006.9.29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재해인 수해에 대한 정부 대책이 가지는 문제점을 꼼꼼히 진단한 후 그 개선 가능성을 타진한다. 또한 수해를 직접 겪은 이재민, 수해복구 현장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성공적으로 수해대책을 수립한 지자체의 공무원, 기업 수해복구 참여자 등 다양한 경험을 가진 시민들이 구체적이고 생생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희망모울 11 – 한 · 일 컨퍼런스]

한 · 일 '지역만들기' 지원제도의 현황과 과제

희망제작소 대안센터 | 15,000원 | 2006.11.21



지역발전은 해당 지역 주민과 자치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져야 하지만, 아직은 중앙정부와 민간차원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희망제작소가 마련한 한 · 일 컨퍼런스는 앞으로 더욱 많은 지역에서 우리의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기획하고 지원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한국과 일본의 전문가들이 서로의 의견과 지혜를 나누는 자리였고, 이 책이 그 결과물이다.

[대통령직 인수 심포지엄]

좋은 준비 좋은 정부

희망제작소 대안센터 | 3,000원 | 2007.12.27

학계와 정계, 언론계의 다양한 전문가를 모시고 차기 정부의 생산적인 정책구상과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심포지엄 자료집. 인수위원회는 이전 정부의 인력과 예산을 인수하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수렴한 국민의 요구를 정책으로 구체화하며, 새 정부의 내각 구성 등 인사에도 관여한다. 때문에 인수위가 주어진 67일 동안 얼마나 제 역할을 다 하느냐에 따라 새 정부의 성패가 좌우될 것이다.

[18대 총선평가 및 대안모색 토론회]

46점짜리, 위기의 민주주의를 구하라! –새로운 선거제도, 선거문화 모색

희망제작소 대안센터 | 5,000원 | 2008.4.24

46%대의 역대 최저 투표율을 통해 드러난 18대 총선의 대의민주주의 위기 현상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하고, 그 대안을 모색한다. 특히 투표율 저하의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유권자들의 정치불신, 그 원인과 해법에 관한 심층적인 토론을 할 것이다. 또 투표율 제고를 위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전자투표제 도입, 페널티 및 인센티브 부과, 투표연령 인하, 인터넷 선거운동 완화 등의 쟁점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다.

[조례연구소 창립기념 세미나]

지방자치, 이제 조례를 이야기하자

희망제작소 조례연구소 | 10,000원 | 2006.9.14

조례는 정말 많다. 그렇지만 깊이 있는 논의와 연구를 거쳐서 만든 조례는 많지 않다.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뜻을 모아서 만든 조례도 흔치 않다. 대부분의 조례는 상위법에 따라 판박이로 찍어내듯 제정되고 있다. 좋은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 조례만 제대로 제정해도 지역이 바뀐다. 좋은 조례가 세상을 바꾼다. 조례연구는 조례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연구기관으로서, 지방자치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이 자료집은 조례연구를 통해 조례제정이나 집행과정의 문제를 극복하는데 기여하고, 좋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방법을 두고 토론한 알찬 결과물이다.

[자치재정연구소 창립기념세미나]

이제는 자치재정이다

희망제작소 자치재정연구소 | 10,000원 | 2007.2.28

지역의 재정에 주민들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고, 주민이 참여할 수 밖에 있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다양한 정책대안 등을 담고 있다.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분권개혁이 미완의 개혁으로 끝날 수 없었던 핵심에는 2할 자치로 자조되는 지방재정의 취약성이 있다. 한국의 지방재정은 자주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주민의 참여가 극히 미약하여 자치를 말하기 어렵다. 이제 자치재정은 지역의 살림살이이며, 지역주민만의 삶의 질을 높이는 수단이어야 한다.

[농촌희망본부 창립세미나]

농촌부활의 시대를 연다

희망제작소 농촌희망본부 | 5,000원 | 2007.7.19

농업문제는 농민과 일부 농업관계자뿐만 아니라 도시민을 비롯한 국민 모두가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작은 시냇물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 시민들의 작은 아이디어들과 국민의 작은 지원의 손길 등이 모여 농촌의 미래를 위한 큰 틀을 짜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주민참여클리닉 기획포럼 1 E-민주주의를 조명한다]

1st 참여정부의 전자민주주의 성과와 개선방향

희망제작소 주민참여클리닉 | 5,000원 | 2007.11.29

전자민주주의는 고대 아테네의 직접민주주의가 대의 민주주의로 전환을 한 이후 현대적 의미의 직접민주주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번 포럼를 통해 우리나라 전자민주주의의 현황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 성과와 향후의 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민참여클리닉 기획포럼 1 E-민주주의를 조명한다]

2nd 세계를 바꾸는 블로그, UCC-한국 전자시민사회형성과 시민저널리즘

인터넷의 보급과 확산은 전자시민사회를 형성하기에 이르렀고, 네티즌의 의견은 공론화되어 여론의 향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포럼에서는 전자시민저널리즘의 국내외 동향을 살펴보고, 현실사회에서의 의미에 대해 고찰하여 UCC와 블로그 등을 통해 전파되는 전자저널리즘의 미래와 전망에 대해 논의한다.

[주민참여클리닉 기획포럼 1 E-민주주의를 조명한다]

3rd 혼돈과 질서, 네트에서 문화읽기 -한국 사이버공동체와 커뮤니케이션

블로그, UCC, 싸이월드, 포털 카페, 메신저 등을 통해 사이버 공동체가 형성되고, 이 사이버 커뮤니티는 그들만의 커뮤니케이션과 행동양식을 가지고 사이버 문화를 창조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 사이버 공동체의 특징과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 커뮤니티 내부 또는 커뮤니티간의 소통과 대화의 방법, 활동 양상, 오프라인과의 차이점과 유사점, 연계 방식 등에 대한 논의하면서 온라인을 통한 주민참여와 민주주의 확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고찰해 본다.

[주민참여클리닉 기획포럼 1 E-민주주의를 조명한다]

4th 민원처리시스템 개선을 논한다.

희망제작소 주민참여클리닉 | 5,000원 | 2008.4.29

민원의 원활한 접수와 처리는 시민의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사안이며, 행정 서비스 만족도와 효율성을 가늠하게 하는 주요한 척도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에 주목하면서 전자민주주의 확대의 한 방법론으로서 민원처리시스템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아울러 민원처리 과정에 있어서 시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토론한 내용이다.

[주민참여클리닉 기획포럼 1 E-민주주의를 조명한다]

5th 세상을 바꾸는 조용한 힘-시민제안의 현황과 전망

희망제작소 주민참여클리닉 | 5,000원 | 2008.6.24

'시민제안제도'는 1997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2005년 온라인 국민포털의 등장 이후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시민부문과 행정당국의 '거버넌스'가 중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시민제안제도는 e-민주주의 구현의 일환으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간 양적으로는 시민제안제도가 활성화되었지만, 구체적 현실화를 위해서는 아직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 제안자와 심사자들의 변화뿐만 아니라, 제안시스템 전반의 변화가 요구되었으며,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미래 세대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주민참여클리닉 창립기념 세미나]

참여정부의 참여민주주의를 논한다

희망제작소 주민참여클리닉 | 5,000원 | 2007.12.4

민주주의의 완성은 주민참여에 있다. 많은 유의미한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주민이 능동적으로 주체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삶과 연관된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대안을 창출하는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우리는 일상의 민주주의, 더 작은 민주주의, 더 소소한 민주주의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주체는 엘리트 계층이 아닌, 평범한 시민들이어야 한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가이드북]

살고싶은 우리동네 만드는 32가지 방법

마포구청, 희망제작소 주민참여클리닉 | 10,000원 | 2008.10.22

주민자치센터란 무엇을 하는 곳이며,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을까? 마을 주민의 뜻을 모아 공동체를 활성화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마포구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선진사례를 학습하고 벤치마킹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좋은 프로그램 개발이 많은 사람의 참여를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조례&자치재정 월례포럼]

인수위에 전하는 분권의 목소리

희망제작소 조례연구소 · 자치재정연구소 | 5,000원 | 2008.1.17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8대 중점과제에는 지방분권이 포함되지 않았다. 세계는 이미 분권과 자치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지역에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혁신적인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해 새 정부가 실행해야 할 분권 과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지역현안 긴급포럼 1]

공동체라디오, 정규사업 도입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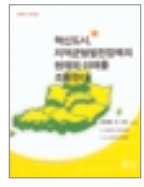
희망제작소 뿌리센터 | 5,000원 | 2008.5.22

2008년 8월경 공동체라디오가 시범사업을 마치고 정규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주파수 정책 및 운영 관련 정책, 공적지원 정책 등 현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하고자 한다. 또한 공동체라디오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교환하고자 한다.

[지역현안 긴급포럼 2]

혁신도시,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한다

희망제작소 뿌리센터 | 5,000원 | 2008.5.23



지역균형발전 정책 재검토, 지방행정조직 개편, 회계 개편설 등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혼란에 빠졌다. 또한 지방분권 정책을 총괄했던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설립 5년만에 사실상 폐지될 전망이어서,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정부의 정책이 혁신도시 정책과 어떻게 연계되며, 이러한 논란이 지역균형발전에 있어서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해 짚어 보고자 한다.

[지역현안 긴급포럼 3]

개발주의와 도시공동체-인천 배다리 상황을 중심으로

희망제작소 뿌리센터 | 5,000원 | 2008.6.5

최근 근대 문화유산의 숨결이 살아 숨 쉬는 인천 배다리 지역이 산업도로 건설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인천 배다리 일대를 통과하는 산업도로 개설을 둘러싸고 배다리 문화복원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도로건설과 지역공동체, 그리고 문화와 철학이 담긴 도시계획의 대안을 짚어본다.

[자치재정 월례포럼]

성인지 예산제도의 이해와 쟁점

희망제작소 자치재정연구소 | 5,000원 | 2008.6.30

2010년 성인지(性認知)예산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이들이 성인지 예산 편성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이번 월례포럼에서는 성인지예산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자리를 마련하고 명확한 정책의 방향과 세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에 실제 수요자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한다.

[2007 순천시 공무원학교 자료집]

나는 순천시 희망 Creator입니다

희망제작소 희망아카데미 | 10,000원 | 2007.7.13

희망순천 2020 마인드 교육. 이번 순천시 공무원학교는 희망순천 2020의 핵심가치를 공유하고 시민 중심의 행정과 순천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견인차가 될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2007 공무원 주제학교]

나는 우리 시 · 군 · 구의 교육플래너입니다

희망제작소 희망아카데미 | 10,000원 | 2007.3.12

지자체의 공무원 교육훈련과 혁신분야 담당자들을 위한 교육플래너 워크숍. 이 과정은 지자체 공무원들의 자질함양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는 교육전담공무원들의 교육기획력 향상을 위해 마련되었다. 변화하는 시대의 새로운 공무원상은 무엇이고, 이를 위해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기획되어야 하는지, 그 수요의 분석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함께 고민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교육현실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008 순천시 공공디자인학교 제3차 – 나는 순천시 공공디자이너입니다]

나눔과 소통으로 성공하는 순천시 비전만들기

희망제작소 희망아카데미 | 5,000원 | 2008.4.14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순천시의 비전과 마을만들기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는 자리이다. 무엇보다 시민들과 함께, 지역의 시민단체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순천시의 발전을 고민해 보는 열린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2008 공공디자인학교 (농촌형)]

공간, 삶의 이야기를 담아내다–전북 진안, 무주

희망제작소 희망아카데미 | 5,000원 | 2008.5.6

도시와 지역의 표정은 다양한 요소들이 어우러져 나타난다. 중요한 것은 '어디를 가나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곳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다. 단순히 예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자연과 역사,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묻어나고 이것들이 점, 선, 면으로 연결될 때 가치가 있는 것이다.

['좋은시장학교' 일본 스터디 투어]

일본의 마을만들기 현장 정보 "듬뿍"

희망제작소 희망아카데미 | 5,000원 | 2008..9.29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모형으로 제시되고 있는, 작지만 실속 있고 실천 가능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례를 탐방한다. 나아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일본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 지방자치개혁의 과정과 현황을 살펴본다.

[2008 공공디자인학교 기본과정 (도시형)
– 나는 우리 시 · 군 · 구의 공공디자이너입니다]

나눔과 소통으로 성공하는 우리지역 비전만들기

희망제작소 희망아카데미 | 5,000원 | 2008.9.3

이번 교육은 시민의 삶을 재조직하는 관계와 소통의 디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공공디자인 정책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였다. 특히 주민참여의 중요성을 이해하여 주민이 공공디자인 사업에 적극 참여도록 이끄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08 공공디자인 유럽연수]

영국, 독일의 도시발전과 미래전략을 통해 배우는 '공공디자인'

희망제작소 희망아카데미 | 5,000원 | 2008.9.22

유럽의 도시들은 매우 강하고, 독립적인 정체성을 가진다. 이는 곧 도시를 개발하는 방향과 전략에서도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유럽을 이해하고 나아가서 유럽이 성취한 결과를 벤치마킹 하는 것 역시 이러한 차이를 철저하게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번 공공디자인 유럽연수는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을 통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찾기 위한 접근 방식을 제공할 것이다.

[2008 완주군 커뮤니티비즈니스 학교 – 나는 완주군의 커뮤니티비즈니스 리더입니다]

나눔과 소통으로 잘 사는 완주 미래비전만들기

희망제작소 희망아카데미 | 10,000원 | 2008.9.23

커뮤니티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완주군의 자원활용을 통한 지역 활성화와 마을만들기의 새로운 진화방향을 모색한다. 특히 이번 교육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지원하는 정책방향과 추진조직을 설계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2008 익산시 공공디자인학교 – 나는 익산시 공공디자이너입니다]

나눔과 소통으로 성공하는 익산시 비전만들기

희망제작소 희망아카데미 | 5,000원 | 2008.10.21

최근들어 이슈가 되고 있는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익산시의 비전과 미션을 함께 고민해 보는 자리이다. 무엇보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이라는 목표에 걸맞는, 열정이 가득한 공무원이 되는 길을 고민해 보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2008 완주군 공공디자인학교 – 나는 완주군 공공디자이너입니다]

나눔과 소통으로 성공하는 완주군 비전만들기

희망제작소 희망아카데미 | 5,000원 | 2008.10.15

이번 교육은 도시와 지역의 얼굴, 표정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소통'과 '관계'의 중요성을 인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다른 지자체의 공공디자인 사업을 분석하고 완주군에 적합한 전략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박원순 변호사와 함께하는 자치단체장 해외연수 2]

농산촌지역재생의 해법, 일본 그린투어리즘 현장을 가다

희망제작소 희망아카데미 | 10,000원 | 2008.11.5

이번 연수는 일본 큐슈지역의 그린투어리즘 전개과정과 현장을 광역단위에서부터 기초부락까지 살펴봄으로써 그린투어리즘과 마을만들기의 진화 가능성을 통해 우리 지역에 적용방안을 모색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토대마련을 위해 준비하였다.

[2008 완주군 지역리더학교 제1기 – 나는 완주근 희망일구미입니다]

나눔과 소통으로 잘사는 완주마을 비전만들기

희망제작소 희망아카데미 | 5,000원 | 2008.11.6

이번 지역리더학교는 마을리더 양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희망마을을 구축하고 완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준비하였다. 이번 교육이 경쟁력 있는 마을 만들기의 주체로서 공동체 활성화와 바람직한 거버넌스를 구축, 실현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2007 제1차 NPO리더 희망워크숍]

사람만이 희망이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자

희망제작소 해피시니어 | 10,000원 | 2007.8.28

희망워크숍은 전국 NPO 리더 45명을 대상으로 2007년 8월 개최되었다. 이 워크숍의 목적은 비영리단체의 가장 큰 동력인 '사람'에 대해 리더들의 올바른 관점과 철학을 정립하고 효과적인 인적자원 관리와 개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또한 삶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퇴직자들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비영리단체에 퇴직자들의 참여 가능성을 넓이는 기회를 제공한다.

[2007 제1기 행복설계 아카데미]

NPO, 그 다양하고 아름다운 세계로의 초대

희망제작소 해피시니어 | 10,000원 | 2007.9.10

행복설계 아카데미는 삶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퇴직자들이 인생의 후반부를 민간비영리단체에 참여해 사회, 공익적 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2007 해피시니어 프로젝트 심포지움]

중고령 퇴직자의 일의 의미와 사회적 공헌활동

희망제작소 해피시니어 | 5,000원 | 2007.11.29

해피시니어 프로젝트 1년간 사업의 성과와 의미를 돌아보며 향후 우리나라의 퇴직자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논의하는 심포지엄. 특히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고 있는 일본의 퇴직자 실태 및 지역사회 참여 사례를 들을 수 있다

[2008행복설계아카데미]

제2의 삶을 준비하는 당신에게 드리는 희망메시지

희망제작소 해피시니어 | 10,000원 | 2008.3.10

기업, 관공서, 전문직종에 종사했던 퇴직자들이 인생의 후반부를 비영리단체에 참여하여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살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업이다. 체계적, 전문적 교육과정을 통해 자신의 적성과 능력, 경험을 나눌 수 있는 NPO를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피시니어, 일본 중간지원조직 방문기]

일본 시민 사회의 꽃, NPO지원센터를 가다

희망제작소 해피시니어 | 8,000원 | 2008.11.25

희망제작소 해피시니어팀은 지난 2월 4박5일 일정으로 일본NPO지원센터를 방문하고 돌아왔다. 그동안 전문직 퇴직자들이 인생의 후반부를 비영리단체에 참여해서 경험과 능력을 살릴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을 진행해 왔던 해피시니어는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국내 NPO와 시니어들을 연결하는 지원센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이번 NPO지원센터 방문기는 도약을 향한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해피시니어 2주년 기념 심포지엄]

전문직 퇴직자 사회공헌 활동의 성과와 과제– 시니어 파워, NPO세상과 만나다

희망제작소 해피시니어 | 5,000원 | 2008.11.25

최근, 고령화와 조기퇴직의 추세 속에서 삶의 가치와 의미를 돌아보는 위치에 있는 퇴직자들이 나눔을 위해 자기실현의 의미를 재인식하며 지역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민간비영리기관에서 퇴직자들의 참여와 나눔 활동은 단순한 재취업이나 봉사가 주는 의미를 넘어 자신이 가진 전문적 역량을 사회와 공공영역의 가치창출을 위해 활용할 기회를 제공한다.

노원구청 공무원들의 아주 특별한 제안

노원구청,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 | 10,000원 | 2007.10.25

이제 공직자들도 사회창안에 나섰다.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창의혁신추진반'을 만든 노원구청은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부딪치며 직접 느꼈던 생생한 경험을 토대로 실천 가능한 크고 작은 생각들을 모았다. 그 결과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로 인해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53가지 사례를 선정하고, 아울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 20가지 등 총 73가지 사례를 모았다.

구청씨, 생각대로 큐!!

노원구청,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 | 10,000원 | 2008.7.15

노원구청에서 발굴한 57건의 법령, 규칙, 조례 및 각종 제도 개선 과제로 이번에는 구청 공무원뿐 아니라 노원소방서 등 노원구 내 유관기관 공무원들과도 함께 뜻을 모아 아이디어를 발굴했다고 한다. 특히 이번에 발굴된 아이디어들은 전부 다 노원이라는 하나의 지역을 넘어 전국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로 그 중요도를 가늠할 수 있다.

[불만합창 페스티벌]

네 불만을 노래하라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 | 5,000원 | 2008.10.8

일상의 작은 문제들부터 변치 않는 문제, 글로벌 이슈까지 오늘 나의 삶과 연관된 모든 불만을 노래로 부른다. 훌륭한 주민 참여의 방법이자 유쾌한 사회 운동의 방법 그리고 멋진 공공예술의 방법. "네 불만을 노래하라!"

2008 사회창안대회 최종결선 프리젠테이션 쇼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 | 5,000원 | 2008.10.8

2008 사회창안대회의 최고 하이라이트, 최종결선 프리젠테이션 쇼! 8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Daum 아고라와 함께 진행한 '2008 사회창안대회'에서는 네티즌들의 열띤 참여 속에 총 573건의 아이디어들이 접수되었다. 이 아이디어들은 총 39인 심사위원들의 1,2차 심사를 거쳐 최우수 시민의 아이디어 TOP 10 프리젠테이션 쇼를 준비하였다.

사회창안국제회의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 | 5,000원 | 2008.10.8

사회창안은 경계를 허무는 작업이며 공동체의 협력과 융합, 파트너십과 네트워크를 형성해가는 과정이다. 이번 사회창안 국제회의는 사회창안의 파트너인 정부와 시민조직의 리더들과 사회혁신과 창안분야에서 리더로 활동하는 국외 인사들이 참석해 협력과 파트너에 기초한 거버넌스를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하면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한다.

사회창안국제회의 백서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 | 20,000원 | 2008.12.15

사회창안 국제회의는 국내외 사회창안 리더들과 정부, 시민이 한자리에 모여 통합과 융합, 파트너십과 네트워크를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해본 뜻깊은 자리였다. 사회창안국제회의 백서는 국제회의의 의의를 널리 알리고, 도약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 국내외 연사들의 강연 자료를 묶었다. 이번 국제회의를 계기로 더욱 알차고 참신한 논의의 장이 이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한다.

시티다큐 도시를 기록한다

희망제작소 | 15,000원 | 2006.3.27

도시경관 기록사업의 첫 번째 대상지로 선정된 아현지구는 재래시장과 골목길, 계단 등 자생적인 도시의 모습을 아직까지 많이 보여주고 있다. 이 자료집은 2006년 8월부터 약 두 달간에 걸친 작업의 초보적인 결과물이지만 다음 작업을 위한 자료로 삼기 위해 그간의 과정을 정리하였다.

[세계공원연구소 창립기념행사]

GReEN FAnTASY 문화로 풀어보는 공원 이야기

희망제작소 세계공원연구소 | 5,000원 | 2006.9.5

세계공원연구소는 공원 속에 삶을 심고, 세계화와 지역화의 중심에 공원을 자리하게 하고 단순한 녹색 공원들을 세계적 수준의 다양한 테마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공원관리 실태와 세계 공원들을 연구하고 지역의 공원 배치와 디자인을 컨설팅할 것이다. 바람만 불어도 풀들이 생명의 싹을 틔우듯, 주변의 무미건조한 공원에서 희망이 만들어진다.

[간판문화연구소 창립기념자료집]

아름다운 간판, 아름다운 도시

희망제작소 간판문화연구소 | 5,000원 | 2007.1.30

간판은 문화이다. 간판은 사회적 기술의 발현이자 문화적 힘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 간판은 도시이다. 간판이 모이면 가로의 경관, 지역의 이미지, 도시의 정체성을 만든다. 간판연구소는 간판 때문에 망가진 도시를 간판 때문에 살아난 도시로 만든다.

[제1회 간판디자인학교 자료집]

간판, 디자인을 배우다

희망제작소 간판문화연구소 | 5,000원 | 2007.8.31

파주시, 홍익대학교, 아름지기, 희망제작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1회 간판디자인학교 (장소: 홍익대학교) 자료집. 파주시와 경기도 일대의 간판업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1회 간판디자인 학교는 간판을 단순한 광고물이 아닌 공간과 환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여기고, 간판디자이너들의 디자인에 대한 감각을 높이고 전문성을 길러주기 위한 마련된 자리이다.

[제4회 공공디자인전 & 세미나]

모두를 위한 디자인의 가치

희망제작소 공공문화센터 | 10,000원 | 2008.11.11

디자인은 이제 산업의 일부가 아닌 산업을 주도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분야이다. 이 세미나는 디자인이 도시환경과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강연하고 토론하는 장이 되었다.

[2008 간판디자인학교 – 충청남도 아름다운간판 아카데미]

간판은 디자인이다

희망제작소 간판문화연구소 | 5,000원 | 2008.9.22

우리나라의 간판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요구된다. 법률과 제도의 개선, 산업의 발전과 시민의식의 제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간판업계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의 활성화와 경쟁력 확보이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주요한 것은 디자인이다. 이제는 간판도 디자인으로 승부해야 한다. 디자인이 좋아야 좋은 간판이다.

[2008 경기도 간판디자인학교 – 옥외광고업자 교육용 자료집]

간판은 디자인이다

희망제작소 간판문화연구소 | 5,000원 | 2008.11.26

최근 간판 분야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고 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간판개선사업과 시민들의 간판에 대한 높은 관심은 더 이상 간판 분야를 이전의 모습대로 놓아두지 않을 것이다. 변화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한다.

두 사람이 창문 너머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진흙탕이 된 땅바닥을 보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별이 반짝이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희망제작소를 후원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희망의 별입니다.

갈상돈 감미경 강경선 강경현 강기석 강기정 강길수 강난희 강동우 강동욱 강동진 강동효 강마야 강명근 강무종 강무훈 강미미 강미영 강미혜 강민수
강병규 강병수 강석진 강선미 강선영 강성봉 강성옥 강성지 강성칠 강수현 강승균 강승화 강영숙 강영주 강영혜 강용건 강유가람 강윤기 강은영 강인경
강인재 강인철 강재옥 강전국 강정혁 강정현 강정훈 강주형 강지윤 강지윤 강지현 강지희 강철 강평석 강헌 강현오 강현주 강홍수 강훈근 강희경
고객명 고경희 고관석 고광헌 고광희 고국종 고명석 고명섭 고범석 고상배 고선강 고선강 고선희 고성호 고세현 고소임 고영 고영찬 고영헌 고윤경
고윤석 고은강 고은경 고을곤 고정숙 고정완 고제석 고종훈 고철환 고현석 고혜정 고희범 고희범 공인영 공일호 공진형 공호영 곽만주 곽상협 곽연하
곽인태 곽자현 곽정식 곽준혁 곽희수 구민오 구법모 구자호 구준회 구지선 구지윤 구태현 구호광 국제기계 국주영은 권건주 권경옥 권광중 권기풍
권명숙 권미숙 권병민 권상동 권상수 권상훈 권선주 권선준 권영랑 권영찬 권예경 권오구 권오재 권오정 권오황 권윤정 권은경 권정호 권정희 권지영
권태선 권해원 권혁도 권현아 권형택 권혜영 금준동 금철영 길기관 길영란 길영준 김강진 김강희 김건효 김경남 김경림 김경묵 김경빈 김경숙 김경식
김경애 김경애 김경자 김경태 김경화 김경환 김경환 김경훈 김경희 김광득 김광민 김광식 김광식 김광열 김광일 김광재 김귀경 김귀옥 김귀자 김귀정
김규완 김규태 김규학 김근미 김근한 김근호 김기민 김기준 김기중 김기찬 김기철 김기철 김기호 김남규 김남식 김다정 김달수 김달진 김대욱 김대준
김대현 김대호 김도균 김도현 김도형 김도형 김도홍 김동봉 김동수 김동식 김동연 김동완 김동율 김동은 김두선 김만준 김명기 김명환 김명환 김명희
김미경 김미란 김미래 김미숙 김미숙 김미악 김미영 김미옥 김미해 김미화 김민국 김민호 김범용 김병곤 김병규 김병기 김병필 김병필 김보경 김보만
김보슬 김복래 김사진 김삼용 김상규 김상균 김상남 김상률 김상미 김상백 김상연 김상영 김상운 김상윤 김상익 김상조 김상준 김상진 김상희 김서령
김석곤 김석원 김선기 김선숙 김선아 김선우 김선웅 김선웅 김선희 김성규 김성렬 김성범 김성수 김성수 김성순 김성옥 김성준 김성환 김성훈 김세중
김세현 김소영 김소윤 김송이 김송희 김수경 김수길 김수만 김수열 김수이 김수정 김수진 김수철 김숙희 김순형 김승취 김시도 김시은 김시하 김신
김신 김신숙 김신옥 김신형 김아람 김애록 김애연 김언성 김연규 김연수 김연수 김연숙 김연정 김연지 김연철 김영규 김영규 김영기 김영기 김영길
김영남 김영만 김영미 김영배 김영배 김영배 김영복 김영빈 김영삼 김영생 김영선 김영수 김영숙 김영숙 김영숙 김영순 김영순 김영시 김영우 김영일
김영자 김영재 김영진 김영철 김영철 김영철 김영춘 김영태 김영태 김영태 김영호 김영호2 김예원 김옥이 김왕경 김왕태 김용 김용규 김용민 김용선
김용식 김용식 김용준 김용준 김용진 김용희 김우섭 김우영 김우영2 김우진 김원천 김유정 김유정 김유진 김윤태 김윤후 김은경 김은숙 김은영 김은영
김은옥 김은정 김의인 김이종 김인권 김인수 김인수 김인한 김일권 김일섭 김일송 김재경 김재경 김재곤 김재민 김재업 김재원 김재원 김재현 김재환
김전승 김정기 김정미 김정식 김정언 김정엽 김정완 김정이 김정일 김정자 김정주 김정헌 김정혜 김정환 김정희 김종관 김종관 김종국 김종기 김종달
김종석 김종선 김종안 김종익 김종일 김종진 김종현 김종현 김종호 김종훈 김종훈 김주령 김주정 김주호 김주희 김준묵 김준석 김준석 김준태 김중헌
김지나 김지나 김지동 김지로 김지민 김지영 김지우 김지인 김지현 김지혜 김진 김진관 김진묵 김진수 김진아 김진애 김진영 김진현 김진호 김진호
김창국 김창범 김창범 김창연 김창완 김창운 김창환 김천중 김철수 김철호 김철환 김청호 김추원 김충수 김충효 김칠준 김타균 김태동 김태룡 김태민
김태선 김태성 김태성 김태용 김태우 김태일 김태한 김태현 김태형 김태호 김태홍 김태효 김태희 김택환 김하림 김학종 김학태 김한규 김한민 김한승

김한욱 김한주 김해룡 김향숙 김향숙 김향희 김현경 김현숙 김현우 김현주 김현주 김현주 김현준 김현중 김현지 김현화 김형권 김형균 김형석 김형석
김형완 김형욱 김형진 김혜경 김혜란 김혜란 김혜련 김혜성 김혜영 김혜영2 김혜정 김혜정 김호근 김호진 김홍길 김홍길 김홍석 김홍수 김홍영 김화자
김효석 김효정 김효진 김효철 김휘국 김흥수 김희경 김희상 김희우 김희주 나성곤 나승혜 나인경 나인호 나종문 나해선 나희원 남경아 남규선 남기웅
남기훈 남상만 남상희 남수정 남순연 남안진 남영민 남윤경 남재석 남정수 남주성 남춘우 남학현 남호일 남홍근 노귀연 노금선 노동섭 노동환 노미애
노범용 노세이 노시군 노원호 노인선 노재영 노정기 노정환 노주혁 노준형 노진철 노태영 노희정 (주)동림종합조경 농촌희망지기 대동종합건설(곽정환)
도재규 (주)리서치플러스 라수환 류경주 류동훈 류방란 류상일 류석진 류시정 류시호 류시훈 류은경 류은화 류재욱 류정미 류지연 류형모 류희연
마영진 마정희 맹정은 멋과선 명승은 모남순 무주맘 문경란 문병열 문보국 문성실 문세영 문승영 문승희 문영주 문인곤 문인근 문정림 문정훈 문지원
문진아 문창재 문충선 문하성 문현성 문혜경 민변 민병규 민상기 민성원 민성원 민영민 민영창 민원자 민혜빈 민희도 박가나 박강훈 박건희 박경난
박경석 박경숙 박경아 박경태 박경호 박경화 박귀애 박규민 박금황 박기훈 박나경 박난주 박남영 박년배 박동균 박동복 박동식 박말희 박명숙 박명진
박문숙 박미경 박미라 박미진 박민수 박병권 박병윤 박삼철 박상원 박상원 박상원2 박상유 박상준 박상진 박상철 박상혁 박상환 박석균 박석태 박선게
박선영 박선주 박성수 박성준 박성진 박세환 박세환 박수교 박수선 박수주 박수진 박수현 박순규 박순빈 박순성 박순성 박승남 박승준 박승진 박아름
박연병 박연석 박연수 박영기 박영길 박영립 박영미 박영소 박영수 박영수 박영애 박영옥 박영조 박영혜 박옥희 박완규 박용기 박용덕 박용성 박용신
박용팔 박우영 박원순 박유경 박윤경 박윤중 박은미 박은선 박은지 박인규 박인선 박인애 박일순 박재성 박재신 박재영 박재영 박재영 박재율 박정
박정구 박정순 박정옥 박정은 박정자 박정호 박정현 박정희 박정희 박종구 박종덕 박종명 박종진 박종호 박종훈 박주희 박준규 박준규 박중록 박중록
박지민 박지윤 박지혜 박지환 박진규 박진용 박진원 박진주 박진희 박진희 박찬원 박찬응 박창근 박창기 박창기 박창제 박철세 박철주 박춘석 박출석
박태영 박태원 박판옥 박한규 박현석 박현수 박현호 박형진 박혜선 박혜영 박홍규 박홍규 박홍우 박효수 박흥수 박희숙 반기웅 반승아 반지영 반현수
방기관 방명세 방서은 방성욱 방혜원 배기진 배병우 배상수 배상호 배선화 배성룡 배성용 배소영 배순희 배용태 배운영 배유리 배장만 배정훈 배화정
배흥선 백경훈 백기수 백낙현 백남국 백명숙 백선익 백승인 백승헌 백연기 백종운 백지성 백현욱 백현주 범밀 스님 복일해 봉현정 부윤경 서경주
서동필 서명숙 서명옥 서민욱 서병옥 서상열 서선미 서선욱 서세영 서승만 서용철 서원준 서윤수 서은선 서정보 서정한 서진권 서현아 서현욱 서형수
서혜경 서희용 석경동 석미선 석진규 선경호 선명균 선학수 선현주 설호정 성기환 성명환 성영실 성용모 성종훈 소병기 소영수 소홍섭 손덕환 손도심
손동후 손명세 손민진 손병국 손수경 손영우 손영진 손영환 손정아 손정은 손준혁 손지훈 손진영 손진운 손현우 손희호 송건 송경림 송경미 송경희
송기수 송기호 송길섭 송난근 송래형 송무섭 송미혜 송병순 송선필 송소연 송수완 송수진 송연희 송용철 송우달 송인준 송장식 송재성 송재택 송종문
송지연 송창윤 송철호 송추향 송판심 송학선 송향숙 송헌석 송현숙 송현우 시명준 신경아 신구철 신규학 신동미 신동우 신동윤 신동조 신동훈 신미숙
신미화 신선화 신성식 신성호 신소영 신순회 신슬기 신연숙 신영 신영희 신원식 신원철 신윤희 신은수 신재이 신재홍 신재홍 신중섭 신진수 신창현
신철경 신철영 신충섭 신태호 신해영 신현만 신현주 신혜련 신혜원 신호상 신홍익 신효진 심상권 심선령 심정숙 심지영 심창현 심현구 아영창 안관옥
안광수 안기대 안동균 안병은 안병직 안상욱 안상현 안선 안선영 안선화 안성룡 안성배 안순억 안예리 안원경 안재형 안재홍 안정호 안종관 안종록
안종배 안준철 안준현 안지영 안진경 안태경 안형주 안혜란 안화연 양경애 양금식 양기근 양대승 양동선 양동화 양동희 양문실 양미선 양민영 양병찬
양선희 양세진 양소형 양승전 양승조 양승철 양영수 양완범 양우제 양유라 양전욱 양종관 양종관 양준모 양지훈 양진주 양창영 양창윤 양춘승 양효정
양희정 양희정 어수갑 엄기영 엄태주 엄현주 여수경 여은정 여은희 여인철 여현호 연구흠 연성만 연용호 오경근 오광현 오근숙 오남성 오대균 오대영
오동운 오동하 오동현 오동훈 오령 오명철 오문섭 오문수 오미령 오민석 오민우 오민웅 오백록 오병준 오상연 오상택 오성남 오세진 오세희 오영주
오영진 오영희 오우식 오은영 오인규 오인규 오정례 오정미 오정은 오정훈 오종호 왕종명 용윤실 우건곤 우국희 우림광고기획 우상일 우연환 우영진
우인덕 우주호 우지희 원귀영 원기준 원명희 원영재 원유광 원유일 원응호 원응호 원치두 위금숙 위성은 위용선 위평량 유계환 유귀숙 유난희 유동환
유리매 유명숙 유명종 유병창 유서희 유세종 유수림 유승희 유시은 유시주 유시춘 유시현 유여경 유영미 유영숙 유익상 유자순 유장휴 유재청 유정옥
유종삼 유종혁 유창현 유태우 유현숙 유현정 유혜연 육기승 육진아 윤광호 윤대원 윤미연 윤병국 윤보현 윤상준 윤석금 윤석양 윤선희 윤성구 윤성구
윤성진 윤순금 윤순진 윤승일 윤승현 윤애선 윤여림 윤연숙 윤연숙 윤영근 윤영설 윤영주 윤영주 윤영주 윤영진 윤영호 윤용석 윤용희 윤인숙 윤인철
윤정덕 윤정은 윤정화 윤종구 윤지상 윤지영 윤철원 윤학채 윤혁경 윤현상 윤홍구 윤화섭 윤희 은영준 은주평 은탁 은혜경 이갑수 이강산 이강오
이강은 이건형 이건환 이경균 이경미 이경민 이경진 이경민 이경빈 이경선 이경숙 이경숙 이경옥 이경자 이경진 이경찬 이경훈 이경훈 이경훈 이경희1
이경희2 이경희3 이계성 이광욱 이광이 이광철 이국형 이권의 이귀보 이귀종 이귀희 이규선 이규재 이근행 이근희 이금휘 이기연 이기영 이기원
이기호 이기훈 이남일 이남진 이남훈 이대공 이대관 이대성 이대엽 이도경 이동범 이동섭 이동수 이동숙 이동재 이동준 이동출 이동호 이득영 이만희
이맹복 이면의 이명곤 이명희 이무열 이문구 이문석 이문재 이미나 이미숙 이미정 이미지 이민숙 이민영 이민종 이병 이병구 이병창 이병철 이병화
이병후 이봉한 이봉화 이상규 이상덕 이상미 이상미 이상미 이상석 이상엽 이상영 이상운 이상율 이상익 이상팔 이상헌 이상헌 이상현 이상현 이상화
이상훈 이새미 이석규 이석문 이석민 이석훈 이석희 이선종 이선화 이선화 이선희 이성록 이성삼 이성우 이성은 이성철 이성호 이성훈 이세진 이소라
이송미 이수빈 이수선 이수안 이수영 이수임 이숙련 이순금 이순덕 이순자 이순종 이승섭 이승재 이승준 이승호 이승훈 이시우 이안재 이양자 이양주
이양헌 이연민 이연수 이영길 이영석 이영수 이영욱 이영일 이영주 이영택 이영회 이옥경 이옥선 이옥형 이용규 이용신 이용자 이용준 이용훈 이원덕
이원목 이원보 이원상 이원재 이원희 이유식 이유재 이윤태 이윤희 이은석 이은애 이은영 이은정 이은정 이은주 이은주 이은주 이은진 이은혜 이응래

이응석 이인근 이인석 이인성 이인숙 이인옥 이인우 이인주 이잠숙 이재국 이재국 이재규 이재상 이재성 이재수 이재수 이재승 이재승 이재식 이재윤 이재은 이재은 이재인 이재철 이재형 이재혜 이재흥 이전영 이정 이정근 이정근 이정기 이정렬 이정석 이정옥 이정원 이정자 이정주 이정주 이종기 이종률 이종순 이종익 이종학 이종헌 이종호 이주영 이주현 이준범 이준범 이준영 이준호 이준화 이지선 이지숙 이지영 이지원 이지현 이지훈 이진 이진 이진규 이진무 이진성 이진아 이진영 이진하 이진홍 이진희 이찬우 이창식 이창식 이창우 이채웅 이철수 이춘로 이춘형 이충기 이치삼 이태규 이하림 이학희 이한구 이해규 이향미 이혁재 이현 이현수 이현숙 이현승 이현심 이현재 이현준 이현진 이형용 이형용 이형원 이혜영 이혜옥 이혜정 이호경 이호동 이호동 이호혁 이호희 이홍관 이홍재 이화섭 이화연 이환규 이후술 이후승 이희경 이희민 이희석 이희송 이희애 이희정 이희중 익산희망연대 임계숙 임기철 임도경 임동준 임동진 임범진 임상렬 임성미 임성숙 임성주 임세영 임수진 임수진 임순영 임영숙 임영택 임유진 임익수 임일빈 임정미 임정임 임정택 임종두 임종표 임주영 임주하 임채기 임춘성 임평규 임학상 임홍탁 임희은 임희택 장규식 장동일 장동찬 장만기 장미아 장미희 장병영 장복규 장복규 장복규 장상헌 장석 장설자 장세훈 장수재 장승욱 장승종 장영삼 장우진 장우철 장유경 장윤정 장은주 장재욱 장재현 장정화 장준선 장창덕 장창덕 장해린 장현철 장혜경 장혜경 전경숙 전금희 전남경 전남수 전대일 전명숙 전민주 전세영 전수진 전영미 전용원 전유진 전재석 전재오 전준범 전지은 전지혜 전형준 전혜숙 전희식 정갑식 정갑철 정건화 정광모 정광순 정귀옥 정기선 정나리 정낙섭 정낙식 정남교 정남수 정대성 정대진 정두만 정륜진 정만규 정목현 정문식 정문영 정미경 정미영 정미혜 정민자 정병화 정보윤 정봉훈 정삼례 정성훈 정성훈 정세용 정세진 정세진 정소영 정송정아 정수진 정수진 정숙영 정순애 정승우 정여천 정연희 정영기 정영배 정영애 정영옥 정영일 정영자 정영주 정영희 정용덕 정용운 정용재 정용철 정원모 정유석 정윤석 정윤재 정윤희 정은 정은옥 정은혁 정을호 정인경 정인숙 정일영 정재식 정재우 정재윤 정재현 정재현 정재훈 정종덕 정주영 정주현 정준모 정준원 정지영 정지원 정진섭 정진화 정찬영 정찬용 정창수 정태익 정택규 정혁진 정현숙 정현숙 정혜승 정혜진 정효순 정효현 정희상 정희석 정희정 정희정 제윤경 조강복 조경래 조금숙 조대연 조명현 조민 조민희 조범희 조보람 조석윤 조성대 조성환 조송현 조수정 조수현 조승희 조영민 조영수 조영재 조영철 조영철 조용언 조용준 조용학 조용현 조용환 조원희 조윤주 조은미 조은송 조은수 조은아 조은정 조자원 조재호 조종한 조중래 조진영 조창현 조태호 조한종 조항원 조현우 조현하 조혜경 조혜민 조혜원 조희연 종로사랑 주경선 주귀환 주금숙 주성복 주승용 주지혜 주진철 주창호 주현정 지도연 지상현 지유나 지은희 지현정 지희진 진계영 진규엽 진동원 진범자 진신정 진영민 진재선 진정현 진정훈 진태준 진화 스님 차경구 차문영 차성현 차승주 차영동 차희상 채승우 채영수 채지연 채희령 천우철 천원주 초당 김성수 최경아 최광필 최국모 최규택 최규호 최기선 최동근 최동식 최명섭 최명진 최명진 최명철 최명환1 최명환2 최문성 최문순 최민규 최민준 최범석 최병대 최병준 최보경 최봉규 최봉남 최사욱 최상용 최상용 최석근 최선애 최성범 최성원 최성희 최세규 최세창 최소영 최송휴 최승관 최양일 최연선 최연희 최영 최영구 최영선 최영숙 최영애 최영주 최영훈 최용수 최용환 최웅집 최원일 최윤진 최윤희 최은진 최은혜 최을 최을영 최의수 최재석 최정규 최정돈 최정심 최정아 최정윤 최정임 최정표 최준성 최진식 최차숙 최철국 최춘식 최충규 최태복 최해리 최현숙 최형식 최형재 최형준 최혜영 최호열 최환규 최희천 탁현민 태경섭 이병덕 피소현 필원태 하가은 하동구 하상섭 하상영 하상윤 하상호 하성주 하옥남 하종인 하진연 하찬호 하효진 한건희 한경애 한경혜 한긍수 한기철 (법인)한누리 한동우 한만엽 한선경 한선경 한선화 한선희 한성주 한수길 한수정 한수현 한숭동 한영자 한영주 한인애 한정석 한정석 한정훈 한종한 한준구 한지수 한지수 한지혜 한진 한진경 한학수 한해연 한현숙 한형동 한혜영 한호 한효녀 함오연 함운경 함재연 함재연 허백윤 허선 허성수 허순영 허승량 허영성 허옥경 허욱 허유정 허윤화 허은주 허인 허인리 허재영 허정도 허찬국 허창무 허호 현경일 현관명 현도관 현무환 현종철 홍경희 홍경희 홍규창 홍남기 홍사립 홍사웅 홍상표 홍선미 홍성영 홍세미 홍수표 홍승현 홍영애 홍유진 홍윤영 홍재경 홍정구 홍준표 홍지명 홍진표 홍찬선 홍창선 홍태철 황광연 황국상 황기룡 황기수 황대식 황동근 황명화 황배진 황상민 황상환 황상훈 황선정 황선주 황선혜 황성용 황순복 황순영 황영식 황영우 황예환 황윤숙 황의노 황의수 황의훈 황인규 황인석 황인성 황재하 황정옥 황주석 황찬익 황창렬 황태주 황효진 황효진 Ginger STL Ted Flanigan

희망제작소
The Hope Institute

부 서	이 름
이사장	김창국
상임이사	박원순
부소장	윤석인
부소장	김해창
부소장	유시주
비상임/부소장	김재현
비상임/부소장	정건화
상임고문	서재경
비상임/고문	김광웅
비상임/고문	박경호
비상임/고문	천경송
비상임/고문	최상용
객원연구위원	김진욱
객원연구위원	박승주
사무국/국장	이태규
총무	유정하
회계	모희정
사무국/인사공육팀/팀장	강현선
인사공육팀	양진주
사회창안센터/팀장	김이승현
사회창안센터	김이혜연
사회창안센터	이경희
사회창안센터	정재도
사회창안센터	김슬아
뿌리센터/센터장	김달수
전문위원	김수종
지역활력팀/팀장	이용규
지역활력팀	김준호
지역활력팀	강현철
지역활력팀(농촌희망본부)	전우석
지역활력팀(CB연구소)	김홍길
지역연구팀/팀장(조례연구소)	김미경
지역연구팀(주민참여클리닉)	곽현지
지역연구팀(자치재정연구소)	권기웅
지역연구팀	이용신
뿌리센터	공다연
뿌리센터	이혜지
뿌리센터	육심준
뿌리센터	장 은
뿌리센터	태유리
희망아카데미/팀장	김미란
희망아카데미	임순영
희망아카데미	이영미
희망아카데미	김현미
희망아카데미	류도리
기후 · 환경팀/팀장	홍 선
기후 · 환경팀	김연지
기후 · 환경팀	조우영
공공문화센터/센터장	이수빈
공공문화센터/간판문화연구소/소장	최 범
공공문화센터	박상현
공공문화센터	안 선
전략기획실/실장	정성원
전략기획실	김연희
전략기획실	이성은
전략기획실	신영희
대안센터/센터장	홍일표
대안센터/연구기획 · 지원	심지영
대안센터/국제팀	한선경
대안센터/국제팀	정기연
대안센터/희망모울	권상훈
대안센터/희망모울	강유가람
대안센터/재난관리	최희천
대안센터/재난관리	위평량
대안센터/재난관리	변성수
웹미디어센터/센터장	김경환
웹미디어센터/뉴스팀/팀장	한순웅
웹미디어센터/뉴스팀	정송정아
웹미디어센터/뉴스팀	권태준
웹미디어/출판팀/팀장	이원혜
웹미디어/출판팀	김진수
웹미디어/출판팀	박수현
웹미디어/웹팀/팀장	조국진
웹미디어/웹팀	설도심
웹미디어/웹팀	임헌욱
웹미디어/웹팀	김경희
해피시니어/단장	홍선미
해피시니어/팀장	남경아
해피시니어/전문위원	김신형
해피시니어/전문위원	정미영
해피시니어	김두선
해피시니어	임성미
해피시니어	이재흥
소기업발전소/소장	서형수
소기업발전소	장윤주
소기업발전소	이현수
소기업발전소	안상현
지역홍보센터	원기준
지역홍보센터	이명희
지역홍보센터	박민선
재정특별TFT/전문위원	최문성
재정특별TFT	황명화
재정특별TFT	정용철
재정특별TFT	이선희
일본희망제작소/이사장	하야시 야스요시
일본희망제작소/사무국장	깃카와준코
일본희망제작소	강내영
독일/ 객원연구원	박명준
파견공무원/완주군	강평석
파견공무원/화성시	김학헌

이사장 김창국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장

이 사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 이사
이옥경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조인원 경희대학교 총장
유지나 동국대 교수
박창기 ㈜프락시스 대표
이학영 한국 YMCA 사무총장
김일섭 안진회계법인 회장
주철환 주철환 C&H Lab 대표
이청종 ㈜후이즈 대표이사
이진민 ㈜자연인 대표
정용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지은희 덕성여자대학교 총장
임영숙 청소년위원회 위원
정지강 기독서회 사장
조동성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윤영각 삼정 KPMG 대표
차지수 피아이씨코리아㈜ 대표이사
서홍관 국립암센터 암예방검진센터 가정의학전문의

감 사 조용환 법무법인 지평 대표 변호사 오현석 가람경영자문

지난 3년 동안 희망제작소와 함께 일하고 지켜봐 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희망제작소는 앞으로도

더욱 깊게 연구하고 치열하게 실천하는 자세로

우리시대 희망의 근거지를 만들겠습니다.

2008 희망제작소 창립 3주년 기념 **애뉴얼리포트**

나는 희망한다

발행처 희망제작소 www.makehope.org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290-11 | **발행일** 2009년 3월 24일

발행인 김창국 | **편집인** 박원순 | **편집진행** 이원혜 | **사진** 박진희 정송정아 김진수 | **사진제공** 연합뉴스

제작 화소 | **후원** 삼양그룹 아주그룹 국민은행 대한생명

KB

KB금융그룹

어려울수록 국민이 희망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대한민국엔
국민이 있었습니다
요즘 같은 때에도
자신의 자리에서 빛을 내는
겨울소녀에게서 대한민국은 희망을 봅니다

흔들리는 세계 금융 속에서도
굳건히 자리를 지켜온 KB국민은행은
국민의 믿음을 큰 자산으로 삼아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리딩뱅크로서 누구보다
힘이 되도록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희망의 별이 빛나는 나라–
국민이 만듭니다

NCSI 국가고객만족도 3년 연속 1위

•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리딩뱅크 (총자산 262조 원 / 거래고객 2,633만명 – 2008년 12월 31일기준)
• 국가고객만족도(NCSI) 3년 연속 1위,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 (KCSI) 2년 연속 1위
• 최고 수준의 안정성 (BIS 자기자본 비율 13.18%, Tier 1 기본자본 비율 9.92% – 2008년 12월 31일기준)

미래를 여는 지혜—
KB 국민은행

www.aju.co.kr

7박8일의 아주 특별한 도전

베트남 하노이 하이즈엉성 빈농가에 유치원 여섯 곳이 생겼습니다
베트남 정부와 지역주민, 그리고 아주그룹의 임직원이 함께 만든
공부방에서는 1,000여명의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희망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아주는 30~40도를 넘나드는 베트남의 뜨거운 기온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세상을 바꿔 가고있습니다**

해외봉사활동 – 베트남 공부방 지원사업

아주그룹 임직원은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공부방 신축/보수 사업 및 현지 아동과의
1:1 결연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한 아주의 열정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뜨겁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주그룹
아주산업 아주아스콘 브이샘 아주베트남 대우캐피탈 아주IB투자 아주기술투자 호텔서교
하얏트리젠시제주 아주인베스트먼트 아주프론티어 아산방지산개발유한공사 아주아이티 아주복지재단

life's ingredients
samyang

MAY.1,1999

삼양_ 전문적인 홈베이킹재료를 만든 날

이 날이 역사적인 날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가정에서 일류 레스토랑의 요리를
만들 수 있게 된 특별한 날입니다

당신의 삶 그 안에
보이진 않지만 삼양이 있습니다

희망제작소
The Hope Institute
www.makehope.org
110-847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290-11
Tel. 02_3210_0909 Fax. 02_3210_0126